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현대불교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 불광사, 북한산 삼봉사, 포천 장안사, 가평 불광사 법흥사 등
웰빙 온돌 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2월 22일(음력11월 11일) 수요일 (주간) 제505호

# 불교학 박사들 '생활苦' 크다

## 동국대만 165명 배출… 전공 살린 안정 기반 취약, 육성책 전무

### '불교학 발전토대' 부양대책 절실

불교학 전공 박사들이 갈 곳이 없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동국대가 개교 이래 지금까지 배출한 불교학 전공 박사는 165명. 이 가운데 110여 명은 전공을 살린 안정적 기반을 갖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 133명 중 교수로 채용된 이는 30여 명에 불과해 젊은 학자들이 교수가 되기는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박사취득자들은 강사로서의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소속이 없다는 것. 소속이 없다보니 불안정해 연구에 몰두하기 어렵다.

동국대 강사 A씨는 "강사 생활에 지쳐 박사 취득자들 태반은 교수직 지원을 아예 포기했으며, 출판사를 차리거나 개인 사업을 벌이는 등 전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이 일자리가 부족한 결정적인 이유는 동국대, 위덕대 등 4개 종립대 말고는 수요처가 없기 때문이다. 영산대 김종명 교수는 "전국 350개 대학 철학과 교수의 전공별 분포를 보면 동양철학이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 80%가 유학 전공자며 불교전공자는 20%에 불과하다"며 "대학의 다수가 기독교계 학교인데다, 지식인 사회에서조차 불교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어 철학과에서 뿌리내리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교수직에 대해 차선이라 할 수 있는 연구소 연구직도 사정이 나쁘긴 마찬가지. 불교학 전문연구소는 동국대 내 불교문화연구원, 전자불전연구소, 선학원 중앙선리연구원, 진각종 종학연구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등 몇 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을 제외하면 각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연구직은 2~3개에 불과해 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일자리 부족은 불교계로서도 큰 손실이다. 불교의 이론적 토대를 굳건히 하고, 올바른 불교 이해를 위해 힘써야 할 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하지 못한다면 불교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교학을 공부하려는 지망생들의 의욕마저 꺾어버려 불교학의 전반적인 기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개신교의 경우 학자 양성에 훨씬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다. 두레연구원(원장 김진홍)의 경우 해외연구원을 2년마다 선발, 박사 수료시까지 월 600~1000달러를 지급한다. 신학 전공자가 주로 선발되지만, 전공의 제한은 없다. 이미 50명이 혜택을 받았고, 금년에는 18명이 선발됐다.

개신교 인터넷 신문 <뉴스엔조이> 주재일 기자는 "박사 과정 학생들은 소속 교회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학위를 받고 나면 담임목사 아래에서 협동목사로 일하며 교회의 브레인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종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학문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신교의 사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은 활용의 문제일 따름. 일회성 지원에 머물고 있는 불교계와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만은 사실이다.

불교학 박사들의 진로 확대를 위해 △교양불교대학 활성화 △종단의 연구소 설립 및 연구프로젝트 개발 △대학 기존 연구소 인력 확충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교구본사 또는 대형 사찰이 중심이 돼 각 사찰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연구 분야를 집중 육성하거나, 종단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연구 분야 중심으로 연구원을 꾸리면 종단과 사찰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불교학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연구자가 부족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도 의미 있다.

불교대학 활성화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현재 조계종이 인가한 불교대학은 40여 곳. 인가 기준에 따르면 석사 이상자 4인 이상을 교수로 고용해야 하므로 160여명의 채용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 강좌 강사료가 월 50만 원 선임을 감안하면 불교대학은 많은 이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교대학의 활성화는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도 있다. 이를 통해 불교는 더욱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야 말로 1석3조인셈. 다만 문제는 인가 기준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한 바 있는 C씨는 "인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강사를 2년 단위 계약제로 고용한다면 강사의 경력이나 안정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용수 · 박익순 기자



"헌법 위반 직권남용 정장식 시장은 사퇴하라." 12월 15일 열린 포항시장 종교편향규탄 범불교도대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포항시청 앞에서 전경들이 막자 이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 포항기관장 홀리클럽 폐쇄 결정

## 종교편향규탄대회 3만 불자 '정 시장 퇴진' 요구

### 15일 포항종합경기장서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하는 범불교도대회가 경북지역 불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5일 포항종합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범불교도 대회는 12월 9일까지 공개 사과하고 기관장 홀리클럽을 탈퇴하라는 포항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이하 종편위)의 요구를 정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개최된 것이다. 조계종 경북지역 본말사와 천태종 법화종 소속 신도들은 정장식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포항시청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관련기사 9면

한편 불교계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거세지면서 포항기관장 홀리클럽은 자진 폐쇄를 결의했다. 정장식 포항시장, 이상득 · 이병석 국회의원, 공원식 포항시의장 등 포항기관장 홀리클럽 회원들은 16일 오전 모임을 갖고, 종교편향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만큼 기관장 홀리클럽을 해체하고 평신도로 활동하자고 결의했다. 종편위는 17일 현재 정 시장의 사퇴 이외에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며 사퇴요구 10만 포항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강유신 · 배지선 기자

## 문화복지연대 본격 활동

### 16일 창립선언식 가져

진각복지재단을 주축으로 새로운 문화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결성된 '문화복지연대'가 12월 16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창립 선언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문화복지연대는 우선 연대의 조직구성 및 홍보작업 등을 서두르고,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회원배가는 물론, 전국 주요 복지관에 풍경소리 게시판 보급과 법률적 자문 및 상담, 문화복지의 집 건립 등의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문화복지연대는 진각복지재단, 사단법인 풍경소리 등 50여개 문화 · 복지단체와 100여명의 개인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할'




그림 · 조태호

법인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함께 불교발전을 일굴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 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TEL: 직통 (02) 737-0090 / 대표 02-737-8881
FAX: (02) 737-0697

스마트폰 '아이 벗' 무료 증정

올해 12월 말일까지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HP rw6100 기종,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벗(I-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 아이벗(I-BUD) 제공조건: 12개월 의무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벗(I-BUD):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상세정보 32면 광고 참조


서옹대종사 사리친견 특별법회
기간 : 2004. 12. 30(목) – 2005. 3. 9(수)
장소 : 백양사 성보박물관


서옹대종사 추모특별전
기간 : 2004. 12. 30(목) –
장소 : 백양사 성보박물관



서옹당 상순 대종사 1주기 추모재
西翁堂 尙純 大宗師 一週忌 追慕齋

서옹당 상순 대종사께서
선정삼매에 들어 좌탈입망하신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생사일여의 큰 경계를 내보이신 대종사의 큰 자취와 덕화를 추모하는
1주기 추모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대덕 스님들과 문도 스님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4년 12월 30일 목요일(음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대웅전 및 참사람 교육관(추모식)
● 법어 : 진제 큰스님(동화사, 해운정사 조실)

대한불교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061-392-1502)
www.baekyangsa.org




## 쉽고 통일된 '한글 금강경'을

<금강경>은 주로 고려대장경에 있는 '구마라집역 고대중국 한어 금강경'을 말한다. 구마라집역 금강경이라고 하지 않고, 구마라집역 고대중국 한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마라집은 현대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라는 의미다. 금강경이 언제 만들어졌다는 따위의 학술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어쨌거나 금강경은 인도에서 만들어졌고 인도어로 쓰였던 경전이다. 그런데 1600년전 구마라집이 '육조 혜능처럼 무식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중국말로 번역을 한 것이다.

불과 100년도 안된 독립선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중국에서도 100년 전의 중국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건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렇게도 귀중히 여기는 구마라집역 고대중국 한어 금강경을 유창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중국 스님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중국 스님들조차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고대중국 한어 금강경을 지금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에게 읽으라면 답은 뻔한 것이다.




### '소의 경전' 불구 번역 제각각
### 결집대회 열어 공식 번역해야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는 종단은 제일 규모가 큰 조계종과 그 뒤를 잇는 태고종 등이다. 우리나라 제1, 제2 종단이라는 두 종단에서 금강경을 번역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조계종과 태고종에는 공식 '한글 금강경'이 없다. 조계종에는 아예 '한글 금강경'이 없고, 태고종은 고대 중국 한어 금강경의 현대 한국식 음독을 '한글 금강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당장 소의경전 결집대회를 열어야 한다. 금강경 번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해, 매주 일요일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충분한 토의를 해, 일년이든 이년이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금강경을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금강경을 제시해야 한다.

'화엄경과 화이트헤드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인원 수 천 명이 10년에 걸쳐 결집한 한글 금강경 3장을 제시한다. 이 번역본을 보고 소의경전을 널리 알리고 소중히 여기는 종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03-01 수보리 장로님! 보살은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02 "모든 중생들-알로 생긴 중생이나 태로 생긴 중생이나 습기로 생긴 중생이나 변화하여 생긴 중생이나, 형상이 있는 중생이나 형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을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한 기쁨의 세상'으로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03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기쁨 세상으로 제도하였으면서도, 제도하였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04 '중생들을 기쁨 세상으로 제도하였다'는 생각을 하는 보살은 참된 보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조현춘(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 태고종 복지사업 '큰 틀' 짰다

## 내년 1월 법인인가 확실…충북 · 제주 등 지역 법인과 연계

그동안 사회복지에 뛰어들지 못했던 태고종이 내년부터 불교계 사회복지의 한 축으로 등장한다. 태고종 사회복지법인이 내년 1월께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충남 논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사실상 확보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이사변경 신청을 해 둔 상태로, 이사 5명 중 4명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총무원 관계자로 변경된다. 이사변경 신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관례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오랜 기간 추진해 온 태고종 총무원은 이사변경 승인이 이뤄지는 직후 종단명을 포함한 명칭으로 법인명을 바꿀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방침을 세워두고 장기적인 법인 운영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태고종은 그동안 중앙 차원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재정 등의 문제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중앙의 법인 설립이 늦춰지자 중앙의 법인 산하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던 충북교구와 제주교구는 별도의 법인을 세워 각각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내년 1월 문을 연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중앙의 법인과 지역교구에서 운영하는 법인의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 종단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위탁 또는 자체시설 건립 등을 통해 산하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광명 천관사의 지원으로 경기 청평에 연건평 525평 규모를 갖추고 12월 4일 개관한 노인주거시설인 태양실버타운(원장 이숙인)은 태고종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로 귀속돼 법인의 1호시설로 기록될 예정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다른 종단에 비해 사회복지사업 참여가 늦은 만큼 치매노인시설이나 노인주거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에 집중함으로서 종단의 역할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과 동방대학원대학교 개교 등으로 상승 분위기에 있는 종단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국장급 인사단행
###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 새 감사국장에 태진, 사회국장에 인오, 호법국장에 삼혜, 사서국장에 효응, 상임감찰에 정암 · 심학, 조사과장에 법원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2월 16일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번 인사는 부장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부장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종단 안정과 화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12월 13일 조계종 총무원 새 문화국장에 혜조 스님이 임명됐다. 남동우 기자

### 천태종 동안거 입재

천태종은 12월 14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사암에서 제88회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이번 안거는 1만여명의 재가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 1월 13일까지 계속된다.

14일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열린 입제식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은 "동서남북이 탁 트였거니/ 시방세계가 다시 어디 남았는가/ 한마음 주송소리 바위 사이 울려퍼져/인간사 갖은 번뇌 모두 씻겨 나간다네"라는 법어를 내렸다. 박봉영 기자



1층과 기단부만 남겨놓은 국보 제11호 익산미륵사지석탑의 해체 모습.

#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모습 공개

## 1층과 기단부만 남아…2009년 복원 예정

국내 최고(最古) 최대 석탑인 국보 제11호 익산미륵사지석탑이 1층과 기단부만 남긴 채 완전히 해체된 모습으로 12월 16일 공개됐다. 2001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해체에 들어가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에 타설된 콘크리트 185톤을 제거했고, 해체된 석재 하나하나 실측도를 작성했으며 사진 촬영과 3D 스캔을 실시해 원형복원에 대비했다. 조사작업을 마친 석재는 미륵사지 내에 조성된 적재장으로 옮겨 쌓았는데, 해체된 석재 양은 1~2.5톤 석재 2000여점이나 된다.

13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동탑 복원 사례를 신랄하게 비판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기간과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개의치 않고 백제시대의 아름다움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건 소장은 "2005년까지 1층 해체작업을 끝내고, 이후엔 정비 및 설계 작업에 들어가 2008년 말이나 2009년쯤에나 사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1층에서 보물이 나올 것인가 하는 점과 앞으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박익순 기자

# 중앙승가대 박사과정 신설

## 내년2학기 불교학전공 10명 모집

중앙승가대가 2005년 하반기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을 추진한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정인)은 12월 6일 대학원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2005년 가을학기부터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은 동국대와 서울불교대학원대학에 이어 세 번째. 이 같은 결정은 박사과정 개설을 통해 수행력을 갖춘 전문불교학자 양성과 전문 승가교육과정의 고급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앙승가대 박사과정은 불교학과(불교 · 역경 · 실천불교(포교) 전공) 10명을 정원으로 개설되며 이르면 2007년 하반기부터 불교학 박사 학위를 갖춘 전문인재가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승가학원 이사장인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박사과정 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종단차원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조용수 기자

# 박사학위 있으면 강원강사 가능

## 조계종 교육원 승가대학령 등 개정

조계종 교육원은 12월 10일 교육원장실에서 제75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승가대학령' 및 '교육교역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강주(승가대학장) 자격이 상향되고 강원의 학사관리가 강화된다.

이번에 마련된 교직자 자격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주의 자격이 교수경력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본교육기관 졸업 후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이수자는 중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매년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강원교직자연수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연속 불참하면 최대 2년간 교직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용수 기자


# 曹溪宗 元老議員 崇山堂 行願大宗師 元老會議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歸依三寶하옵고

지난 11월 30일 涅槃하신 曹溪宗 元老議員이신 숭산당 행원대종사의 원로회의장을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앞으로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惠諒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佛紀 2548年 12月 日

## 崇山堂 行願大宗師 추모재 日程

崇山堂 行願大宗師 추모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다 음 —

| 49재 | 일 시 | 장 소 | 연락처 |
|---|---|---|---|
| 초재 | 12월 6일(음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 | 화계사 | 02)902-2663 |
| 2재 | 12월 13일(음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 | 화계사 | 02)902-2663 |
| 3재 | 12월 20일(음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 | 무상사 | 042)841-6084 |
| 4재 | 12월 27일(음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 화계사 | 02)902-2663 |
| 5재 | 1월 3일(음 11월 23일) 오전 11시 | 백담사 | 033)462-6969 |
| 6재 | 1월 10일(음 12월 1일) 오전 10시 | 수덕사 | 041)337-6565 |
| 7재 | 1월 17일(음 12월 8일) 오전 10시 | 화계사 | 02)902-26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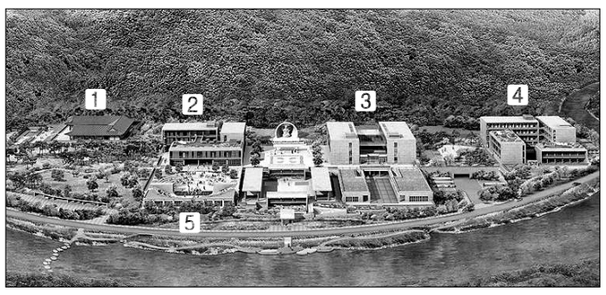
■문의 : 화계사 ☎ 02)902-2663

**大韓佛教曹溪宗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 崇山堂 行願大宗師 門徒一同**

전통불교 문화산업

# 지원센터 2006년 11월 완공

## 244억 투입… 대지 9천평, 4동 건물 4천여 평 조성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번지 일대에 건립될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조감도. ① 국제간화선 센터 ②연구동 ③강의 · 교육동 ④숙박동 ⑤야외공연장

전통불교문화 대중화와 창조적 계승을 담당할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건립 세부계획이 확정됐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번지 일대에 건립될 지원센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국고 122억원, 자부담 122억원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천여 평에 4동의 건물 4천여 평으로 조성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 이하 문화사업단)은 12월 16일 지원센터 기본설계 심사과정 및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원센터 어떻게 꾸며지나?**

지원센터는 크게 △교육 및 연수시설 △국제간화선 체험센터 등 전통불교 수련시설 △연구시설 △공연시설 △불교문화 정보화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여기에서는 조계종 스님 및 신도, 불교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의 교육과 연수를 개발 · 유치하게 된다. 또 무형의 유산을 문화산업으로 개발하고, 불교문화 정보화 사업을 담당할 뿐 아니라, 각종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문화사업단장 현고 스님은 지원센터 건립 기대효과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예로 들었다. 현고 스님에 따르면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발간된 이 책으로 인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수준이 한 단계 성숙됐다는 것이다.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무형의 유산 즉 선수행은 집단활동이나 직무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화 되고, 발우공양 등은 환경친화적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화 될 뿐 아니라 유형의 문화재는 복제화 또는 이미지 제품화돼 실생활과 맞닿는 불교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간화선 중심의 한국불교 대중화 세계화가 가능해져 불교의 대중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주 동력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지원센터는 '자립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각종 수익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운영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12월 22일 오후 2시 마곡사 현장에서 봉행될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2005년 1~5월 건축 기본 · 실시 설계, 6~8월 입찰 및 시공사 선정, 8월 건축허가, 9~10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거쳐 2006년 11월 준공 및 개관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앙승가대 부실시공 전력이 있는 삼풍엔지니어링이 설계용역계약 대상업체로 선정돼 개운치 않은 여운을 남겼다. 또 최종 선정 당시 신구조화 부분에서 정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도 불교계가 추진했던 불사들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전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불교예술인연합회' 발족한다

## 100여명 참여…전국투어로 포교 앞장

불자연예인들이 사단법인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Buddhism artist Korea, 이하 예술인연합회)를 발족한다.

불자가수 장미화씨와 (주)해심원 이선용 대표이사는 12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각 종단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불교 포교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연합회를 결성할 계획"이라며 사단법인 설립 목표와 취지를 설명했다. 또 법장 스님에게 예술인연합회 총재직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

법장 스님은 총재직을 수락하며 "불자예술인 뿐 아니라 불자체육인도 예술인연합회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당부했다. 법장 스님은 또 함께 배석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에게 "2005년 1월 15일에 열릴 종단협 이사회에 이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예술인연합회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술인연합회는 법장 스님을 총재로, 홍파 스님을 비롯한 4개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을 부총재로 추대할 예정이다. 회장엔 장미화씨, 불자가수 김범룡 · 김태곤 · 머루와 다래 · 엄정화씨를 비롯해 연화육법공양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번달 내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5년 1월 경 홈페이지(www.buddhismkorea.com)도 개통할 예정이다. 예술인연합회는 내년 종단협 신년하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신년하례회 때 각 종단들의 동참과 지원을 얻어낸 다음 신행사례 발표와 국내 · 외 공연, 자선바자회 등을 개최한다. 특히 내년 3월부터 부처님오신 날까지 전국 투어를 진행해 '포교바람몰이'도 준비하고 있다.

이선용 대표이사는 "1991년 불교방송이 개국할 때 타종교 방송국에서 두려워 할 만큼 청취율이 높았지만 현재 불교방송 불교TV 청취율 및 시청률이 모두 저조하다"며 "이러한 때 예술인연합회를 발족해 그때의 불심을 다시 일깨울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시대가 요구하는 본사 기능할 것"

인터뷰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직지사는 1600여년 동안 한국불교의 상징적 사찰이었습니다. 최근 원적한 관응 스님을 비롯해 여러 큰스님들께서 수행 교육 포교 복지에 큰 획을 그어온 도량입니다. 어른들의 뜻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조심스럽습니다."

12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은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사진)은 수행자의 초발심으로 승가를 외호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본사로서의 기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웅 스님은 또 "말 보다 실천을 중시하며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단 시간 내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웅 스님은 "본사 주지는 교구본사로서의 안목과 종단적 안목을 두루 견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의 뜻을 모을 것"이라며 "요익중생(饒益衆生)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웅 스님은 70년 사미계, 71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중앙대 법학과,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75년부터 상주 남장사 주지를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불자 무료변론해 승소

조계종 법률전문위원이 한 불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무료변론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 주인공은 조계종 법률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봉석 변호사(31 · 법명 광법 · 사진).

김 변호사가 억울한 사연을 들은 것은 지난 3월. 이록상(47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씨가 형수인 故 권오남씨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 뒤였다.

권오남씨가 사망한 것은 2002년 5월 1일 마산시 석전2동 마도장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때문이었다. 당시 권씨는 여관에서 한달에 50만원 정도 받는 청소원이었지만 화재가 발생하자 투숙객들의 방문을 일일이 두드리고 다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몸을 피하지 못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이씨는 즉시 복지부에 형수를 의사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은 '불인정'. 이어 행정심판과 1심에서도 패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때부터 무료변론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12월 10일 서울고법은 "권씨는 주로 청소를 하면서 여관 관리 보조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투숙객을 대피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상고 여부가 아직 관건으로 남아있다. 김변호사는 "고인의 의로운 행동이 법리적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정토회 4차 천일결사 회향

'일과 수행의 공동체' 정토회가 2002년 3월부터 실천해온 제4차 천일결사 회향식을 12월 12일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개최했다. 서울 대구 해운대 동래 등 전국 정토법당에서 모인 700여 정토행자들은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천일간 진행됐던 북한 · 인도 · 파키스탄 돕기, 쓰레기제로 운동 등을 점검했다.

강유신 기자

## 미얀마서 세계불교대회

제4차 세계불교대회가 40여 개 불교국가 대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8~11일 미얀마 양곤 등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열반종 김해근 총무원장 등 한국 대표들은 9일부터 3일간 열린 불교학 관련 세미나를 참관했다. 특히 열반종은 '세계평화의 종'과 불상을 조성, 양곤 세다곤 파고다에 기증하고 8일 타종식과 점안식(사진)을 봉행했다. 이 학 용인대학 이사장은 6일 양곤 국립불교대학과 한 · 미얀마 불교대학간 교류 협정도 체결했다.



강유신 기자

## 도롱뇽소송 서명운동 참여인원 40만명 돌파

천성산의 도롱뇽과 뭇 생명을 살리자는 '도롱뇽소송' 서명운동 동참 인원이 40만 명을 돌파했다.

도롱뇽소송시민행동은 12월 13일 "오늘까지 천성산 살리기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400,342명을 돌파했다"며 "100만 명을 목표로 앞으로도 계속 서명운동을 전개해, 천성산 문제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천성산 살리기 서명운동은 그동안 도롱뇽소송시민행동과 도롱뇽의 친구들 회원들을 주축으로 전개됐다. 특히 지난 6~8월 진행된 지율 스님의 청와대 앞 단식정진을 계기로 자발적 서명동참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강유신 기자

## 조계종 해외사찰 174곳 LA · 뉴욕 61곳…美에 편중

조계종 사찰 중 해외 소재 사찰은 총 174개이며 그중 북미에 위치한 사찰이 128개라고 한국종교문화연구소가 12월 15일 배포한 자료에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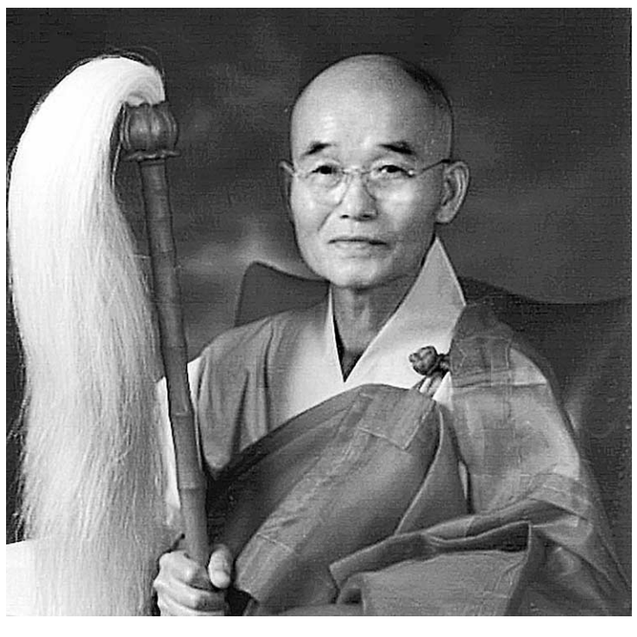
그중 미국 LA와 뉴욕에만 61개 사찰이 위치해 사찰 분포가 지나친 편중돼 있음이 드러났다. 다음으로 아시아 27개, 유럽과 오세아니아 7개, 남미 5개 순으로 사찰들이 활동 중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종교문화소가 문화관광부 종무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월 말까지 작성한 것으로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의 활동상황을 정리했다. 개신교는 170여 개국 1만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천주교 60개국 554명, 원불교 91명 성직자들이 활동 중이다.

강유신 기자


#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법회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3주기를 맞이하여 법보종찰 해인총림에서 법전 종정예하를 모시고
추모법회를 봉행코자 하오니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문도 및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48(2004)년 12월 28일(화요일)
(음 11월 17일) 오전 10시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큰법당)
■문의처 : 해인사 종무소 ☎ 055)934-3000
원 당 암 ☎ 055)932-7308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 인 사**

증 명 : 종정 법 전
봉행위원장 : 주지 현 응
문도 대표 : 성 법

제1회 한국불교 세계화 국제세미나 주요내용

한국불교 세계화의 대명사인 숭산 스님. 숭산 스님이 11월 30일 입적한 가운데, '포스트 숭산' 시대에 한국불교 세계화를 고민하는 첫 세미나가 12월 14일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주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제1회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불교계 해외통인 진월 스님과 미산 스님, 청아 스님 등과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보광 스님, 고려대 조성택 교수, 국민대 이평래 교수, 이동호 박사(발틱연구소장)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전망했다.

# IT 기반 해외포교 인프라 구축 시급

## 불교전적 번역 · 인재 · 국제잡지 등 필수 요소
## "한국불교 정체성 찾는 일부터 시작하자" 공감

**무엇을 세계화할 것인가**

세미나 참가자들은 현대처럼 전쟁이 빈발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국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조화를 모색하는 '회통불교', '원융불교'적 특성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광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서 한국불교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한다면서 원효사상에 기반한 이런 특징들은 불교전래 1600년 동안 호국불교 구국불교 종합불교 통합불교로 몸 바꿔나갔다고 설명했다. 서산대사의 '유심(唯心)', 보조 국사의 '진심(眞心)', 한용운 스님의 '님', 용성 스님의 '대각(大覺)'은 이런 한국불교만의 특징들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한국불교의 세계화란 이런 것을 알려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조성택 교수는 통불교, 회통불교는 최남선의 독창적 학설이 아니며, 원효의 화쟁사상과 원융불교론도 사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해석학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효 원측 지눌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연속성 존재 여부도 문제라며 오히려 현재 한국불교의 모습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현대 한국불교는 새로운 종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집단적 위기에 처한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평래 교수는 티베트불교의 세계화에서 정치적 배경을 제외시킬 수 없다고 전제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종교를 이용하는 흐름에 한국불교가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보다는 불교본연의 모습, 현실이익 추구가 아닌 확고한 내세관을 바탕으로 한 불교 본래 모습을 찾는 게 불교세계화의 첩경이란 것이다.



제1회 한국불교세계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대적인 매체로 인터넷의 활용과 한국불교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잡지의 창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

한국불교 세계화의 방법에 대해 포교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불교전적의 번역, 한국불교를 가르치고 연구할 인재양성, 연구성과를 알릴 국제학술지와 인터넷 기반 마련 등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필수란 이야기다.

미산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구체적 방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스님은 교학 수행법 문화 인터넷 등을 통한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들을 현대 멀티미디어와 결합시키는 방안, 이 일을 실행할 인력 양성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한국 불교학의 세계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불교전적 번역 미비라고 설명했다. 미산 스님은 무엇보다 더 한국 학자들의 언어장벽을 극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수행의 측면에서는 간화선뿐만 아니라 위빠사나 염불 주력 간경 사경 참회 등 다양한 수행법을 개발하고 알려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문화도 세계화에 중요한 요소다. 한국 불교공동체의 결제 문화를 템플스테이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보급하고, 세계 불교문화축제 개최와 국제불교대회 유치를 통해 세계 불교단체와 교류하는 것도 종단차원에서 검토해야한다고 미산 스님은 주장했다.

이동호 박사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내부 역량 점검'과 한국불교에 대한 '잠재수요' 확인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화는 결국 내부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진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국불교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승가교육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적당한 커리큘럼 개발, 외국어 교육 실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아 스님 역시 내부 역량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에서 못하면서 밖에서 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님은 부처님의 법에 근거해 수행가풍을 진작하지 않으면 한국불교 세계화는 단순한 문화교류에 불과하다고 경계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큰스님 입적이 갖는 '의미'는…

지난 11월 입적한 조계종 원로 석주 스님의 입적을 놓고 뒷말이 많다.

석주 스님이 입적하자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아산 보문사에서 입적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장례위원회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뒤늦게 교통사고로 입적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한 언론은 "원로스님의 입적을 '포장'해서 신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공식 보도자료가 나간 뒤에 교통사고로 입적하신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의도적인 포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국불교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큰스님'으로 존경받아온 석주 스님의 열반 발표에 대한 '포장' 여부를 두고 이렇게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근세의 고승인 한암 스님과 만암 스님이 좌탈에 들었고, 지난해 입적한 서옹 스님의 좌탈 역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오랜 좌선수행을 한 스님들은 그 모습 그대로 죽음에 들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님을 보여준다. 지난해 입적한 청화 스님이나 1980년대에 입적한 운허 스님과 취봉 스님은 입적을 예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사들의 죽음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으로 여겨진다.

수행자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해탈을 의미한다.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고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의 죽음에는 삶의 무상함을 일깨워주면서 한시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석주 스님이 교통사고로 입적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제자들이 은사 스님의 수행력에 흠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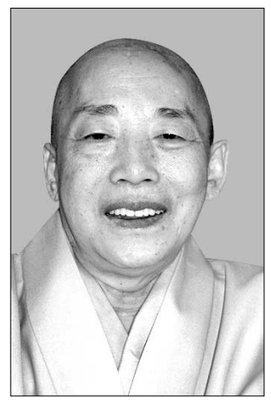
보통 원로 스님이 입적하면 임종게가 발표되고, 다비식 후에는 사리가 수습된다. 문도들은 이를 통해 은사 스님을 빛내려 하고, 세인들은 여기에 매달린다. 그러다 보니 이따금씩 신비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선사들의 열반이 형식주의에 흐르고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굳이 치장하지 않아도 진정한 수행자의 삶 자체는 중생의 사표가 된다. 욕망과 고통, 번뇌를 끊고 영원한 적멸에 드는 열반은 우리 모두의 목표이며, 그래서 큰스님들의 삶과 죽음은 어떻게 살고 가야할지를 보여주는 귀감인 것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25> 묘희 스님

# 가난한 이들과 늘 함께



## 자제공덕회 설립 … 할머니 80명과 생활
## "자비 행하며 이름 떨치길 바라면 안돼"

경기도 화성의 자제공덕회 '묘희원' 찾았을 때 묘희 스님(69)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기자를 맞았다. 1980년대 말 누구보다 먼저 불교계 노인복지현장에 뛰어들었던 스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운 모습이었다. 아무런 말씀 없이 환한 미소로 기자를 반긴 스님은 2차례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안정을 취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묘희 스님은 1936년 경북 점촌역 부근에서 시계방을 운영하시던 아버지 이춘식 거사의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불심 깊은 부모님이 기차시간을 놓친 인근 봉암사, 김용사, 대성사 스님들을 집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 스님도 자연스럽게 불연을 맺었다. 이무렵 성철 청담 향곡 스님 등 당대의 젊은 선지식들도 묘희 스님의 속가에서 신세를 진 일이 흔했다고 한다. 그런 탓인지 스님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14살 어린나이로 윤필암의 월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51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사미니계를, 이듬해에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스님의 부모도 속가집을 모두 정리하고 두 분이 각기 다른 곳에서 출가해 온 집안이 불문에 귀의했다.

동학사 강원 시절 스님은 한국전쟁 와중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다.

74년 신림동 약수암 주지를 맡으면서 중앙승가대에서 3년간 학감으로 재직했다. 83년부터 10년 동안 사당동 시립유아원을 운영하면서 전국비구니회에서 소임을 맡기도 했다. 한창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면서 조계종 제8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스님이 본격적인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든 계기는 86년 대만 자재공덕회의 쳉엔(證嚴) 스님을 만나면서 부터다. 묘희 스님은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이상을 먼저 실천에 옮긴 쳉엔 스님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89년 경기도 화성에 지금의 부지를 매입해 이듬해 한국 불교 자제공덕회를 설립했다.

자제정사는 91년 '노후수도도량'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이곳은 단순수용시설이 아니라 스님들과 할머니들이 함께 수행하는 '도반'처럼 살아가는 곳이다. "자비는 봉사가 아니며 이름이 나기를 바라서도 안된다"는 묘희 스님의 평소 말씀대로 모든 구성원이 수행과 생활을 병행하며 살아간다. 가난한 살림을 나누고 도우면서 꾸준히 성장해 지금은 80명이 넘는 할머니들과 스님들이 생활한다.

자제정사가 안팎으로 알려지면서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어르신들을 감당하기 위해 불사가 계속됐다. 그러나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스님은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다. 일생을 포교와 사회봉사에 헌신하다가 건강을 잃은 스님은 <법화경>에 의지해 기도에 매진하고 있다. 이제 스님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은 "묘희 스님은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 가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화성=조용수 기자


## 불교의식(범음 · 범패 · 작법) 학인모집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에서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2학기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 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박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05년 3월 8일(화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 목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4년 12월 20일 ~ 2005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 입학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본원은 초정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대불대학교(4년제 종합대학)
### 전통연희학과(범패 · 작법반) 신입생모집 정시 "가"군 모집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에서는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과(범패 · 작법반)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20명 (법패 · 작법 및 전통무용의 특기자 스님 및 포교사, 재가불자 우선 선정)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2005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위 학력 소지자로서 전통예술에 관심이 있는 자)
● 특별전형 : **무시험. 서류전형**
● 입학특전 : 1.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교의식 범패 · 작법(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비롯한 전통무용과 풍물을 체계적으로 지도 받을 수 있음
2. **졸업 시 정규대학 (대불대학교) 4년제 학사학위 취득**
3. 졸업 후 대학원 진학 및 외국대학 유학가능
4. 졸업과 동시에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지원서류 : 입학원서 1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 접수기간 : 2004년 12월 22일부터 27일
※**전통연희학과(범패 · 작법반) 모든 상담 및 접수는 본 문화원에서만 가능합니다.**
● 최초합격자 발표 : 본 문화원 홈페이지 게시판 (조회) 2005년 1월 14일 대불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조회)
● 합격통지서 교부 : 대불대학교 입학 홍보처 (개별 합격 통지서 발송 –등기우편) 2005년 1월 14일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 전화 : 032)529-6708 / FAX : 032)529-6709
•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과 조교실 : 061)469-1385 / H·P 018-453-0308
• 홈페이지 :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대불대학 http:www.daebul.ac.kr 입학 홍보처 홈페이지 주소 http://iphak.daebul.ac.kr

사단법인 인 해 전 통 문 화 예 술 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창립

# 연륜과 경험의 힘 뭉쳤다



경남 지역에서 활동해온 불교복지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12월 13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창립을 결의했다.

경남 지역 불교 복지를 이끌어온 주역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쳤다.

12월 13일 경남 지역에서 활동해온 불교복지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은 준비 모임을 열고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창립에 뜻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서는 2005년 1월 20일경 창립법회를 열기로 하고, 초대회장으로 남해 화방동산 효천 스님을 추대했다.

정부나 도, 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원화된 창구역할을 담당할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에 뜻이 있어도 길을 몰라 막막했던 사찰이나 재가자들에게는 안내자로서, 힘을 모아야 할 활동에선 각 기관의 연륜과 경험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지역 복지 연구, 조사 활동으로 복지발전과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 연구·조사로 복지 활성화 모색
## 합동체육대회·전시회 등 구상

"인적 자원은 내게 맡겨라" "기존 법인들의 오랜 연륜과 노하우를 신규법인에 제공하겠다" 등 이날 준비 모임에서 오간 대화들이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청사진을 대변했다. 특히 준비 모임 참석자들의 면면만으로도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 가능성과 결속력을 짐작하게 했다.

결핵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진주 성양원 정혜 스님, 108 동자 키우기 원력을 세운 고성 보리수동산의 승욱 스님, 남해 불교복지의 개척자 화방동산 효천 스님, 새 생명을 주는 진주 감로심장회 불산 스님, 정신지체장애자들의 보금자리 거제 반야원 수형 스님 등이 뜻을 함께 했다.

이 밖에도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중리사회종합복지관, 해인사 자비원, 통도사자비원 등과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참여해 불교복지의 결속력을 과시하고 경남 지역 불교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태게 된다.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는 창립에 앞서 향후 복지에 참여할 사찰과 설립 예정인 법인 파악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3월 중에 경남의 불교복지기관 합동 체육대회를 계획하는 한편, 복지기금 마련 전시회, 경남불교 복지대상 제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안 구상에 들어갔다.

회장으로 추대된 효천 스님은 "경남지역 불교복지는 타 지역과 비교해 매우 활성화돼 있음에도 협의체가 없어 위상정립이 늦었다"며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부산의 포교·수행·복지는 우리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가 2백만 부산불자를 대표하는 신행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다.

그 밑그림에는 '부산불교신도회관 건립'이라는 장기 사업과 더불어 재정, 포교교육, 복지 환경, 조직, 예술, 청년 등 분과별 2005년 신년 사업 계획안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2005년 1월 8일 롯데 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갖고 2005년의 활동을 시작할 부산불교신도회는 2005년을 부산불교신도회관(가칭) 건립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3월 중으로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부산 불자들의 숙원 사업인 부산불교신도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신도회는 제1회 불교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과 CMS 후원단 결성, 신도회 신문 발간 등의 사업을 펼치며 재정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포교의 날 행사나 결식 이웃에 대한 급식 지원, 기초생필품 지원, 난방 지원 등의 위기가정 생활지원사업은 부산불교신도회의 복지 이념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주목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부산불교신도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 부산 사찰의 신도회나 신행단체의 가입을 유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행, 직능단체 임원 연찬회와 각 신행단체가 참여하는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열어 부산권 신행단체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2월로 확정된 현각 스님 초청 법회 등을 통한 대중 포교는 물론 99년까지 이어오다 잠시 중단되었던 '포교 대상'을 부활, 포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이욱태 사무총장은 "조직, 사업면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지만 부산불교신도회가 부산불자들의 대표 조직으로서 불자들의 포교, 수행, 복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신도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부산불교신도회 신년 사업 확정
### 단체간 인프라 구축·대표성 굳혀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 위한 3차 토론회'

# '문화' 사회 흐름 좌우… 전문성 강화

해인사가 '사회, 문화 포교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놓고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위원회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월 12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주지 현응, 해인사 강원 강사 법진, 희랑대 감원 경성 스님과 강원스님, 해인사수련회 박삼수 동문회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발전 기획단장 현고 스님,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원택 스님, 축제기획 불무 김유신 대표의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 새벽예불 상품화·팔만대장경 활용 등

먼저 발표에 나선 현고 스님은 "낮은 동원(기여)수준, 전문성 부족, 불합리한 경영 등으로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나, 도덕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대해서는 신뢰하며, 사회복지실현에 매우 적합한 이념적 특성을 지닌 종교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불교복지도 전문성강화에 가일층 노력한다면 사회복지를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그 대안으로 해인사강원에 전문사회복지과정을 유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강원스님들이 졸업할 때 전문 사회복지학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택 스님은 해인사의 포교방향에 대해 성보 참배객의 체계적 관리, 해인사의 포교거점 구축 등을 제안했다. 스님은 "무엇보다 불자들에게 불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인사만이 가진 지적 자산을 키워야 한다"며 "해인사의 새벽예불이 큰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신 대표는 "문화가 사회 흐름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해인사가 소장한 '팔만대장경'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며 팔만대장경 축제를 위한 전담위원회 설치, 경판인경체험 프로그램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 해설문을 전통문화의 소중함 등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교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 "봉사는 참불자의 길"

## 불국토, 자원봉사자 시상



12월 13일 열린 불국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에서 대표이사 혜총 스님(오른쪽)이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혜총)는 12월 13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2004 불국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불국토 前 대표이사 정관 스님 등 4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2004년 불국토 주요사업 보고, 우수자원봉사자·후원자 포상, 축하 공연의 순서로 이어졌다.

2004년 한 해 동안 불국토가 펼쳐온 각종 사업들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온 10대부터 80대까지 나이와 종교를 초월해 활동해 온 봉사자와 후원자 중 30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용호복지관에서 활동한 부산불교적십자봉사회, 수지침사랑회를 비롯 개금복지관, 양정청소년수련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었다.

혜총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불국토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라며 "내년 한해에도 자리이타행을 열어가는 길에 늘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 '어린이 포교 지도자상' 시상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한동안 중단됐던 어린이포교 지도자상을 부활, 12월 1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포교를 위해 활동해온 지도자에게 수여되는 2004 어린이포교지도자상 대상에는 마산 정인사 어린이법회 곽인철 지도교사가, 원력상에는 제주 우리절 이춘숙 지도교사, 옥유희 부산 여여선원 지도교사, 이명수 충남 각원사 지도교사, 이숙희 대구 성무일승사 지도교사, 정수연 경기 신흥사 지도교사가, 공로상에는 찬불동요 보급에 힘써온 풍경소리 정유탁 찬불동요 작곡가가 각각 선정됐다. 천미희 기자

## 불우이웃 위한 김장 담그기

화명복지관(관장 유정)이 펼친 부산 북구 지역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김장담그기에 화명신도시 아파트 부녀회 연합회와 화명 3동 새마을부녀회, 북구 장애인협회 후원회, 화명복지관 봉사자 등 120명이 나섰다.

12월 13~15일 운수사에서 1천포기의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양념한 북구장애인협회 후원회 박상진 보살은 "장애로 힘겨운 분들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길 기도하면서 양념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도 12~15일 2천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가 영도구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4백 세대에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 심우사 불교대 3회 졸업식

경남 거창포교당 심우사 불교대학(학장 심우)이 12월 13일 제3기 졸업생과 제4기 재학생 30여명의 졸업식 및 수료식을 가졌다.

해인사 총무국장 현조, 교무국장 재현, 해인승가대학 강사 월호, 중앙승가대학 강사 경성, 정토사 수현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행사에서 학장 심우 스님은 "많은 도움을 주신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해인사 강사 스님들께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배지선 기자



##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 "예수탄생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사진)이 열린 12월 11일,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앞에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스님과 불자들이 부르는 캐롤송이 울려 퍼졌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트리점등식은 관음사 풍물패의 한마당 놀이를 시작으로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트리 점등, 총무스님 인사말, 가릉빈가 합창단과 사자후 합창단의 캐롤송 혼성합창 순으로 이어졌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진짜냐 가짜냐의 논란에 휩싸였다가 이번에 진품으로 확인된 선암사 원통전 관음보살상.

## 순천 선암사 관음상
# "4백년 됐다"

진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선암사 원통전의 관음상이 진품으로 판정났다.

순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판별 의뢰를 받은 서울대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원장 홍승환, 이하 서울대 공동기기원)은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관음상의 몸통 부분은 400년, 팔 부분은 410년전에 제작됐다고 판정했다. 오차는 표준편차에 근거해 50년 전후.

이같은 결과는 세 번의 측정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시료 준비과정과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비의 변화를 기준치로 보정해 나온 통상적인 방사성 탄소연대(BP)다. 서울대 공동기기원은 이같은 결과를 12월 7일자로 순천지방검찰청과 순천시, 태고종 총무원, 선암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5인으로 구성된 선암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관음상 진위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관계자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가 나오기전 해종행위자를 종헌종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바 있는 비대위는 철저히 조사해 불교와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킨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태고종 총무원도 새로 선출된 주지 상명 스님을 중심으로 태고총림 선암사의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서울대 공동기기원 진품 판정
### 비대위, 해종행위자 엄중 처벌

선암사 관음상 진위논란은 지난 8월 일부 재적승들이 가짜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기 시작해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감정을 벌였으나 판정을 내지 못했다. 이후 사건을 의뢰받은 순천지방검찰청이 11월 문제를 제기한 재적승, 선암사, 순천경찰서, 순천시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목제인 관음상의 팔 접합 부분과 밑부분 등 2개소에서 2g 정도씩의 시료를 떼어내 서울대 공동기기원에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의뢰했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사찰서 희망의 새해 맞으세요

### 불국사 · 수덕사 · 월정사 등 행사 펼쳐

갑신년을 보내고 을유년 새해를 맞는 행사가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경주 불국사(주지 종상),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수덕사는 템플스테이를 겸한 '송년 산사 음악회 및 신년맞이 타종식'을 2004년 31일 오후 4시부터 2005년 낮 12시 30분까지 진행한다. 국보 제49호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수덕사 개산 최초로 야외 산사음악회가 열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전망이다.

'2005년 오대산 비로봉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월정사의 새해맞이 행사는 31일 오후 11시 20분 주지스님의 법문으로 시작한다. 행사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종울림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을 돌면서 자신이 부처님임을 자각하는 탑돌이로 이어진다.

1일 오전 1시 30분부터는 시가 있는 작은 음악회가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리며, 3시부터는 수행과 상생의 소원을 담아 기원문을 작성한다. 이 기원문은 4시 새벽 예불 때 부처님 전에 봉헌된다.

### 음악회 · 타종식 · 기원문 작성 등 다채

타종식 및 점등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신년법어와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의 신년인사, 권오창 제7교구신도회장의 세계평화와 북녘동포를 위한 메시지 발표, 심대평 충남지사의 신년사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떡국잔치로 추위를 달랜 참석자들은 영화 '쿤둔'과 '오세암'을 관람한 뒤, 새벽예불 및 108배를 하고 덕숭산으로 해맞이 등산에 오른다.

수덕사 재무국장 제현 스님은 "행사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관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월정사, 상원사, 비로봉 등지에서 '내 자신의 부처를 바로 보자'를 주제로 새벽예불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비로봉으로 일출맞이 등반을 하며, 상원사에서 떡국을 나눠먹는다.

불국사는 12월 31일 토함산 석굴암 광장에서 '불기 2548년 제야의 종 타종식 및 신년 대법회'를 봉행한다. 1부 예술제에 이어 2부에서는 신년법어, 신년인사, 축원, 발원문, 신년사, 세계평화와 북녘동포를 위한 메시지, 시낭송, 신년축가, 타종 5타, 불꽃놀이로 꾸며진다.

서울 조계사도 31일 오후 10시부터 1월 1일 새벽까지 타종의식과 떡국공양 등이 포함된 '송구영신법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전국 여러 사암에서 다양한 새해맞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부여 미암사

# 백제불교 계승위해 진력



미암사가 최근 조성한 길이 27m의 와불. 와불 안에는 부처님 진신사리와 2만여 소불을 모실 수 있는 법당이 마련돼 있다.

### 27m 와불 조성 내부 법당에 진신사리 봉안
### 10년 불사계획 중부권 최대 성지순례지 목표

백제 침류왕 때 가난한 한 노파가 손자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며 큰 바위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린 끝에 손자를 얻게 되었다. 부처님 가피에 감동한 이 노파는 계속해서 불공을 올렸고, 그러자 바위틈에서 끼니때마다 쌀이 나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바위를 '쌀바위'라고 불렀고, 백제 무왕은 쌀바위 옆에 암자를 짓고 미암사(米岩寺)라고 이름 지었다.

부여 시내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 거리에 있는 미암사는 쌀바위 전설이 내려오는 기도도량이다. 그런데 최근 쌀바위(충남도 문화재 제371호) 바로 옆에 거대한 와불(臥佛)이 조성됐다. 길이 27m, 높이 6m, 폭 6m 규모의 크기도 크기지만, 와불 발바닥에는 1만6천여 자의 옴자가 조각돼 있는 점도 독특하다.

와불 내부에는 법당이 마련돼 있는데, 올 8월 스리랑카에서 모셔왔다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돼 있고, 2만여 소불(小佛)을 모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 놓았다.

미암사 조실이자 대각종 종정인 만청 스님은 "세계 최대 와불을 조성한 것은 백제불교를 계승하고 국운융창과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와불 조성은 미암사 성지화 불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미암사가 5~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지화 불사는 모두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그 첫 단계는 현재 주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웅전을 헐고 그 자리에 관음전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미 설계에 들어가 있으며, 내년에 바로 착공할 예정이다. 2단계는 와불, 쌀바위, 관음전 아래 마련한 1천여 평 부지에 극락전, 요사채, 공양간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들 불사는 모두 내년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들 불사가 끝나면 미암사로 올라오는 입구에 일주문과 포대화상을 조성하는 3단계 불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문 부근에서 와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숲길(등산로)을 만들고 그 주변에 설법전과 교육관을 건립하게 된다. 이 불사가 마무리되면 미암사는 명실상부한 수행 · 기도도량이자, 중부권 최대의 성지순례지로 떠오르게 된다.

미암사는 대한불교 대각종 총본산이기도 하다. 1996년 대각종을 창종한 만청 스님은 지난 12년 간 이곳에 머물면서 미암사 중창에 혼신을 바쳤다. 그리고 이제 성지화 불사의 출발선을 나섰다. (041)832-1188, www.ssalbawi.com

글 · 사진=한명우 기자

# 백양사 성보박물관 개관



장성 백양사 성보박물관(관장 지선 · 사진)이 12월 30일 오후 1시 개관된다.

2000년 완공 후 4년만에 문을 여는 박물관은 연건평 600평으로 120평 규모의 전시동과 학예연구실을 갖추고 있다. 완공당시 건축가협회 설계대상을 수상한 전시동은 지붕이 둥근 돔형으로 대형유리의 회랑을 갖춰 산세가 날카로운 백암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박물관 사무국장 법선 스님은 "수년간 건물 내부 시멘트 독을 빼내 유물손상을 최소화 했다"며 "단순한 유물전시나 보관보다 도자기 제작, 사찰음식 만들기, 탁본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중이 참여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30일, 서옹 스님 특별전

백양사는 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서옹 스님 추모 특별전'을 개최한다. 특별전에는 서옹 스님의 명당수 사리 4과와 유품 100여점이 전시된다. 서옹 스님 유품으로는 스님이 평소 쓰던 발우, 필기류와 당대 선사들과 교류한 서신 등이 있으며 사명대사일본상륙행렬도(8폭, 몽원 김완 작), 외국 황금불상 등 선물로 받은 국내외 소장품이 눈에 띈다.

또한 백양사는 이날 박물관 개원과 함께 박물관 옆에 '수석 전시관' 기공식을 갖는다. 내년에 개관하는 수석전시관은 지선 스님이 30여년간 수집한 '달마, 나한석' 등 불교관련 수석 100여점이 전시된다. (061)392-7502

이준엽 기자

### "제주불교 활성화 도움 될 것"
### 관음사 성역화사업 추진

제주 관음사(주지 용주)는 12월 10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한라산 관음사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문흥익)'가 주최한 설명회를 통해 지난 10여간 계획해온 성역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음사 주지 용주 스님, 김영훈 제주시장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성역화사업의 취지를 설명한 관음사 회주 중원 스님은 "성역화사업은 제주불교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사업 전체와 연결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웅전 등의 전각들을 고려중기 이전 건축양식으로 신축하고 연구, 교육, 훈련, 문화공간으로 꾸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각국 문화재 보호 · 이용 사례와 한국불교관광사찰 79개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관음사가 제주도라는 문화자원을 제대로 이용하면서 행정기관, 관광업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제주사찰문화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 천안 목천 송광사 개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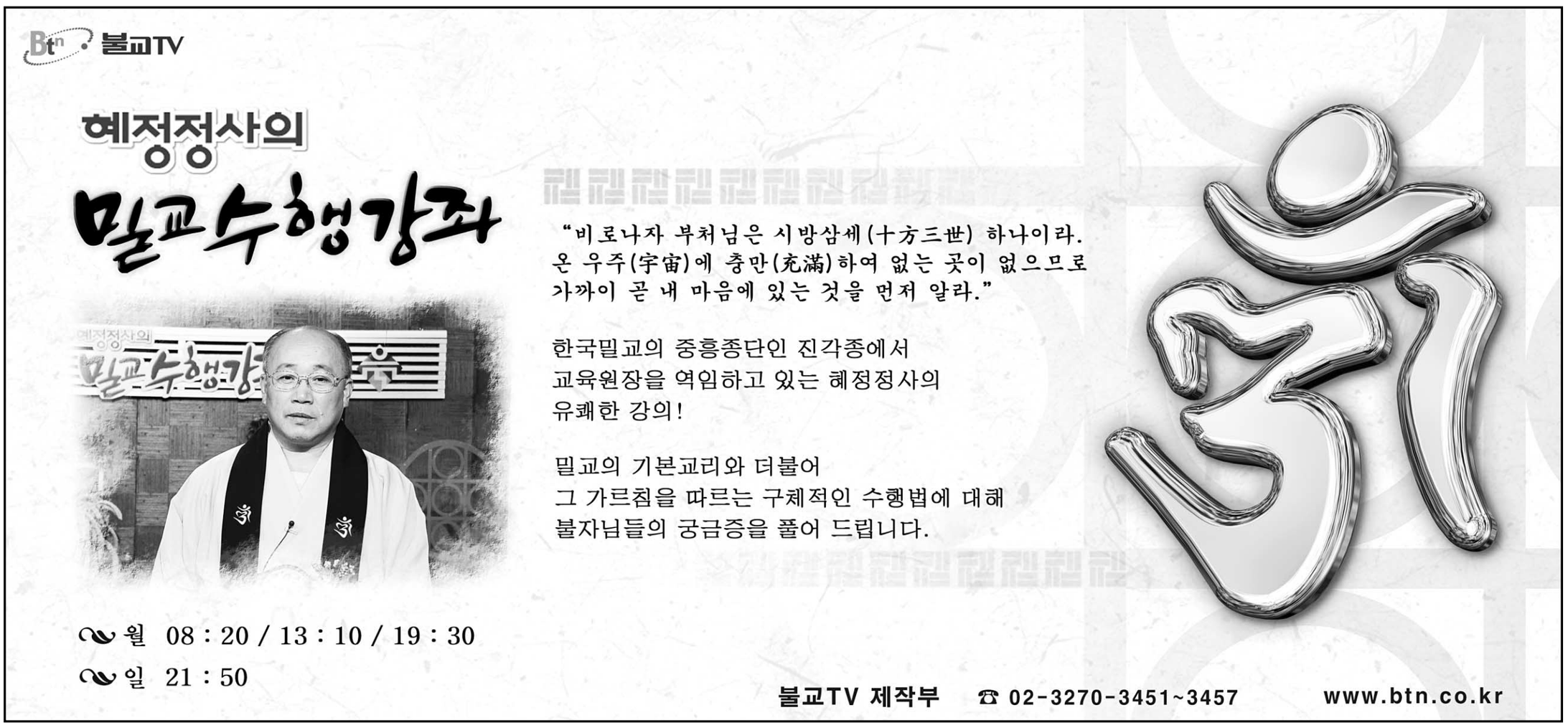


충남 천안 목천읍 송광사(주지 우성)는 12월 12일 법당 개원식 및 아미타불 점안법회(사진)를 봉행했다.

30여 평 규모의 송광사는 법당과 상담실 등을 갖춘 포교당으로, 매달 세 차례의 정기법회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민 포교에 주력하게 된다.

우성 스님은 "누구나 편안하게 기도 · 수행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찰로 가꾸어 나갈 생각이며 복지시설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041)556-2108

한명우 기자

전남 나주·담양 장성·영광

# ‘원류’ 긍지 수행과 전법으로 꽃피운다

## # 나주

‘화합’은 한국불교의 중요화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화합에 근본을 두고, 수많은 큰 스님들이 화합을 강조하건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찾기 어렵다. 이는 지역불교가 침체한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나주사암연합회의 활동이 눈에 띈다.

불회사, 다보사, 심향사, 미륵사, 죽림사, 운흥사 등 천년고찰이 건재한 나주는 종단이 다양하고 교세가 강한 편은 아니지만 사찰간의 화합으로 나주불교의 미래를 밝게 한다.

나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해인 · 무량사)는 20여년 전에 결성되어 17개 사암이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2개월에 한번씩 갖는 정기모임에 대다수의 회원사찰이 참여해 큰 힘을 발휘한다. 사암련 산하에는 나주불교신도회(회장 염규만), 나주불교상조회가 운영되고 있다. 상조회 회원이 1000여명으로 10여년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적인 수련회 사찰로 자리잡은 불회사는 주지 정연 스님이 직접 수련생과 한 몸이 되어 수련회를 이끌고 있어 참여도가 높다. 한 달을 참회발원법회(1~3일), 지혜밝힘법회(15일), 자비실천법회(24일)로 나누어 정진하고 있다. 특히 자비실천법회는 15년 전부터 나주 중증장애자 보호시설인 ‘개산원’을 찾아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나주호를 끼고 자리한 덕룡산은 국내 최대 야생차 군락지이다. 야생차를 이용해 불회사에서 ‘비로차’, 동원사에서 ‘운선로’가 제조되고 있다.

나주시내에 인접한 금성산 다보사와 심향사는 지역포교를 위해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다보사는 선원을 개설해 수행자 중심의 수행을 맡고, 심향사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교육과 불교문화사업을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포교방향을 잡고 심향사는 금년부터 신도교육은 물론 문화공간마련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 담양·장성·영광

담양은 대대로 이어온 담양 국씨 집안의 신심과 왕실의 도움으로 불교적인 정서가 비교적 남아있는 편이다. 묵담 스님이 창건한 용화사와 몇몇 사찰이 국씨 문중의 원력으로 창건됐다.

왕실 원찰로는 용흥사, 용추사가 있으며, 용흥사는 재난 때마다 가장 먼저 훼손당해 옛모습은 남아있지 않다.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은 “담양불교가 해야 할 일은 지역민의 내면에 남아있는 불심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되도록이면 불교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자주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금년에 용화사는 춘기 다례를 시작으로 전통 가사불사, 구오사미계 수계산림 등 대형행사를 펼쳤다. 7월에는 묵담유물관을 개관하고 <불조역대통재>, <화엄경사기> 등 불교 전적류와 궁중유물 등 100여점을 전시해 놓고 있다. 내년 담양 대나무축제 때에는 불교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정토사는 수행하며 정진하는 ‘염불영농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동체에는 7명이 농지 200평씩 매입하고 들어와 직접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며 염불정진하고 있다.

문사수법회와 염불공동체를 지도하고 있는 정토사 회주 한탑 스님은 7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호남지역 10여개 불교대학과 전국의 법회에서 한달이면 20여회가 넘는 강의와 법회를 펼치고 있다.

담양에 비해 장성은 교구본사 백양사가 자리해 있지만 신행활동이 미약한 편이다. 다행히 금년 들어 장성읍에 포교당격인 수룩사(주지 혜현)가 창건되어 지역포교의 전진기지로 기대된다.

장성 백화도량 해인사(주지 무학)는 40여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스님과 생활하고 있다. 3년 전부터 모이게 된 백화도량의 동자승들은 오갈데 없는 결손가정 아이들로 무학 스님이 거두어 들여 대가족을 이루고 있다.

나주 수련회·야생차 ‘특화’ 성공… 상조회원 1천명

담양 전통계승 노력 분주, 묵담 스님 법향 곳곳에

장성 해인사 40여명 동자승 꿋꿋한 삶 전국감동

영광 백제불교초전 성역화 사업에 지역민 한마음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로 알려진 영광 법성포에 건립되고 있는 마라난타사 전경.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영광은 지자체가 나서 불교, 원불교, 기독교 3대 종교의 성지를 개발 중이다. 각 종교별 성지순례를 유도해 종교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뜻이다.

처음 시작은 불교였다. 99년경 법성포에 마라난타 존자를 기념하는 성역화사업을 시작하자 타종교의 반발이 일어났다. 우여곡절 끝에 종교별로 성역화 사업을 전개키로 하고 반발은 일단락됐다.

마라난타사 성역화 사업은 현재 부용루, 만다라광장, 바닷가 데크 조성사업을 마치고 만불전, 사면불, 탑원 등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면불은 마라난타존자의 고향인 간다라불교양식으로 조성된다. 주지 도성 스님은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불교교리에서 백제불교역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산중사찰로 치부됐던 불갑사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전반적으로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신행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시내가 아닌 사찰 내에 불교대학이 설치되고, 신도법회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도 도량불사와 함께 진입로, 상가 등 주변 정비사업이 함께 펼쳐지고 있다. 지자체가 관광객 유치를 염두한 사업이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처럼 불갑사를 중심으로 마라난타사와 연계한 백제불교초전 성역화 불사는 전남 서부지역 포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발원지이다.

나주 · 담양 · 장성 · 영광=이준엽 기자

#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 백양가풍 계승 최선



**두백 스님** (장성 백양사 주지)

“서옹 스님의 열반으로 큰 스님의 빈자리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방장 수산 스님을 중심으로 대중들이 합심하며 백양가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림은 물론 말사 살림살이까지 챙겨야하는 교구본사 주지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큰스님의 열반이라는 큰일을 치룬 두백 스님은 “만암-서옹 스님으로 이어온 백양가풍을 계승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백양가풍을 ‘백장청규 실천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규정한다. 힘들 때면 사찰의 양식을 풀어 지역민을 살렸던 만암 스님의 자비행과 서옹 스님이 주창한 ‘참사람 운동’이 실제 사례이다. 특히 서옹 스님의 법문집 CD제작, 참사람 세미나, 무차대회 개최 등을 통해 참사람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스님은 수석박물관, 야생화 공원, 야외 조각전 등 ‘사계절 테마가 있는 사찰’을 기획해 사찰참배를 유도하고 부수적으로 사찰의 경제자립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임기 중에 백양사 사하촌에 유아, 유치원을 설립하고, 노인정을 세워 불자들이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대사회사업도 구체화 하고 있다.

## 율맥이은 ‘복장의식’ 권위자



**수진 스님** (담양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은 조선의 화담-금해-묵담으로 이어진 복장(腹藏)의식 권위자이자, 묵담-법홍 스님에 이은 해동율맥 율사이다.

동진 출가한 이후 묵담 스님 문하에서 불교의식과 율맥을 전수받은 수진 스님은 ‘스님자체가 한국불교의 맥’이라 할 만하다. 예수재, 수륙재, 가사불사, 비구계, 보살계, 수계작법, 복장불사, 점안작법 등의 불교행사가 스님이 고증하고 증명할 때 큰 의미를 갖는다.

1990년 용화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담양불교를 전면에서 이끌어온 담양불교의 수장이기도 하다. 금년 봄까지 8년간 담양불교사암연합회를 이끌며 지역불교 활성화에 매진했다. 지난 8월, 불교생활화 현대화를 주창하며 불교의식 및 경전 한글화 작업을 펼쳐 <신행법요집>을 편찬했다.

금년엔 40년만에 자수가사를 재현하는 전통가사불사와 동자승을 대상으로 구오사미수계산림을 갖는 등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스님은 내년 담양 대나무 축제 때 불교 전통 수륙제 등 불교 문화 프로그램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 관계자들을 찾아 분주히 뛰고 있다.

## 수련회 기획·지도 탁월



**정연 스님** (나주 불회사 주지)

사찰수련회의 전설로 통하는 정연 스님은 불회사(佛會寺)란 이름이 좋아서 왔다가, 사명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부처님 회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1990년, “학교는 돈으로 지을 수 있으나, 지도자는 오로지 시간이다”고 주창한 정연 스님은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 교육을 발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차선책으로 사찰 수련회를 시작했다. 수련회 3년만에 고비가 찾아왔고, 남방불교 체험길에서 한국불교의 가능성을 발견하자 곧장 불회사로 다시 돌아와 오늘의 관음대참회수련회를 완성했다. 7~8월경 4박5일간 진행되는 불회사 수련회는 참가비가 없으며, 수련생과의 상담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가람을 전체적으로 수련전문도량으로 설계해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통해 도량을 일신했다. 수련회에 다녀간 1천여명의 수련생들은 매월 셋째 토요일이면 불회사로 찾아와 자신을 점검한다. 지난해엔 세계 최초의 ‘사이버 선원(cafe.daum.net/subulhoe)’을 개설하고 매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정진을 독려하고 있다. ‘평생 더불어 수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연 스님의 첫 번째 원이다.

## 문화포교 ‘준비 완료’



**원일 스님** (나주 미륵사 주지)

수행자이면서도 외모에서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포근함이 넘쳐난다. 나주불교사암련이 화합을 자랑하는 것도 원만한 성품을 가진 원일 스님의 막후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미륵사 법당에서 나오는 과일이나 음식의 일순위는 나주 복지관, 영아원 등 복지시설 식구들 몫이다.

“수행이든 포교든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기에 그동안 도량정비에 주력했다”는 원일 스님은 “이제는 불교 문화사업이다”며 미륵사의 미래를 밝힌다. 다도교실, 사찰음식, 한문학당, 청소년 예절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구상중이다.

또한 나주불교의 숙원사업인 불교유치원 설립을 발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륵사는 봉황, 세지 지역 학생들의 유일한 소풍지이다. 타지로 나간 지역민들이 고향에 오면 꼭 들렀다 가곤 한다. 원일 스님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 깊은 인연을 심어주기위해 10년째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 5년불사 지역민에 회향



**진우 스님** (담양 용흥사 주지)

근래 용흥사를 찾는 담양 지역민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5년 만에 환골탈태했기 때문이다. 용흥사는 6 · 25때 전소되어 작은 암자였으나 지금은 대웅전, 조사당 등 5동의 전각이 대가람을 이루고 있다. 변화의 주역은 주지 진우 스님이다.

몇해전 IMF 위기를 겪었을때 실업자들이 갈 곳이 없어 사찰에 왔다가 편안하게 쉴 곳이 없어 다시 되돌아가 노숙자가 되는 것을 보고 발원했다. 용흥사를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종교도 초월하고자 한다. 복잡한 사회생활에 지친 이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전통가람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전각들도 다도실, 영상실, 음악감상실, 불교도서관, 참선실습 및 자료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년 들어 어느 정도 가람이 모습을 갖춰가자 지난 여름부터 주말수련회에 이어 경전강의를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진우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어가도록 하고 있다.

교구본사 백양사 총무도 겸임하고 있는 스님은 교구 말사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암이 더 많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 도량정비·강좌에 촌음 아껴



**만당 스님** (영광 불갑사 주지)

백제불교 종가(宗家) 불갑사. 근래 들어 도량정비가 한창이다. 주지 만당 스님은 조선중기 사적기에 근거해 주요전각을 복원중이다. 영광군에서도 불갑사 주변정비사업을 펼치고 있어 진입로와 상가, 주차장이 정비되고 있다. 내년 말이면 대부분의 사업이 끝나 불갑사가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외형적 변화뿐 아니라 내부 변화도 만만치 않다. 청년회를 중심으로 시작한 마라난타불교대학이 5년째 이어오고 있다. 명강의로 소문난 스님 강좌엔 멀리 광주에서도 찾아온다. 체계적인 불교교육으로 젊은층 불자들이 눈에띄게 늘고있다.

문서포교 일환으로 발행하는 월간 <불갑>이 84호에 이르고 있다. 사보는 매월 1400여부가 발행되며 인기가 높은 편이다.

허리띠 동여매고 포교, 불사를 진두지휘하는 스님을 보면 ‘작은 거인’을 연상케 한다. 체구는 작아도 하는 일이 많고,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 국내 최고 성지 건립 발원



**도성 스님** (영광 마라난타사 주지)

불사만한 수행도 없다. 도성 스님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 사업이라는 일대사를 금생의 수행으로 삼고 있다. ‘마라난타사’를 화두로 24시간 깨어있으니 여느 선방의 수좌에 뒤지지 않는다.

이달부터 성역화의 최대고비인 사면불 기초작업이 시작됐다. 산 정상부에 건립되는 사면불은 아미타 삼존불과 마라난타 존자 상이 조성된다. 사면불은 전탑 형태로 높이가 27m에 달해 기단 위 전망대에 올라서면 마라난타 존자가 왔던 바닷길과 법성포 시내가 한눈에 펼쳐 보이는 장관을 연출한다.

지난해부터 현지에 컨테이너 박스로 임시법당을 꾸며 상주하고 있는 도성 스님은 바쁜 가운데도 지역포교를 빠트리지 않는다. 지난 여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문학교를 개설해 50여명의 아이들이 다도, 예절, 한자 공부를 했다.

## 일요일마다 법회 열어 ‘인기’



**혜광 스님** (담양 정토사 주지)

정토사는 담양에서 유일하게 매주 일요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엔 토요일부터 철야정진을 한다. 그렇다고 사찰역사가 오랜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 창건했고, 2001년 낙성한 무량수전이 그해 건축가 협회상을 수상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정토사는 문사수(聞 · 思 · 修)법회 수련도량이기도 하다. 명칭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올바른 삶으로 수정해 가는 법회’이다.

금년 봄, 담양사암연합회장을 맡은 혜광 스님은 지역민과 하나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중이다. 우선적으로 공무원 불자회와 남도대학 학생회를 창립할 예정이다. 일정부분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어 출범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님은 정토사를 ‘염불영농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다. 정년퇴직자, 도시를 떠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염불정진하며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로, 현재 7명이 정진하고 있다.

## 불교 파노라마박물관 계획



**원광 스님** (나주 심향사 주지)

스님은 젊다. 10여년 넘게 선방에서 정진한 수좌답게 기운도 넘쳐난다. 지난해 주지소임을 맡아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먼저 신도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5년전 중단된 학생회를 재건하고 가족법회를 개설했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 얼마 전부터 법회에 거사들이 참석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3천배 참회기도’ 후에는 뭔가 일을 하겠다며 사찰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스님은 신도교육을 시작으로 포교의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불교파노라마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박물관에는 단청가 박정자 씨가 기증한 200여점의 단청을 전시할 예정이다.

시절인연으로 주지를 맡았지만 다시 선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스님의 꿈이다.

# “어린이·청소년에게 찬불동요 선물하세요”

## 좋은벗 풍경소리, 포교대상 수상 기념법회 · 후원의 밤

### 본사와 1년동안 함께 벌인 ‘CD보내기 캠페인’ 회향

“제16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그간 마음을 모아 늘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2월 16일 송현클럽에서 열린 ‘2004 좋은벗 풍경소리 포교대상(공로상) 수상 기념법회 및 후원의 밤’ 행사에서 좋은벗 풍경소리 총재 지현(청량사 주지)스님의 감사 인사다.

1995년 찬불동요 · 가요 창작과 보급의 원력을 세우고 이종만, 정유탁씨 등 몇몇 젊은 불자들이 주축이 되어 서울 수송동 쪽방에서 활동을 시작한 좋은 벗 풍경소리는 그 동안 총 19장의 찬불동요 앨범과 법회 의식곡집 등을 펴냈다. 10년간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이사한 것만도 20여 번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경소리는 묵묵히 찬불가를 만들어왔다.

12월 4일 제 16회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한 풍경소리를 격려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총재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 부총재 원명 스님(도봉사 주지),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을 비롯 사부대중 300여명이 후원의 밤 행사에 참가했다. 참가 사부대중들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10년간 400여곡의 찬불가를 발표한 풍경소리의 관계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좋은벗 풍경소리 부총재로 원명 스님, 후원회 회장에 강호식(연세대동문회 부회장)씨, 부회장에 김용자(강사야대표)씨를 추대하는 등 도약의 발판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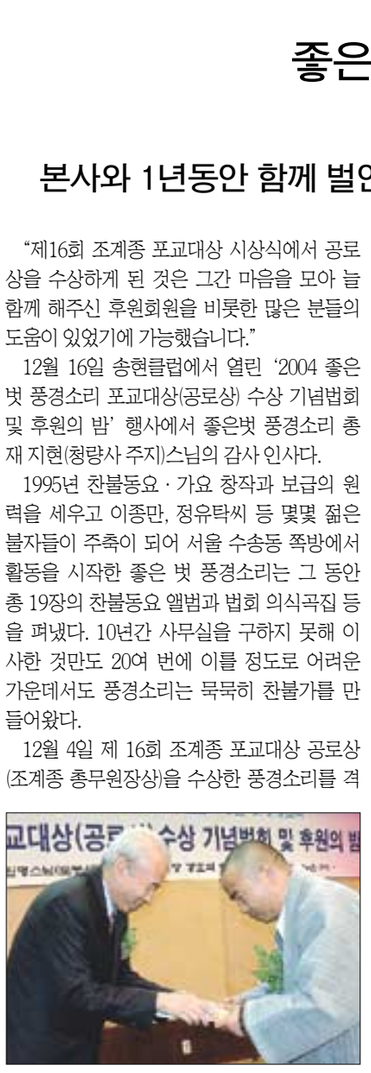
법회에서는 본사와 풍경소리가 1년 동안 전개한 ‘어린이 청소년에게 찬불동요 CD를 보냅시다’ 캠페인 소개에 이어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이 천태종에 찬불동요 CD를 전달했다. 본사가 천태종에 전달한 찬불동요 CD세트는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가 복지사업의 발전과 대국민 홍보에 기여한 언론사에 시상하는 ‘2004 사회복지언론인상’ 상금으로 마련됐다.

한편 본사와 좋은 벗 풍경소가 3월부터 12월까지 벌인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가 CD를 보냅시다’ 캠페인에는 6백89만 1310원이 모금됐다. 본사와 풍경소리는 모금된 성금으로 조계종, 천태종,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전남지역 어린이법회진행사찰, 한마음 선원 뉴욕 워싱턴 L.A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지원등에 찬불동요 CD전집 200여세트와 200여권의 찬불동요집을 전달했다.

또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풍경소리 19집이 완성됐으며, 본사가 직접 감수한 ‘쌩쌩 꽁꽁(swoosh swoosh frozen)’ ‘부처님이 좋아요(we adore the buddha)’등 영어로 부르는 부처님 노래 2곡도 제작되는 성과를 이뤘다.

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성행 스님은 “한 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연말 연시를 맞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달라”고 말했다. 후원문의 (02)723-9836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대불교 김광삼 사장이 천태종에 찬불동요 CD를 전달하고 있다.


좋은벗 풍경소리 포교대상 수상기념법회 및 후원의 밤 행사가 12월16일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현대불교 김광삼 사장, 강호식 후원회장, 부총재 원명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 풍경소리 · 총재 지현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 성금 내신분(무순)

월주스님(금산사 회주) 1,000,000원 지현스님(청량사 주지) 1,000,000원 성행스님(청계사 주지) 1,000,000원 현대불교신문 1,000,000원 김광삼(현대불교신문사 사장) 100,000원 가사야 200,000원 원명스님 900,000원 청월스님(부다피아) 300,000원 청계사신도회 200,000원 이건우 110,000원 정유탁 90,000원 이종만 90,000원 권오형 50,000원 임종덕 130,000원 종인스님(옥련암) 50,000원 현인스님(안심사) 30,000원 원봉스님(남화사) 20,000원 보문정사 100,000원 이강희 20,000원 박노윤 20,000원 김덕화 50,000원 김원우 10,000원 최병헌 30,000원 우수지 50,000원 차동호 10,000원 서영주 20,000원 강동화 60,000원 NUTRIPOPS 10,000원 이석심 30,000원 장혜순 30,000원 김덕화 10,000원 이익수 10,000원 무주상 30,000원 허점자 20,000원 이주희 20,000원 변인택 31,310원 서영주 10,000원 김정옥 60,000원 이익수 20,000원 임종덕 20,000원 총 6,891,310원


조계종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12월15일 종로 하림각에서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조계종 불교사회복지대회 개최

### 우수봉사자 16명 공로상 수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 법장)이 불교계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올 한 해 우수 봉사단체 및 봉사자들을 치하하기 위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12월 15일 종로 하림각 대연회실에서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 보건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1부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세미나, 2부 기념법회, 3부 만찬 및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2부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교사회복지활동은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중생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불국정토를 화현시키는 일”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잊지 않고, 일구월심 화두로 삼아 정진해 21세기 선진문화시민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의 대독을 통해 “고령화와 가족해체, 미신고시설의 증가 등으로 대두되는 사회복지문제들을 정부와 종교계가 힘을 합쳐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앞으로 불교사회복지분야 발전과 방향점을 설정하기 위해 모인 오늘 이 자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는 선재동자원 원장 지산 스님,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재욱 관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석영 사무국장, 조계종자원봉사단 이영예 자원봉사자 등 4명이 수상했으며,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현고 스님 외 11명이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이에 앞서 ‘변화되는 한국사회와 종교사회복지환경’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 세미나에서는 ‘정부정책변화에 따른 종교사회복지환경’에 대한 강윤구 경희대 교수(前 보건복지부 차관)의 주제발표와 ‘한국사회의 변화와 종교계의 역할’에 대한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02)723-5101~2

김은경 기자

## 광주전남 생명나눔본부, 헌혈증서 1500매 전달



혈액질환 환자들을 위해 헌혈증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장)는 12월 14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광주학동 전남대병원 사회사업실에 헌혈증서 1500매를 기탁했다.

이준엽 기자

## 미얀마 선원 25일 재개원
## 서울 가회동에 둥지 틀어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의 정신적 귀의처인 미얀마선원(원장 산디마 · 사진)이 다시 문을 연다.

서울 가회동에 자리잡은 미얀마선원은 12월 25일 오전 10시 개원법회를 갖고 미얀마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수행처를 개방한다.

이날 개원식에는 미얀마선원 개원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은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스님을 비롯해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 미얀마 및 라오스 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얀마선원장 산디마 스님은 “정여 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자들의 후원으로 미얀마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생업과 수행에 매진하게 되었다”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02)762-5302

김재경 기자

## 양양 낙산무료노인요양원
## 내년 1월 문연다

강원도 양양에 무료 노인전문요양 시설인 낙산노인전문요양원이 내년 1월 문을 연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신흥사복지원(이사장 마근)이 양양군 강현면 금풍리에 짓고 있는 낙산노인전문요양원은 연건평 518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원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1월부터 양양 · 속초 · 고성 등 인근지역 독거노인들을 선발, 입주시킬 계획이다.

요양원은 3~4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실 20개와 자원봉사실, 공공거실, 목욕실, 식당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내년 4월경 개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033)672-2447

김은경 기자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자동이체 신청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02)737-0090, 팩스(02)737-0697

###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 나눔의 손잡기 성금

한마음선원 강릉지원 –37만5350원, 서대문 길상사– 10만7650원, 허성국 이규만 성재영 김동조 정필수 정창진 김정호 박문혁씨등 불교출판인 일동–합 25만8640원, 장순덕– 1만원, 윤선애– 1만원

**총 누적금액: 29,665,140원**

### ‘나눔의 저금통’ 회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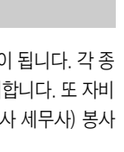
연말을 맞아 본지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올 한해 전국에 배포한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나눔 스티커 및 저금통 신청

전남 여수시 둔덕동 여수청년회 한경규
저금통– 50개, 스티커– 50장

###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 보아라! 불심을

## 포항시장 종교편향 발언 규탄 '범불교대회' 현장





정장식 포항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불자들이 포항경찰서를 방문,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

"헌법위반! 직권남용! 정장식 포항시장 사퇴하라"

12월 15일, 3만여 불교도민의 함성이 하루 종일 포항시를 뒤덮었다.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편향 정책을 규탄하고 퇴진운동을 펼치기 위한 '사회와 종교화합 실현을 위한 범불교도대회'가 포항시 종합운종장 앞 광장과 포항시청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불교사암연합회를 비롯해 조계종 대구경북 5개 본사와 태고종, 천태종, 법화종, 진각종 등 종단을 초월한 대구 경북지역의 불자 3만 여명이 운집했다.

포항 종합운동장 안팎으로 범불교도대회를 알리는 포스터를 앞세우고 대형버스 500여대가 대거 진입했다.

정 시장의 종교편향 행위가 시작된 것은 5월 29일~6월 2일 열린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에서였다. 명예준비위원장을 맡은 정 시장이 '포항 성시화' '포항시 재정 1%를 선교에 사용' 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10월 11일 포항불교사암연합회는 정 시장의 공개사과와 홀리클럽 탈퇴를 요구하며 10월 27일 종교편향대책위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정 시장이 불교계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고 종편위는 12월 15일 범불교결의대회 개최를 확정했다.

오전 11시, 사회자의 함성에 연합풍물패가 중앙으로 나서

### 사부대중 3만여명 운집…퇴진위한 모든대응 천명

북과 꽹과리로 한바탕 신명을 울리자 불자들의 함성이 종합운동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여러분을 뵈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낮12시, 종편위 집행부가 벅찬 감동의 말을 전하며 1부 '다짐의 장'이 시작됐다. 오늘의 행사를 알리는 '고유문'을 읽은 뒤 사공정규 사무총장이 포항시장 종교편향정책 사안의 성격규명에 나섰다.

사공정규 사무총장은 정시장의 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 의무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어긴 행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20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 공금을 유용하려는 행위, 개신교를 믿지 않는 포항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 경천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포항장기관장 홀리클럽 창립 맴버 23명, 이상득 · 이병석 국회의원, 공원식 시의회의장에게도 조속한 탈퇴를 촉구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이런 엄청난 사건은 처음 있는 일로 2천만 불자가 뭉쳐야 한국불교가 산다"며 박수와 구호를 통해 이날행사에 참가한 3만여 불자의 자긍심을 높였다.

이어 청와대와 각정당, 시민들에게 전하는 호소문과 한나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바라는 촉구문이 발표됐다. 대회가 종교화합실현, 종교편향사례에 대한 대응 및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하는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창으로 1부 행사는 막을 내렸다.

오후 1시 30분, 포항시민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할 시청정문은 쪽문 하나만 남겨둔 채 굳게 닫혀있다. 시청안에는 대구경북에서 집결한 10개 중대의 전경 1200여명이 포진해 있는 상황. 대형버스가 속속 도착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오후2시 정장식 포항시장 참회를 위한 반야심경이 봉독으로 범불교도대회 2부 행사가 시작됐다. 비구니 스님들이 포항시청정문 앞으로 나섰고, 스님들과 불자들은 엄숙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정장식 포항시장의 퇴진을 위해 모든 힘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종편위는 "종교편향적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장식 포항시장의 퇴진을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장식 포항시장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여기저기서 "정장식은 퇴진하라", "정장식은 나와라"라는 소리가 빗발쳤다. 그러나 1000여명의 전경들에게 가로 막혀 끝내 시청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시청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고, 시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스님들이 몇 차례 해산권고에 나섰으나 불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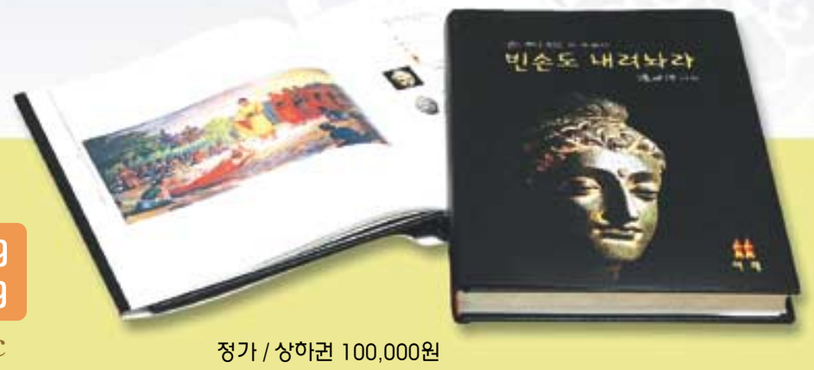
오후 4시 30분경 이규백 포항경찰서장이 "아무런 사고없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대회를 진행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해산권고에 나섰다. 이에 종편위 스님들이 다시 나섰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기폭제가 되었으며, 우리의 뜻을 만천하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라는 스님들의 설득으로 산회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이날 대회는 오후 5시 회향했다.

포항=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편향적 행태에 분노한 대구경북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시청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이 막고 있다.

금강경의 주장자 84,000장경의 엔솔로지
빈손도 내려놔라
도서출판 여래. 저자 둔세승. A4 size 100% 칼라양장판 867쪽
보면 보인다!?
불교사상 처음 금강경을 의지해서 그동안 배우고 탁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둔세승(세간을 등진 출가자)이라는 필명으로 밝힌 4차원적인 삶의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나는 알고있다라는 현대인들에게
1,000여편(세계불교문화유산)의 컬러 이미지와 함께
깨달음으로 이끄는 밀레니엄 화두
연락처 : 02)515-8289
053)744-9009
www.buddhapia.cc


정가 / 상하권 100,000원

철밥통 씨의 '죽었다 깨나도 회사가기 싫은 날' VS 직장 불자들의 '그래도 회사를 즐겁게…'

# 마음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워? 일단 해봐~

△ **출근 생각만 하면 밥맛이 싹~**

"얼마 전 나온 통계기사에 따르면, 직장인은 정상인 73%(잠재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노이로제 환자 22%(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득도자 5%(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 세 분류로 나뉜다. '대부분' 혹은 '거의'라는 단어를 양심의 가책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철밥통 씨의 이론(?)에 따르면 회사 안의 어떤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는 순간 호흡이 가빠지면서 기분이 상하고, 회사와 관련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회사에 가기 싫어진다면 이것은 스트레스다. 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든지, 월급 액수와 직장 내에서 살고 있는 처지를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는 것들 역시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다.

☞ **철밥통**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의 엉덩이에 똥침을 놓을 수도, 월급 가지고 장난치는 사장 집에 불을 지르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모든 스트레스를 '자신의 강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다.

스트레스를 개인적이며 정신적인 문제로만 해결하려들지 말자. 스트레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고 스스로 스트레스에 강해지자. 방법? 득도를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은폐시켜 스트레스 거리를 흥미거리로 만들거나, 업무시간에 딴 짓을 하거나…, 참, 소극적인 사람은 직장 상사나 동료의 사진을 인형에 붙여놓고 바늘로 찌르는 간접복수를 해보도록 하자. 만약 탈출하기 싫다면 그냥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인생은 고난이야'라고 중얼거리며 생을 마감하는 수밖에.

☞ **직장불자** : 하하~. 재미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방법은 순간적인 해소는 될지언정 근본적인 해소법은 되지 못한다. 스트레스란 마음의 병이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가까운 사찰을 찾거나 직장 안에서라도 참선이나 절, 염불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려 노력해 보라. 절을 한배한배 드리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과정에서 어느덧 내재된 화와 불만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면, 시기와 불평 등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은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순간 없을 것만 같았던 해결책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정말이지 회사에 가기 싫을 때가 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사 및 거래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월요일마다 시름시름 아프고, 출근할 생각만 하면 밥맛이 떨어져도 어금니 꽉 깨물고 회사가 나가야 하는 이들. 회사가기 싫은 이유라면 앉은 자리에서 수백개의 이유도 댈 수 있다고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 직장인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직장인들이 오래오래 회사에서 버틸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담은 직장생활 험담서 <죽었다 깨나도 회사 가기 싫은 날>이 발간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괘씸죄로 직장에서 쫓겨날까 실명을 밝힐 수 없다는 지은이 '철밥통' 씨의 솔직한 직장체험담과 다소 엉뚱한 해결방안. 과연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불자들에게 들었다. "직장생활 스트레스, 이렇게 해소하자!"



△ **저 인간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저 인간만 없으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자, 동시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 도대체 왜 그런 '몹쓸 인간'이 회사 내에 존재하는 것일까?"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 있어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잔소리하는 직장상사와 개성과 창의성의 미명 아래 제멋대로 행동하는 후배사원들. 개개인을 상대하기도 벅찬데 때론 회사라는 집단은 '팀'이란 미명아래 이들을 통제해야 하는 고역을 부여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편안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 **철밥통** : 우리는 회사동료를 종종 '웬수'라는 말로 대체하곤 한다. 어느 회사에나 이 웬수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착한 동료인양 양의 탈을 쓰고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사람에 따라 종류도 아주 다양하므로, 자칫 경계의 눈빛을 풀었다가는 절대로 회사에서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해 적군을 물리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직장동료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상대가 정말 동료가 맞는지를 살피고, 동료를 가장한 웬수들은 무조건 멀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 **직장불자** : 회사라는 집단의 비인간성을 적절히 표현한 말이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유난히 마음에 안 드는 상사와 이유 없이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유독 눈에 거슬리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계속 미워하고 험담을 해서는 개인은 물론 회사의 발전과 화합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하심(下心)을 통해 우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또 자신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화를 내기에 앞서 자신에게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반성해보는 태도를 가지면 어떨까. 굳이 인과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원인 없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열린 마음으로 이해의 고리를 만들어 나갈 때야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싹트지 않을까.

△ **퇴근시간도 체크하란 말야?**

"왜 회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회사의 구조와 환경, 경영진의 무능함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시키는 일 잘하며 얌전히 살고 있는 사원들을 제일 먼저 무참히 짓누르는 것일까."

업무나 인간관계 외에도 직장인들은 회사의 구조적 시스템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사원들의 능력을 복종의 유무와 회사 내에 머무는 시간 등으로 평가하려 든다는 것이다. 업무를 다 끝냈음에도 상사의 눈치에 의해 퇴근을 못한다든지,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일에 대해서도 '회사의 방침' 혹은 '오너의 결정'이라는 말 한마디에 꼼짝달싹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이럴 때 직장인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때로는 회사에 왜 다녀야 하는지 의문이 들만큼 자괴감에 빠진다고 말한다.

☞ **철밥통** : 회사의 문제점은 퇴근시간 규제에서 잘 드러난다. 제 시간에 퇴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땅을 치고 이를 갈며 분노해야 할 일이다. 개인적인 이유로 퇴근을 늦게 하는 것은 업무 시간에 놀았다는 반증 아니면, 업무 시간 안에 일을 끝낼 능력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이므로 '지진아 반'으로 모아 특별관리를 해야 하고, 능력도 있고 놀지도 않았는데 정시에 퇴근을 못 한다는 것은 회사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사원을 충원해주거나 비논리적인 '상사의 눈치'의 근절을 촉구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회사는 이 모든 것을 사원들의 시간적 희생으로 돌린다. 나는 이 구조적이며 암묵적인 범죄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비저항 무노동' 운동 즉, 근무시간에 일하지 않고 놀 것을 권한다. 코딱지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말아라. 이건 너무나 타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다.

☞ **직장불자** : 안타깝게도 위의 해결책을 권장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대신 일터 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를 실천하라고 권하고 싶다. 고질적인 회사 구조와 시스템을 고칠 수 없는 한 회사 안에서 일과 수행을 병행하며 참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개개인의 발전을 꾀하라는 얘기다. 자리이타(自利利他)정신으로 매사를 즐겁고 능동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때론 사표를 던지고 싶을 만큼 고달프고 힘든 직장생활을 현명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

또한 개개인이 가진 재능과 능력 등을 일터 외에도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 **조언해주신 분들** : 은평구청 불심회 류태곤 총무, 소비자보호원 불자회 김종관 총무, 선재마을의료회 여오숙 간사, 대한불자가수회 김활선 회장, 국립의료원 법우회 임종승 총무.

## 우리불자회는요

### 경남 교사불자회 창원지회

경남 교사불자회 창원지회는 교사불자들의 신심고취와 친목, 청소년 포교활동을 위해 2003년 11월에 창립했습니다. 1년여의 짧은 역사지만 현재 창원지역 중·고등학교 3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매월 첫째주 월요일 성주사를 찾아 정기법회를 보고, 밀양 표충사 등 인근의 유명사찰들을 찾아다니며 신심을 돈독히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불자회는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살려, 한국전통문화체험과 문화재탐사반 등의 특별활동들을 통해 학교수업 안에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인증점수 등의 변화된 교육정책을 적극 활용, '우리 동네 청결운동' '문화재모니터링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명과 우리 역사의 소중함 등을 알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 교사불자회 창원지회가 2003년 11월 9일 성주사 설법전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청소년포교 활성화 발원을 세웠다.

#### 전통문화체험·우리동네 청결운동 전개

#### 불교적 인성교육 위해 토론·정보 교류 활발

실질적인 방안으로 우리 불자회는 지난 3월 31일에는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기원법회 및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상남도 교육감 4명을 비롯해 지역교육청 교육장, 창원 지역 교장 및 교직원 150여명이 참석해 교육정책과 함께 불교적 인성교육 등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했습니다.

괄목할만한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경남지역 내 교육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협력방안들을 모색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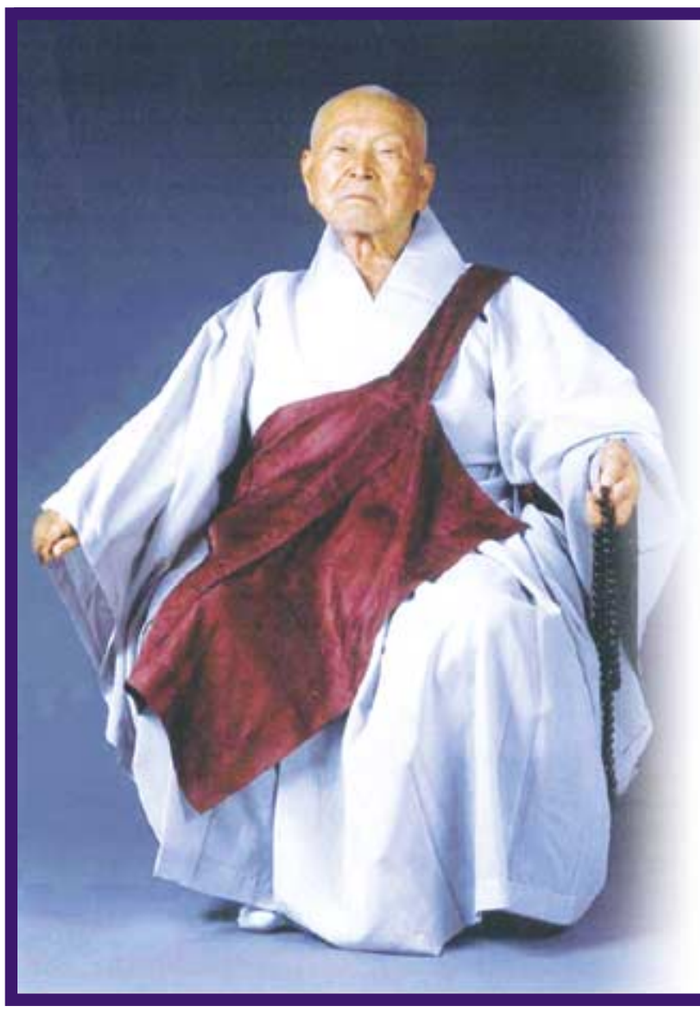
이밖에도 우리 불자회는 회원배가와 조직구성 및 다양한 사업방향 등을 통해 불자회의 골격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다움 카페(cafe.daum.net/tbuddha)를 통해 전국 12,000명의 회원들에게 지회의 소식들과 지역불교계 동향 등을 알리고, 지난 8월까지 경전공부를 하며 느낀 점과 배운 내용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종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아닌 이상, 일반 교사들이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법회도 한 사찰이 아닌, 지역 내 크고 작은 사찰들을 찾아다니며,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사찰들의 대소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조직의 기본을 다지는 해였다면 내년에는 청소년포교활동 전념할 계획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몇 차례 더 의논이 될 계획이지만 회원들을 중심으로 수업시간이나 특활시간, 혹은 방과 후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불교적 아이템들을 많이 개발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회는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모범적인 불교신행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호종 회장**(창원 중앙여자고교 교장)

# 昔珠堂 正一 大宗師 49齋

**歸依 三寶**하옵고

금번 을유년 1월 1일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셨던 석주당정일대종사를 추모하는 49재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셨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역경불사와 포교활동에 평생을 헌신하셨던 큰스님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평소 큰스님을 흠모하셨던 각계의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시길 앙망합니다.

불기 2548년 12월

● **일 시** : 불기 2549년 1월 1일 오전 10시 ● **장 소** :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법왕루

원로 대덕 스님과 초청 내빈들께서는 사전에 참여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봉은사 종무소 02) 3218 - 4811~5 ※ 일체 모든 객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昔珠堂 正一 大宗師 문도대표 월우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혜 拜上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본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영시,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 채 요가지도자 용

- 지원자격 : 1. 2004년도 4년제 대학 졸업자 or 2005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요가 수련 경험이 없어도 심신이 건강한자 지원가능
  2. 대구 지역 근무 가능한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4. 재적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 접수기간 : 2004. 12. 10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인통보 면접

※ 이메일접수 : albong99@hanmail.net

**휘트니스 요가원** 대구시 중구 포정동

---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

**神 비법 강의**

초종파 불문하고 무조건 찾아오세요. 이곳에 선지식 한분 계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계가 자신속에 있지만 모르면 道 아니다. 배우고 나면 누구나 훌륭한 道人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용사 법경 합장 ※ 빙의치유세미나

※좋은인연이란 주고받는 거래일뿐이다. 그게바로 福

055-573-7832 / 010-3189-3525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30번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

**비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7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

**삼존불 보시받습니다**
(아미타,관음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공주시 계룡면 양하리 금강암 비구스님
041)855-6936

---

**치 질 치 루**

- 치열이 있는분
- 통증이 심한분
- 재발이 잦은분
- 한방비법과 운동요법으로 완전 정복함

(스님들께는 특별보시함)

팔공산 천룡정사
017-533-1356,054)336-0052

---

**신축 사찰 창건하실 주지스님 모십니다**

강원 인제
011-9109-3660
(24시간 상담)

---

**역학 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

현대과학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없고 병명이 나오지 않는것을 밝혀내고 약사부처님의 신통의 약손으로 신병을 만져서 고침
약왕사 031)746-6795
017-257-6795(칠광)

---

**가족처럼 함께 지낼 공양주보살님과 처사님을모십니다**

▷경남 김해 산사
011-693-7742

---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50세. 포항시 근교
010-6658-3397

---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65세
법비내리는 동해사
033)672-2900
033)671-7753
017-554-0737

---

법납 30년된 50대초반 승려로서 포교 및 사찰운영관리 책임지고 평생 머물곳을 찾습니다
▷부산 경남지역 원함
051)553-5743

---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환영)
정릉02)917-3363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가능자.40~50대)
▷경기 파주
010-4634-7796

---

**부전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1-9020-7199

---

**포교당 운영하실 40~50대 비구니스님구함**
즉시 포교가능함
몸만오시면 됨
(충북 제천시 중심가)
043)648-6422
011-792-8969

---

조계종 스님 설립 부산전지역의 중심지이자 전철 교통중심지에 90평 2층 빌딩(전세임). 산승은 평생 산중환경에 익숙하나 도시환경에는 맞지 않아 포교에 관심있고 인수 받을 능력있는 스님을 찾고있음. 그리고 40~50대의 사원을 운영관리할 비구, 비구니스님을 찾고있음
부산설법원 051)441-1430
경북내원암 054)653-1180

---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대 ~ 60대전
부산근교 조계종 사찰
011-693-7742

---

**화주보살 구합니다**

02)952-7277

---

**천일기도 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부전도 가능)
02)790-0805
017-515-7527

---

**가족처럼 함께지낼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54)654-4925
011-758-1819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고양시
019-211-8533

---

**사찰종무행정요원모집**

PC가능, 신심 용모단정한 30~40대 불자 여성.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1통, 자기소개서

· 접수일 : 2004.12.13일까지 (서류심사후-면접통보)
·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대구포교원 선광사

053)963-9945

---

**달마도 무료 보시합니다.**

액운소멸, 수맥차단 달마도

불자님들의 은혜에 보답코자 천운사를 방문하시는 모든 불자님께(음력, 12월 31일까지)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207번지
031-764-3399 천운사 구암 합장

---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

**당뇨**

- 혈당조절 물질
- 콜레스테롤 조절성분
- 혈액순환 촉진성분
- 기타 천연성분,미네랄

특수영양식품

당화혈색소 관리가 합병증 예방에 필수조건입니다.

평소에는 혈당측정, 2개월후에 당화혈색소(HbA1c)를 측정해보면 혈당관리용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제 조 : 미국의 세계적 특허기술 처방제품

판매원: 눈밝은 세상 (02) 2237-8004

일본 수출중!

---

**요사채 건축공사 및 내부시설공사 전문**

1.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
2. 증축 확장 개보수 공사
3. 보일러 설비 및 위생배관 공사
4. 전기 공사
5. 샷시 창호 공사
6. 미장 방수 공사

불심으로 봉사하는 여일 종합 건축 공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12-22 대표 윤재만
TEL. 02)476-8139 H P. 011-9720-1443

---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 22일(화), 24일(목)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 체계적인 교육
▶주 · 야간반 선착순

출가 학교 및 행자 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 3월 22일(화)-주간반, 24일(목)
- 주 · 야간반 각 요일 선택. 주 1회
- 불교 TV 금강경강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큰스님들의 특별 법문
- 인터넷방송국,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문의-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811-0337, 칠곡도량: 312-8221

인터넷 홈페이지 : www.TVbuddha.co.kr

---

**이십팔숙 특별지도**

-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을 쉽게 설명
  불설 28숙은 모든 역술을 총괄하는 비법이며 이것을 모르고는 역술을 논할 수 없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

**학인모집** www.walyoung.com

- 역학, 연수과정(기초 ~ 전문까지)
- 3개월 이수 후 불교대학 등록시 연수과정 산입
- 불교대학 월 1회 2년간 본교 수업
- 오후반 : 2시, 4시 저녁반 : 7시 9시 강의
- 원정스님 직접 강의(원정의 경력 및 저서 홈페이지 참조)

042)222-5786,042)211-4287,011-9429-5786
만대교학대학원 대전교육장

---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팔금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 용왕, 독성탱
※ 먹탱화 홍탱화 ※ 무속종합탱(각종족자)

041)541-3545.3547 / 016-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불모 오재택의 작품 사진 300여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모 오 재 택

---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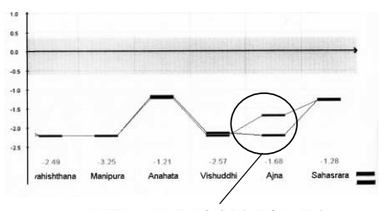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가격 :9만원/50회분
17만원/90회분

마음의 안정과 집중, 육체적 활력을 위해서는 인체 에너지의 1/4을 소모하는 두뇌에 약50여 종의 영양소와 산소 혈액 등이 충분히 공급되고 소화기를 비롯한 각 장부의 균형이 반드시 조화되어야 합니다. 초의환은 밝고 온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던 선가의 비전을 토대로 하여 뇌기능 활성화, 수면단축, 피로회복, 면역력 증대, 하체 강화 등 수행인의 모든 면을 고려한 제품으로 오랜 기원과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카를리언 사진기로 찍은 초의환 복용 20 분 후 송과체 변화 그래프

地天泰 MP:010-9469-5679 TEL:02)878-2515

---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 고급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5. 1. 3.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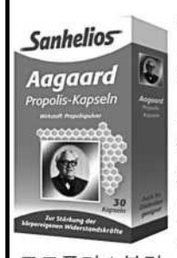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

---

**독일BÖRNER사의 건강기능식품**




프로폴리스분말
250mgX60캡슐

신비의 천연 항생 물질과
독일 고도의 정제기술이 만든
아가드 프로폴리스
Aagaad Propolis
꿀벌이 만들어 낸 금세기 최후의
천연 건강식품, 프로폴리스

효능
* 강력한 천연의 항생, 항균작용
* 간장기능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천연의 항산화제

마시는 다이어트 쥬스, 토피남부어!




독일다이어트제품
10gX20포

국내최초 독일직수입
다이어트 식품
기능성 식이섬유인
Inulin 50%↑ 함유
배변 활동 원활
식욕억제
복부비만 숙변제거




(주)해피세븐 www.hansmall.co.kr
구입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521-0648 011-241-6822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 강북구
- 법당 요사 : 60평
- 임대료 : 480/50
- 시설비 : 2000만원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400평
- 가액 : 1억3천만원

- 위치: 강원
- 임법당 : 30평
- 부지 : 1300평외
- 임대사용 : 2000평
- 가액 : 3500만원
- 공부하는 스님 조용한 기도처 필요한분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 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 부지 : 610평(대지200평포함)
- 법당,용왕,산신각,요사채 화장실,창고,기타(심야전기2)
- 가액 : 2억 5천만원(조정가능)
- 표근하고 아늑함. 기도,참선도량

019-428-5440
011-9840-9138

## 사찰안내
- 서울 : 2억5천, 3억, 4억, 4억3천, 4억5천, 5억, 10억, 12억
- 경기 : 1억4천, 3억, 9억, 11억, 14억
- 충청 : 1억, 1억5천, 2억, 5억, 6억

※ 사찰터 多, 공양주 연결 양도 운영 하실분 상담환영

현대불사 02)555-0575

## 사찰구합니다
- 장소 : 부산, 대구,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전화 사절

011-9338-2993

## 사찰 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0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경남
- 부지 : 만평
- 법당 : 10평
- 요사 : 35평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 암자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 대지 : 350평이용가능, 법당, 삼선각,주지실, 요사채
- 가액 : 8500만원
- 산세 아늑하고 편안함 집기일체 양도가능 모든시설 완비

041)578-3565
010-7770-3223

##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4천5백만원

041)841-3090
017-337-4168

## 사찰안내
- 위치 : 포항 죽장 상하옥
- 대지 : 200평
- 전 500평, 국요지 300평
- 신축요사 법당
- 경치좋은곳
- 가액 : 1억 3천만원

054)262-6673

##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왜관읍
- 평수: 200평, 대지: 200평
- 건물: 43평 2동
- 상태: 시설 A급
- 비구니스님 포교수행도량으로 적합 앞마당 잔뒤, 주변경관 수려
- 가액 : 1억1천9백만원

011-522-4896

##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 사 찰 안 내
전 세

- 위치 : 서울시내 산밑
- 부지 : 3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보증금 : 7천만원.월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포교당

- 위치 : 서울대 지하철역
- 법당 : 30평
- 요사 : 방1개
- 보증금 :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3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 약 40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 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400만원
- 덕산온천욜. 4일, 9일 장날

041)337-8078
018-601-3389

##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망우 4거리 2층 30평
- 탱화, 삼불부처님,산신,후불 가전제품 일체. 화장실, 주방, 방1개,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1-9064-3337

## 포교당(급)안내
- 위치: 울산 남구 인구밀집지역
- 2층건물 중 2층 (32평)
- 건물 (시설) : 법당 15평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016-640-8133

## 사찰 터 안내
- 위치 : 신행정 수도권역(명산자락)
- 용도 : 사찰, 별장, 농장, 최대요지
- 대지 738, 전 3,187 답 1,958(우량농지조성)
- 지상물 : 신가옥(원목 고건축 한옥 1동 2004년말 준공) 구옥 1동 비닐하우스100 (현대식)

011-409-9243

## 좋은 인연 찾음
- 백두대간 지리산 동하 뒤 천황산자락. 무량산. 남 앞으로 천왕봉, 장군봉 좌천룡우백호의 봉황포란형
- 종교부지 300여평 기타 1000여평 태백산 赤松 원통전 30평 요사채 30평 기타 지음
- 자연경관 300여만평의 숲에 쌓임. 숲속산길 일품
- 선방 및 기도처 휴양공간으로 최적. 등산로 옹달샘
- 여러조건 10억 → 지금 5억(불경기 및 급히 인도 요양)

010-8019-4862 고성(경남)

## 사 찰 안 내
<전원주택>

- 위치 : 의령
- 부지 : 1300평
- 건물 : 50평
- 가액 : 1억 5천
- 한적한 외단 벽돌집

- 위치: 밀양
- 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2억 5천
- 전통한옥 개조한 토굴

- 위치 : 부산근교
- 부지 : 3,0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가액 : 4억 8천
- 교통양호한 숲속암자

부산,영남지방 풍수전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천리 소백산(800고지)
- 상태 : 목조 및 블럭조 이동 21평
- 주방시설완비-기름보일러 (전기,전화 집기일체)
- 가액 : 1,500만원

063)851-0033
016-605-9626

##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 건평 : 60평
- 황토로 내부시설완비 삼존불, 전통쑥찜질 가능
- 가액 : 답사 후 결정
- 즉시법회가능

033)631-4831

## 포교당 안내
- 위치 : 후암시장 입구 2층건물 중 2층
- 평수 : 12평
- 가액 : 전세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약간)
- 즉시법회 가능 철학관 적지
- 땅은 있고 법당 보시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2)771-1907

##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읍내
- 대지 : 192평
- 법당 : 28평
- 요사채 : 28평
- 산신각 : 각 10평(2층)
- 가액 : 1억 2천만원

019-292-7025
052)294-7025

##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 사찰(급)안내
016-9771-2736

## 신도시 주거 상업지역
- 500평, 1000평
- 평당 15만원~ 30만원사이

017-346-8149

## 포교원 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 평수 : 35평, 5층 중 4층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시설 : 삼존불, 각단탱화, 주지실, 주방

011-317-0582

## 포교당 안내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중동 신흥전철역 부근 2층건물 중 2층
- 평수 : 18평. 도시가스
- 시설 : 지장보살, 상단탱화
- 가액 : 1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포함)
- 철학관, 불교미술원 적합

011-806-4867

## 사찰 안내
- 위치 : 목포시 항동
- 대지 : 104평
- 건물 : 35평 인법당 외 방3개
- 시설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인등
- 가액 : 5천7백만원
-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곳

011-806-4867

##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소재 (시내 5분거리)
- 부지 : 200평, 주차장완비
- 법당,산신,요사,별채,용왕당
- 가액 : 2억 9천만원
- 특징 : 석불7m 조성 (융자 3천 5백만원)

010-4547-3020

##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2층건물 중 2층
- 약 3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절충

02)6497-0967

## 포교당 안내
- 위치 : 목동 4거리 남부시장 바로옆
- 평수 : 53평
- 삼존불, 방2개, 주방1, 화장실
- 보증금 2천5백,월5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2)2645-4200
011-621-9216

##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 3층건물 중 3층. 70평
- 내부시설 A급
- 가액: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총 2천만원

010-6304-0036

##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평수 : 100평,법당, 방3개,주방
- 스님정진 또는 수행도량으로 최적지
- 가액 : 3천8백80만원

054)337-8205
011-9582-2088

## 사찰안내
- 위치 : 강서구 대저1동
- 법당 : 20평
- 요사채 : 30평
- 주지실 : 3평
- 주차장 : 200평

051)941-0195

##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감전동 부근
- 총 40평 (공양간, 방3개)
- 감전 지하철 역에서 5분거리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500만원 월세 25만원

011-813-8806
051)327-9022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60평
- 건물(시설): 36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답사 후 가격 절충 可)

019-503-7959

##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 600평(대지 402평)
- 대웅전 33평(삼존불) 7층석탑, 삼성각 10평 요사 66평
- 경치 전망 좋고 산세 수려
-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143-0098

## 고창터 안내
- 위치 : 함양군 법화산 관리지역
- 독립된 청정계곡 야생차밭
- 임야 5333평, 전답 1880평 16필지 총 7213평
- 가액 : 1억3천만원

011-9393-4965

##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산면
- 대지 : 약 1000평
- 건물 : 요사채, 삼성각
- 법당 : 20평(삼존불, 단청)
- 특징 : 마산-통영간 국도변
- 가액 : 5억

055)931-9633
011-9521-9633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법당 : 40평
- 특징 : 옥상시설 사용 13평, 판넬
- 보증금 : 1천만원 월 40만원

053)957-9551
011-398-9807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시내지역
- 대지 : 350평
- 시설 : 집기 일체 양도함
- 특징 : 시내가 한눈에 보임
- 가액 : 1억 2천만원 (융자안고 양도可)

010-7275-9816

##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 다세대 주택 3층 건물 3층에 법당 있음
- 가액 : 3억원(가격절충가능)
- 대지78평, 건평150평
- 전세보증금 7천 5백만원 포함. 월세 100만원 수익

011-9108-5484
031)416-5484

##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264-5 주안전철역 2분거리
- 건물 7층 중 4층 90평, 5층 90평
- 전세 8천만원. 6층 건물 45평
- 전세 1천 5백만원. 월100만원

011-734-7918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 건물 : 4층건물 2층(총70평)
- 법당 : 30평
- 특징 : 방3개,주방,화장실 (편리한시설)
- 가액 : 보증금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822-6104

## 토굴 안내 (옛날기와집)
- 위치 : 경남 김해 한림면
- 주택단지 부근, 주차장 완비 방2개,주방,목욕탕
- 감밭 800평 목적에따라이용가능
- 가액 : 전세 1천만원 매매도 가능

016-9646-0578

##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근교 (시내버스 다니는 신도시)
- 대지 60평, 평당 200~250만원대
- 건물 64평 신축건물 1층 32평 요사채 2층 29평 법당 3층 4평 치렁 산신 나반
- 실 수요스님 일절 중계인 사절

011-868-5997

##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 평수 : 약 300평
- 50년 전통 시설완비
- 대중교통 편리함

※ 입자사절 (꼭 필요하신분만)

011-7554-5079
011-7594-5079

##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조금한 야산 밑 원주역에서 5분거리, 터미널에서 10분거리
- 대웅전, 지장전, 산신각 각전 단청 되었음.요사채2동, 스님방별도, 시설물 집기일체
- 가액 : 2억 5천만원 전세가능 3천만원(답사후절충)

011-327-5863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부전동
- 평수 : 약 40평
- 법당 : 본존불 모셔져있음
- 보증금 2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서면 최요지

051)806-5008
011-9921-5975

##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 사찰 (급) 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총부지 : 813평(대지: 200평, 주차장 613평), 용도변경 되어있음
- 건축물 : 46평(법당, 요사채, 객실) 한동으로 되어있음
- 특징 : 자연석축으로 가람이 조성됨 자연석 다량 보유 (무상양도可) 공터가 주변 200평있고, 구조물 일체양도, 법회즉시가능함
- 가액: 3억 5천(융자 6500만원포함) 답사 후 절충가능

011-9378-5637

##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1동 계산시장 옆 교대역 계산역 5분거리
- 평수 : 총80평, 4층건물중 3층 법당 1개, 방4개, 삼존불, 탱화, 상단, 신중, 칠성 산신, 영단, 엠프시설 및 집기류 일체 완비
- 특징 : KT1577서비스 불교상담 전화 및 인터넷 광고, 계양구 1회선 독점 대표번호 확보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에 월 80만원, 시설비 5천, 역학하시는 분 유리함

011-424-8668
032)546-4121

##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지역
- 상가주택 대지 8m×6m 코너 절
- 평수 : 113평, 건평 120평, 1층 상가 4개, 2층 사찰 대웅전 25평, 스님 방겸 큰방 3개, 후불순금탱화, 조성입체 120평, 신중순금탱화 50평, 칠성순금탱화 입체 50평 부처님 순금 4자 반, 삼신불 법단 3단, 홍송조각 연꽃 16자, 자신있게 갖춘 도량
- 가액 : 4억 8천중 잔금 2억 7천만원이며 등기완료
- 좋은조건 : 매월 상가, 임대료 1백 50만원 나옴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포교요충지

※가능성 없는 전화 사절

주인직거래 011-650-8481

##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소재
- 대지 : 150평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신도방 13평, 요사채 13평
- 청통 와촌 IC에서 10분거리 영천시내에서 10분거리 경산하양에서 15분거리
- 가액 : 1억4천만원

※스님해외연수관계로 급 안내

016)857-1126
054-337-5016

##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7-3, 7-5번지
- 면적 임야 27,000평
- 특징 : 여름이면 얼음바람이 나오고 굽이치는 낙동강을 우측에 낀 천하절경
- 교통편 : 대구에서 20분거리 (88고속도로 성산 나들목에서 감)
- 가액 : 1억 5천만원 (주인 직접, 가격절충)

011-828-2112

## 사찰(급)안내
- 위치 : 팔공산 자락
- 전체 : 3000평(대지 200평)
- 시설 : 요사채,방8개, 실내화장실 별도
- 법당 : 임법당(20평),산신각
- 특징 : 유실수(매실)1000평, 산세가 수려하며, 생활이 편리 타용도 사용가능

054)335-3217
011-502-7880

##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건물 내 2층내) 법당1, 방2개, 후원1개 대중방, 욕실 ● 주차 : 도로상 일렬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모든시설완비, 삼존불, 탱화, 영단, 복사기, 팩스 etc 집기류 일체)
- 포교와 법회 등, 바로 운영 가능한 최적의 장소임)

017)269-2629
032)517-3001

# “해체 · 복원 지양, 부분 보수 강구”

## 유홍준 문화재청장, 취임 100일 간담회서 ‘직영보수단’ 검토 밝혀

## 석가 · 다보탑 복원 등 원점서 재검토 … “현대공학 과거만 못해”

“해체 · 복원은 실질적으로 새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무너진 후에 다시 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론을 의식한 해체복원은 문화재의 고풍스런 멋만 해치고,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취임 100일에 즈음해 12월 13일 ‘한국의 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사진)은 “문화재의 해체 · 복원을 지양하고 부분 보수를 통해 안전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석가탑 · 다보탑 · 감은사지동 · 서탑과 여수 진남관 등에 대한 해체복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익산 미륵사지 서탑 해체 · 복원과 관련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신중하게 복원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며 “모든 전문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으로 졸속 추진돼 1993년 복원 완료된 익산 미륵사지 동탑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건봉사 능파교 붕괴 사고나 선암사 승선교 복원에서 겪은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현대공학이 발달했다 해도 과거의 공법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고, 특히 자연의 리듬에 맞추는 노하우 또한 과거만 못하다”며 “특정분야 공사 노하우 축적을 위해 직영 보수단을 만들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매장문화재발굴과 관련 “발굴조사기관 윤리강령 제정 및 매장문화재 조사에 관한 독립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발굴조사 공영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아울러 왕궁과 왕릉을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창덕궁 · 경복궁 · 창경궁 · 덕수궁을 ‘조선궁궐’로 묶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동구릉(경기 구리), 서오릉(경기 고양) 등 조선왕릉 40기를 일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옛 국립중앙박물관을 개조해 조선왕궁역사박물관 개관 △궁궐 관람료 인상(1월 1일부터 창덕궁 3천원, 경복궁 3천원, 창경궁 · 덕수궁 · 종묘 1천원) 등의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원으로 7천억이나 축적돼 있는 관광기금의 목적 사업 항목에 ‘문화유산 보존 · 복원’을 추가해 문화재 분야에 관광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청장은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옮겨버렸다는 설이 무성했던 석불상을 청와대에서 본 사실을 언급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석불상은 잘 봉안돼 있으며 경주 남산에 있었더라면 보물로 지정됐을 법한 빼어난 불상이었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왕궁사’ 기와편 출토

## 익산 왕궁리 유적서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왕궁사명(銘) 기와편.

백제문화권 중장기 유적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가 발굴조사하고 있는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 주변에서 왕궁성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유구와 ‘왕궁사(王宮寺)’라 새겨진 기와 및 고고자료 1천여 점이 출토됐다.

왕궁사명 기와는 수키와편으로 길이 6.1㎝, 너비 2.5㎝ 구획 안에 세로방향으로 명문이 침선으로 음각돼 있다. 왕궁리 유적내 존재했던 사찰의 명칭 및 성격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발굴 팀은 기와 내면에 통쪽흔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기와를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번 발굴을 통해 석탑 바로 아래 지점에 목탑지로 추정되는 17m 길이 판축층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 목탑지는 궁성관련 시설을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조성한 흔적이 확인돼 석탑이 궁성보다 늦은 시기에 축조됐음이 확인됐다.

그밖에 중국청자편, 철제솥 등의 중요 유물도 출토됐다. 특히 중국청자편은 북조시대 후기(6세기 후반) 고분에서 출토된 청자연판문육이병(靑磁蓮瓣文六耳甁)과 유사한 것으로 백제의 대외관계 및 문화교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발굴팀은 내다봤다.

# 궁중유물전시관 ‘빗장’

## 내년 8월 15일 재개관

국립중앙박물관이 10월 18일자로 휴관에 들어간 데 이어, 덕수궁에 있는 궁중유물전시관도 2005년 1월 1일부터 휴관된다. 이번 휴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생긴 경복궁 내 전시공간으로 궁중유물전시관을 옮겨 확대 개관하기 위한 것으로,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내년 8월 15일 재개관된다.

문화재청은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을 정궁인 경복궁과 연계, 궁중문화를 폭넓게 음미하는 테마박물관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박물관 유물정보 클릭만 하면 ‘한눈에’

## 국가문화유산종합서비스 · 박물관종합정보안내 포털 강화

전국 94개 박물관 유물정보의 통합검색 등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다양한 문화유산 정보를 간접 체험으로 학습하고 재미와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문화유산 포털 사이트 ‘국가문화유산종합서비스(www.heritage.go.kr)’와 ‘박물관종합정보안내(www.korea-museum.go.kr)’가 ‘업그레이드’돼 12월 15일 새로 문을 열었다.

이전에 비해 한층 개선된 이들 서비스는 유물에 대한 텍스트 설명과 사진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 방식을 탈피, 멀티미디어 중심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전국에 산재된 국보, 보물, 지정문화재 등 소중한 국가문화유산 지식 및 유물정보를 통합검색 서비스에 확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문화유산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지방박물관 11곳과 공 · 사립박물관 32곳 등 94개 박물관을 네트워크로 연결, 유물자료 27만점, 문화유산정보 61만여 건을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 서비스는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 박물관 중심의 소중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특별전이 동영상으로 상세히 소개된다.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화정보서비스의 다양화 및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것으로, 문화유산 지식정보 DB 구축 외에도 예술 · 관광 · 역사 · 체육 관련 포털 사이트와 연계 및 문화놀이 · 문화여행 등의 다양한 주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우희종 교수의

# 불교와 생명과학 <57 끝>

## 경전읽기와 마음공부

생명체는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태어나서 열역학적 법칙에 따라 반드시 죽게 되는 일과성(一過性)을 지니며, 또한 자식이라는 또 다른 분신을 태어나게 함으로서 생명체의 끝없는 반복을 되풀이 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 삶의 일회성과 반복성을 들여다보면 부처님 말씀의 뜻을 잘 새길 수 있다.

어느 현자가 죽기 전에 자신의 온 삶을 걸고 해결한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해 둔다 해도, 이미 이천 오백년 전 부처님의 설법이 팔만사천경으로 기록되어 있다한들,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 이미 이천년 전에 쓰여 졌다 해도 그것은 그저 앞서 간 이들의 기록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것을 책으로 남길 수는 있으나 결코 타인에게 줄 수는 없다. 타인에게 줘봤자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옆에서 말하거나 책을 읽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스스로 그 뜻을 알고 있을 때 공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것은 성현의 말씀을 아무리 어려서 접한다 해도 그러한 기록이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삶을 걸어가면서 보고 느껴야만 알게되는 것이다. 어린이가 선인이 남긴 모든 삶의 지혜를 삶 속에서 스스로 알게 될 때 쯤 되면 이제 남은 흰머리와 함께 담담한 미소만이 남는다.

이런 점에서 독서란 일종의 도피(逃避)에 불과하다. 책은 자신이 도피할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것은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환상(幻想)이자 꿈이다. 사람들은 책 읽기를 통하여 책 속의 수많은 꿈의 세계로 도피한 후, 그에 바탕을 두어 또 다른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도피를 시도하게 된다. 비록 그 책이 공허한 꿈의 기록이 아니고 저자의 삶에 대한 치열한 기록이라 하더라도 읽는 자의 몫은 항상 남겨져 있는 것이기에 독서는 여전히 도피처가 되어 버린다. 결국 부처님 말씀이 자신의 도피처가 아니라 자신의 치열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온 몸과 삶으로 말을 하고, 들을 때 가능하다. 그것은 깨어있음이기에 항상 생각(觀)하고, 생각하며, 또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수행이다. 불자라면 경전이나 뒤적거리며 지식 속의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지 말고 금강경 사구게만으로도 충분한 부처님 가르침에 당당히 대면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 부처님 가르침 자기 삶에 접목하려면 항상 깨어있는 생각으로 변화 추구해야

이렇게 아무리 역사의 누적이 있다고 하여도 결국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항상 제로에서 시작하여 자신만의 고민으로 자신만의 해답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한다. 그렇기에 성자들이 남긴 말씀은 아무리 몇 천 년 전에 쓰였다 해도 우리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항상 새로울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우리를 자극하며 활기에 차게 하는 것인가. 끊임없는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야말로 항상 새롭고 경이의 원천임을 아는 것이 곧 마음공부일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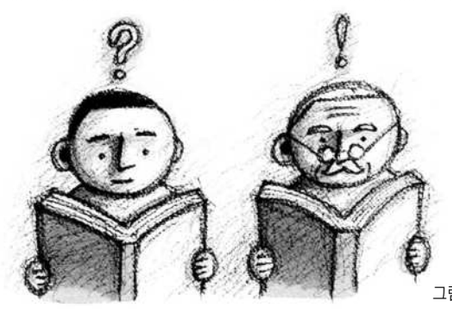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경 축

종범큰스님中央僧伽大學校四代總長
就任을 축하합니다

중앙승가대학교총동문회장 퇴우정념
명예회장 범산
수석부회장 월우 · 정민
선거관리위원장 해관
부회장 원장 · 현수
감사위원장 원천
부회장 정인 · 초우
사무처장 공운
부회장 도각 · 묘근
사무국장 각연
부회장 보화 · 정주
출판국장 지은
부회장 성곡 · 일지
실무간사 한정아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8번지 중앙승가대학교총동문회
Tel : 02)922-7881

中央僧伽大學總同門會一同合掌



조동선림(曹洞禪林)전국결사 동참안내

조동선(曹洞禪), 「순선시대(純禪時代)」를 함께 결사하고 개창할 전국사설사암주(全國私設寺庵主), 사설선원주(私設禪院主)의 영입동참을 권청하여 조동선(曹洞禪) 순선시대(純禪時代)의 공동체를 결사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가. 본 종단은 민법(民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소관의 비영리 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2004년 4월 16일에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득하고 소관법원에 등기절차를 마친 정규 종교 법인입니다.

나. 본 종단의 법통(法統)은 조계종과 더불어 선종양대선맥(禪宗兩大禪脈)으로 구산선문수미산(九山禪門須彌山)개조 이엄진철선사의 조정(祖庭)인 중국 운거산 진여사 조동적통(曹洞嫡統) 강서수창파(江西壽昌派) 49대인 해음등료(海音騰了)선사로부터 사법전등(嗣法傳燈) 함으로써 일천 여 년간 단절된 선 맥을 복원하였습니다.

다. 본 종단은 선맥복원 사법전등 제3주년, 한국조동종총본산 창종 제2주년, 정규종교법인창업, 조동선학논총(曹洞禪學論叢) 제1집을 금년(2004) 10월 9일 창간하였으며, 제2집이 2005년 6월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韓國佛教曹洞禪林)은 한국조동종총본산의 모법인(母法人)으로 창업주 금선학봉(今禪鶴峰) 총무원장의 사재인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원효사(元曉寺) 및 부속건물등 총 20억원의 전 재산을 법인허가와 함께 종단 공익재산화하여 종단사업발전에 지대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 본 종단 전국결사 동참영입조건
1) 승려에 한함(승적입적, 입실 건당) 2) 사찰등록(재산소유권 등록없음)
3) 수행승, 교화승 구분하지 않음 4) 타 종단 스님도 조동선 수행에 동참가능

바.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림 산하에 교구본산(教區本山)을 별도 독립법인 설립허가를 지원할 것입니다.

사. 지역의 유력 교구사찰 시설에 불교승가전문학교, 조동선수련원,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승려양성 전문교육 및 조동선 지도자교육과 종도들의 선 수련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아. 조동선림 전국결사에 참여 하실분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조동종 총본산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번지 원효사 02)704-8065, 713-0475

## 일주문



### 한암문도회 운영위원회 열어

오대산 한암문도회 대표 현해 스님은 12월 17일 월정사 대강당에서 '2004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암 스님 추모사업 계획과 회칙개정을 논의했다.



### '자비의 통일신발' 후원 일일찻집

참여불교운동본부 상임의장 혜총 스님은 12월 23일 전통찻집 보송에서 '자비의 통일신발 지원 사업' 후원을 위한 일일찻집을 개최한다.(051)302-7902



### 민추본 민족분단 현장체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정련 스님은 12월 18·19일 '제4회 통일염원 민족분단 현장체험' 행사를 경기 파주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개최했다.



### 광주불교교육원, 참선요지 특강

광주 마하연 선원장 목우 스님은 12월 23일부터 2개월간 광주불교교육원에서 '중국 허운스님의 참선요지'를 주제로 특강을 연다. (062)228-9098



### 해동사, 새해 첫날 참회 연비식

완도 약산 해동사 주지 일광 스님은 12월 31일 새해맞이 철야정진법회와 1080배 참회정진 연비의식를 개최한다. (061)555-0879



### 중앙승가대 법인 사무처장에

중앙종회의원 법광 스님(중앙승가대 4기 졸업)은 12월 16일 중앙승가대의 학교법인인 '승가학원' 신임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 美, 고려사서 '진심직설' 강의

전북불교대학 강건기 학장(전북대 철학과 교수)은 송광사 미국 LA분원 고려사 초청으로 12월 28일부터 2개월간 지눌 스님의 '진심직설'을 강의한다.



### '자랑스런 동국인상' 수상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상덕 스님이 12월 16일 서울 엠버서더 호텔에서 동국대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2004 자랑스런 동국인상'을 수상했다.



### 위덕대 여자축구단 홍보위원 위촉

불자가수 김흥국 씨가 12월 15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위덕대 여자축구단 창단식에서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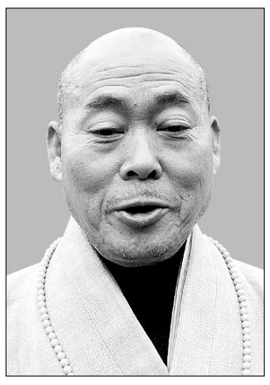


### 일산불교병원 기획조정실장에

심장판막과 고혈압 질환 권위자인 前 서울대 순환기 내과 이명묵 교수가 12월 13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 "총림에 걸맞는 도량에 최선"

## 선암사 새 주지 상명 스님



"선암사는 1400여년을 이어온 선교(禪敎)양종의 대 본찰이자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입니다. 사부대중의 지혜를 빌려 총림에 걸맞도록 수행·공부하는 도량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2월 15일 열린 선암사 운영위원회의에서 제25대 주지로 선출된 상명 스님(사진)은 "종도화합과 선암사 가풍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상명 스님은 "현재 100여명의 대중이 정진중인 산문을 개방해 내년에는 200여명의 대중이 모여 살도록 하겠다"며 "새로 개정된 총림법에 따라 방장뿐 아니라 부방장, 선원장, 강원장, 율원장이 함께해 명실상부한 총림으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주 정진 대중 두배로**
**소임별 역량강화 박차**

또 "사판(事判)인 총무, 교무, 재무, 포교, 규정부 등의 부서별 역량을 강화해 도량외호와 포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선암사 총무와 교육원장, 교무 등을 맡아으며, 광주시 사암연합회 10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상명 스님은 "사중의 대중과 신도가 일심동체되어 종정 큰 스님을 중심으로 청정수행도량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대중과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상명 스님은 전남 백양사 불교전문강원과 양산 통도사 불교전문 강원에서 사교과와 대교과를 수료하고 1973년 광산 금산사 주지를 시작으로 서울 상도동 백운암 주지, 장성 장명사 주지, 광주 삼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선암사=이준엽 기자

# '수행·산행·봉사' 역점

## 부산불교산악인회 박웅락 새 회장



"부산불교산악회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불교산악회입니다. 그 전통과 위상에 걸맞게 수행과 산행, 봉사 세 박자를 고루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정진하겠습니다."

12월 12일 부산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열린 부산불교산악회 제12차 정기총회에서 부산불교산악회 7대회장으로 선출된 박웅락(61·사진) 회장의 각오가 새롭다.

5년 동안 부산불교산악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박 회장이 꼽는 역점 사업은 '부산불교산악회의 사단법인 추진'이다.

"산에서 만난 불교에 심취한 3백여 명의 회원 모두 산행이 곧 수행인 참다운 불제자로 거듭 나겠다"는 박회장은 "문을 활짝 놓고 함께 산을 오르며 공부할 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웃어 보였다. (051)248-5230 천미희 기자

# 신설동에 노숙자쉼터 '사명당의 집'

## 작은 손길 김광하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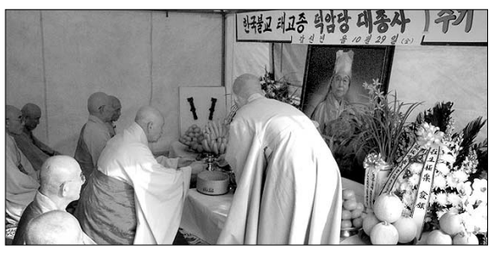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지하철역에서 나와야 하는 노숙자들이 잠시 들러 식사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지친 심신을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3일 서울 신설동에 노숙자 쉼터 '사명당의 집'을 개소하는 '작은손길' 김광하(52·사진) 이사장. 1998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탈북 청소년, 독거노인 등의 재활을 도와온 김 이사장은 "노숙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쉬면서 새롭게 일어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여 평 규모에 샤워실과 온돌방, 빨래터 등으로 이루어 진 '사명당의 집'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노예로 끌려간 조선 백성들을 '구출'해 온 사명대사의 뜻을 잇기 위해 명명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노숙자 재활 프로그램 운영, 책자 발간, 외국인 노동자 컴퓨터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 덕암 스님 1주기 추모법회




제14·16세 태고종 종정을 지낸 덕암 대종사 원적 1주기 추모법회가 12월 10일 서울 법륜사에서 열렸다. 덕암 스님의 부도 앞에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원로위원 혜경·보봉 스님을 비롯해 종단 관계자와 덕암화상문도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 회당학원 휴명 이사장 취임식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제19대 이사장 휴명 정사의 취임식과 전임 진당 정사의 이임식을 12월 16일 위덕대 법인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효암 통리원장, 진산 중앙종회의장, 위덕대 한재숙 총장 등 재단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성북구사암련 송년법회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와 성북경찰서 경승위원회는 12월 10일 동방웨딩 문화원에서 갑신년 송년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사암련 회장 호암, 경승실장 종근, 개운사 원오, 보경사 원공 스님, 서찬교 구청장, 김종양 경찰서장 등이 참가했다.

## 원주불교대학 제4기 졸업법회




원주불교대학(학장 원행·치악산 구룡사 주지)은 12월 11일 구룡사 대웅전에서 제4기 졸업법회를 개최했다. 재학생 109명 가운데 55명이 졸업한 이날 법회에는 원주시교육장 이문희 거사를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 7회 실상문학상 수상자 발표


최만조씨


배기환씨


차달숙씨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능지) 주최로 12월 14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7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에서 최만조씨가 본상을 배기환, 차달숙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포교에 앞장서온 문학가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실상문학상 본상을 수상한 최만조씨는 아동문학가로 월간 아동문예로 등단, 초등학교 교과서에 '농악소리'라는 작품이 수록된 바 있다. 부산아동문학상, 한국동시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동시집 <을숙도 아이들> <봄비의 마을> 등 다수가 있다.

우수상에는 월간 시문학을 통해 등단, 시집 <전생을 굽다> 등을 펴내고 부산문인협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기환 시인과 칼럼집 <마음따라 달라지는 인생살이>를 비롯 신심 담긴 작품을 써온 수필가 차달숙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미희 기자

# 제19회 만해문학상 수상

## 홍석중씨, 금강산에서



도서출판 창비가 주관하는 제19회 만해문학상에 분단 후 북한 작가로는 처음으로 국내 문학상 수상자에 선정돼 화제를 모았던 홍석중(63·사진)씨가 12월 13일 금강산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가해 상을 받았다.

홍씨는 대하소설 <임꺽정>의 저자 벽초 홍명희의 손자로 지난 2002년에 펴낸 장편소설 <황진이>로 만해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씨는 1941년 서울에서 출생해 48년 조부를 따라 월북,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했다. 주요작품으로는 장편소설 <높새바람> <황진이> 등이 있다. 여수령 기자


佛心에 원력이 깊으신 투자자를 모십니다 국내최초 불교병원

방부불교병원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자비실천운동을 펼치는 불교종합병원입니다.

"
병자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만일 병든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돌보지 않으면 법률로서
다스리리라.
이것이 내가 내린 명령이니라.
〈증일아함경〉
"

제일은행 725-10-022949(예금주 방부의료법인)

투자문의 062-221-3204
011-655-1406 / 011-613-9050

불교세가 약하다는 호남의 중심 광주 한복판에 '불교'의 이름을 걸고 佛法 수호는 물론 부처님의 慧命을 받들고자 신명을 다해 250여 병상을 갖춘 '방부불교병원'을 개원해 1년여를 운영해 왔습니다.
오로지 빛고을 광주에 佛心을 일으키고, 열악한 불교 의료환경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마음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영 미숙으로 상당한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부처님 전 눈물로 기도에 매달리지만 현실의 냉정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 제방의 대덕스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佛心에 원력이 깊으신 佛子 여러분에게 투자해주시기를 읍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전 애원하면서 중생 환우들을 구하실 法友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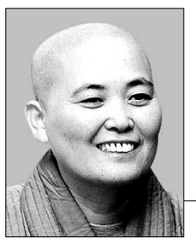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약사여래불

갑신년 10월 관음재일에
병원장 홍기표 합장


현대불교신문 465호(2004.3.17) 게재

진한감동, 따뜻한 병원
방부불교병원 BANGBU BUDDHISM HOSPITAL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8-14
Tel. 062)221-3300

• 가정의학과 Ⅰ·Ⅱ·Ⅲ • 내과Ⅰ·Ⅱ • 일반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비뇨기과 • 마취통증의학과 • 영상진단의학과 • 예진실 • 종합건강증진센터 • 응급실 등



불자 세상보기

서 광
美 보스턴 서운사 주지

# 한국부모와 미국부모

최근에 출판된 <문제는 항상 부모에게 있다>의 저자 초청강연회 관계로 지난주 잠깐 한국에 다녀왔다. 때마침 한국에서는 고교생이 집단으로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수능시험 부정에 이어서 또 한번 우리 교육 현실의 암담함을 절감케하고 있었다.

강의가 있던 날 아침, TV의 한 프로에서 여중생 집단 성폭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제작진들은 사건의 원인을 청소년의 성의식 결여와 교육의 허술함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인터뷰를 하고 해당 교육청 관계자와 교육의 개선점을 찾는 것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를 지켜보던 나는 암담함을 넘어서서 일종의 절망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성폭력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근본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문제의 결과를 제거할 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번에 발생한 여중생의 집단 성폭행의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성폭행 사건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건 학교나 교사, 교육청이 아니고 아이들의 부모들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인성의 근본 바탕은 적어도 열살 이전, 그보다 훨씬 이전에 완성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폭행이나 강간살인 등의 극단적 공격성은 사회구조나 교육적 환경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인성이 절대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적위주의 학교교육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인성의 바탕이 길러지는 곳은 가정이고 부모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행한 아이들의 부모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협박한 사실만 보더라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더욱 슬픈 일은 사건을 담당한 일부 경찰관들 자체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부분의 가해자들을 훈방조치했고 피해를 입은 어린 여학생들을 도리어 욕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리한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의 열풍으로 부모들과 아이들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 결과 성적과 점수를 아이의 인격이나 품성으로 혼동하는 부모와 선생님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됨됨이와 그릇을 키우는 대신 외우지 않아도 될 온갖 잡다한 정보들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창고로 전락시키고 있다.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두 부부가 집안일을 돕지 않고 옷을 아무데나 벗어던지는 등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않는 아들과 딸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들 부부는 정원에 텐트를 치고 음식을 해 먹으면서 두 아이들의 반성과 태도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아들은 파업 닷새째 여전히 본체만체하고 집을 들락거리고 있고, 딸은 3일째 되던 날부터 자신의 빨래를 직접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이들 부부 역시 자식을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식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그나마 방법의 효율성을 떠나서 부모로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아들이 나이어린 여학생을 그것도 집단으로 성폭행한 행동을 놓고 오히려 감싸고 피해자를 욕하는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정말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면 학교나 교육청보다는 그런 자식을 낳고 기르고 두둔하는 부모부터 먼저 면접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여겨진다.

##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 포항 규탄대회의 '상징성'

정장식 포항시장을 규탄하는 불자들의 집회에 3만여 불자들이 운집하여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행위에 대한 불자들의 단호한 의지와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이번의 집회를 통해 문제의 근본을 통찰하는 불자들의 지혜와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하려는 행동력을 보게 된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다.

몇 번을 힘주어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정장식 포항시장의 망령된 행위는 결코 어떤 종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의 발로로 취급되어서도 안되고, 또 종교간의 갈등으로도 여겨져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인 종교를 펴려는 행위는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어긴 것이요, 그런 점에서 단호히 응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 포항시장의 행위에 대하여 단지 불교계에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어찌하여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각각의 공직자가 그 공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종교를 펴고, 그것이 다른 종교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해보라. 이 나라가 어찌될 것인가? 헌법에도 분명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시되는 사태에도 침묵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일으킨 당사자가 믿고 있다는 개신교 측에서도 당연히 이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 그의 행위를 단지 지나친 신앙심이 발휘된 우발적인 예로 치부하려 한다면, 이는 정말 그 종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포교의 자유는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종교라고 비난받아도 마땅한 일이다.

이제 불자들의 문제제기와 분노는 온 국민이 공유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응징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까지 나가야 한다. 건전한 상식을 지닌 모든 종교인,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촉매가 되는 것이 우리 불교계가 할 일이다. 그런면에서 이번 포항시장 규탄집회는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 이렇게 들었다

### 비린 것

맛있게 잘 지어진 밥을 남한테 얻어서 입맛을 다시며 먹는 사람은 비린 것을 먹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생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 하고, 성미가 나빠 욕심 많고 난폭하며 무례한 사람들, 이것이 비린것이지 육식은 그렇지 않다. <숫타니파타>

지난 12월 13일 백화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의류를 훔친 혐의로 주부 박모(34 · 여)씨가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구속됐다.

최근 2년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에서 모두 62차례에 걸쳐 의류와 핸드백 등 3천6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는 범행에 자신의 딸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의 범행동기는 충격적이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며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물질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 매일 신문과 방송에는 절도와 강도, 비리 의혹 등 온갖 범죄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난무하고 있다.

보다 좋은 교육환경과 열의에도 불구하고 왜 이같은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가는 걸까.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물질의 탐심에 젖어 참 행복을 찾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현란한 물질들의 유혹에 자기의 감관과 감각을 억제 못하고 비린 것을 알지못한 채 덥석 베어 무는 꼴이다. 나의 감각과 감관을 단속 못해 베어 문 비린 것은 참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부처님은 "이 세상과 내세의 그 어떤 부(富)나,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완전한 사람(여래)에게 견줄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훌륭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으며,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할 때다.

■ 배지선(대구주재 기자)

##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 불합리한 은사제도 다시 생각하자

내 딸은 단지 스님이 되고 싶어 대학을 중퇴하고 부모를 떠나 산중의 절에 들어갔다. 그 절에서 행자생활을 마치고 수계 전에 은사를 지정해 주었다. 미리 정해 놓은 은사가 없어서 산중에서 지정해 준 것이다.

딸의 은사는 토굴하나 없이 평생을 선방에서 정진한 스님이라 그 동안 주지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나는 그 스님이 물욕이 없는 매우 훌륭한 수행자라 여겼다.

내 딸은 처음 은사를 따라 선방에 다니다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서울로 올라와 학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내 딸이 공부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학비를 댔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우리 집안의 사업이 부도나 더 이상 학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얼마 전에 딸의 은사스님도 입적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은사 스님을 잘 만나면 은사 스님이 학비를 전액 후원해 주고 심지어 해외 유학까지 보내준다고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속가 부모가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부전생활 등을 통해 적당히 조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 학업 계속하기를 원하는 내 딸은 은사 스님을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내 딸의 은사스님은 문중도 변변치 않고 평생 선방 스님으로 생활해서 절이 없어 내 딸이 경제적으로 의지할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 딸 아이는 은사도 없고 속가의 부모도 사업이 기울어 경제적으로 후원할 수 없으니 아주 박복한 스님이 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평등하게 자비를 구현한다는 도량에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젊은 스님이 공부하고 싶어도, 후원해 줄 곳이 없다는 사실이 비감스럽다.

종단에 어른 스님들이 먼저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고치고 평등한 수행생활 속에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에서 멍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텅 빈 가슴을 메워줄 수 있는 자비 문중이 바로 절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은사제도는 스님들간 불신의 벽이 두터워지고 서로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이 생겨 차별심만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 참신한 인재를 키우고 불법이 융성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은사제도를 폐지하고 본사별로 소속감을 두어 모든 스님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김정순(붓다뉴스)

### 독자 시

### 열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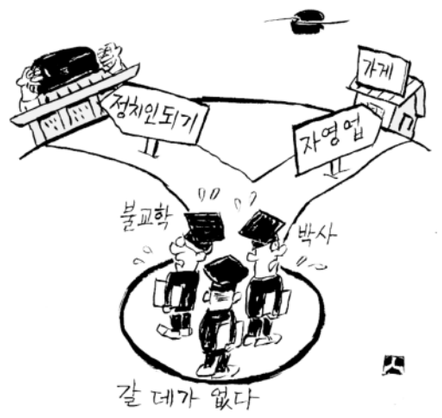
-숭산 큰스님을 기리며

꽃이여,
눈을 뜬 화엄(華嚴)의
지극한 꽃이여,
지켜봄(慧)과 지어감(定)이
다비로 해탈(解脫)하는
장육금신(丈六金身)의
정광(淨光)이여,
일체는 절대존재의
반연(攀緣)이거늘
그대 참구(參究)로 거듭난
두타(頭陀)된 개오(改悟)함은
견성(見性)이어서
꽃으로
불 밝힌 향내
가득 넘치올 그대,
열반(涅槃)속의
일야현자(一夜賢者)여.

최병창(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 '현대' 만평

심 민 섭





##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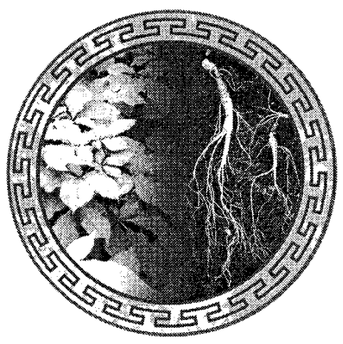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공주대학교 식물자원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



# Mu Ryang Sa
## (Broken Ridge Buddhist Temple)
##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無樑寺

하와이 호놀룰루 보타산의 정기를 한 곳으로 모은 무량사는 산세가 수려하고 팔로로 벨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와이키키의 경관이 뛰어나 불보살님과 인연이 깊은 곳으로 기도, 정진 수행처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불국토의 요람지이며, 지난 30여년 동안 많은 불사 끝에 호법선신들이 옹호하고 있는 영험한 기도도량으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멀리 태평양 한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섬 하와이 4천여평 부지위에 여법하게 세워진 무량사는 1975년 기 대원스님이 불사를 시작하여, 1982년에 법당과 명부전, 종각, 사리탑이 완공되었으며, 1986년에는 불교문화원 건물을 착공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하와이 무량하는 한국불교의 해외 사찰로서는 가장 규모가 장대한 사찰로서, 그리고 한국불교문화를 외국에 널리 선양하는 문화원까지 갖추려 하는 사찰로서 매우 뜻 깊은 의미를 새겨 나갔습니다. 그러나 총건평 약 3000평에 달하는 건물의 공사 도중 호놀룰루시 행정 당국으로부터 문화원 건물의 지붕이 시 당국에서 허가해 준 높이보다 2미터 정도 높다는 지적과 함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시 당국과, 주민, 그리고 본사 간에 여러 방면의 절충과 모색, 그리고 법적인 논쟁이 이어져서 어려운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2월에 20여년 간 무량사의 창건과 발전에 혼신의 정력을 쏟아 온 기 대원 스님이 주지직을 사임하고, 권도현 스님이 주지를 맞게 된 후 신도들과 이웃 주민들을 비롯하여 현지의 여러 전문가들과 중재회의를 통하여 지붕 높이를 1m 정도 낮추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논의되었고, 이에 대해 시 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응하여 문제가 발생한 지 13년 만인 2001년 8월에 하와이 법원으로부터 지붕을 낮추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사를 계속 하라는 판결이 나와 지붕의 상량을 잘라내어 지금의 無樑寺(Broken Ridge Buddhist Temple)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정에서도 1998년 동안거부터 태평선원을 개원하여 매철 조계종 납자들을 모셔 미주에서 간화선 가풍정진도량의 면모를 지켜오면서 2002년 8월에는 하와이 싯다르타 대학을 설립하여 4년제 학부와 2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미국 서부 사립대학연맹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곳 하와이에 큰 도량을 세워 태평선원을 운영하고 대학을 설립한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곳 미주지역에 널리 펴고자 함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 내었던 것은 하와이 신도, 조국의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무량사는 그 공덕행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어 무량사 문화원과 태평선원, 하와이 싯다르타 대학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한국불교문화를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저희 완공된 무량사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법적으로 명의, 재산 등록하여 명실 공히 대한불교 조계종 미주포교 근본도량으로 태어나 이제까지 불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의 거룩한 원행을 호법천신과 제불보살님 앞에 널리 칭송하고 앞으로 미주전역이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발원하며 정진 할 것입니다. 2005년 하와이 무량사는 개산 30주년이 됩니다. 개산 30주년을 맞아 오랫동안 준비해 온 양로, 요양원도 개원하여 지난 30여년 동안 해온 불사를 회향하고 앞으로의 30년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큰법당/미륵반가사유상

초대합니다

## 하와이 무량사 개산 30주년 · 문화원 20년 불사 회향 법회

하와이 무량사는 20여년에 걸쳐 완공한 문화원 불사회향 법회와 창건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하와이 호놀룰루에 우리 전통양식의 큰 사원을 세워 문화원을 개원하는 것은 미주 전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함이며 오늘이 있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은 하와이 그리고 본국에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정성어린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완공된 하와이 무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미주 포교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이제까지 불사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거룩한 보살행을 널리 칭송하고 앞으로 미주전역이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무량사 문화원 큰 문을 활짝 열어 선다도원, 요양원, 태평선원 그리고 하와이 싯다르타 대학을 잘 운영해 나아갈 것입니다.
2005년 개산 30주년을 맞는 하와이 무량사는 조계종 종단 원로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기념행사를 봉행하오니 본국의 많은 불자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 1월 14일(금)
- 명원 다도원 개원
- 신라왕자 무상선사 헌공 다례제
- 전시관 개관 기념 김경선생 초청전시회

◆ 2005년 1월 21일(금)
- 무량사 요양원 건립 축하 김덕수 사물패 비나리 기념공연

◆ 2005년 1월 23일(일)
- 무량사 조계종 봉납 기념 대법회

◆ 2005년 8월 11 ~ 14일 : 학술세미나
- 주제 : 해외포교(미주포교)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장소 :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2005년 9월 24 ~ 25일
- 하와이 싯다르타 대학 개교
- 무량사 요양원 개원
- 무량사 개산 30주년 기념 및 문화원 준공 법회



■ 해수관음상/평화탑



■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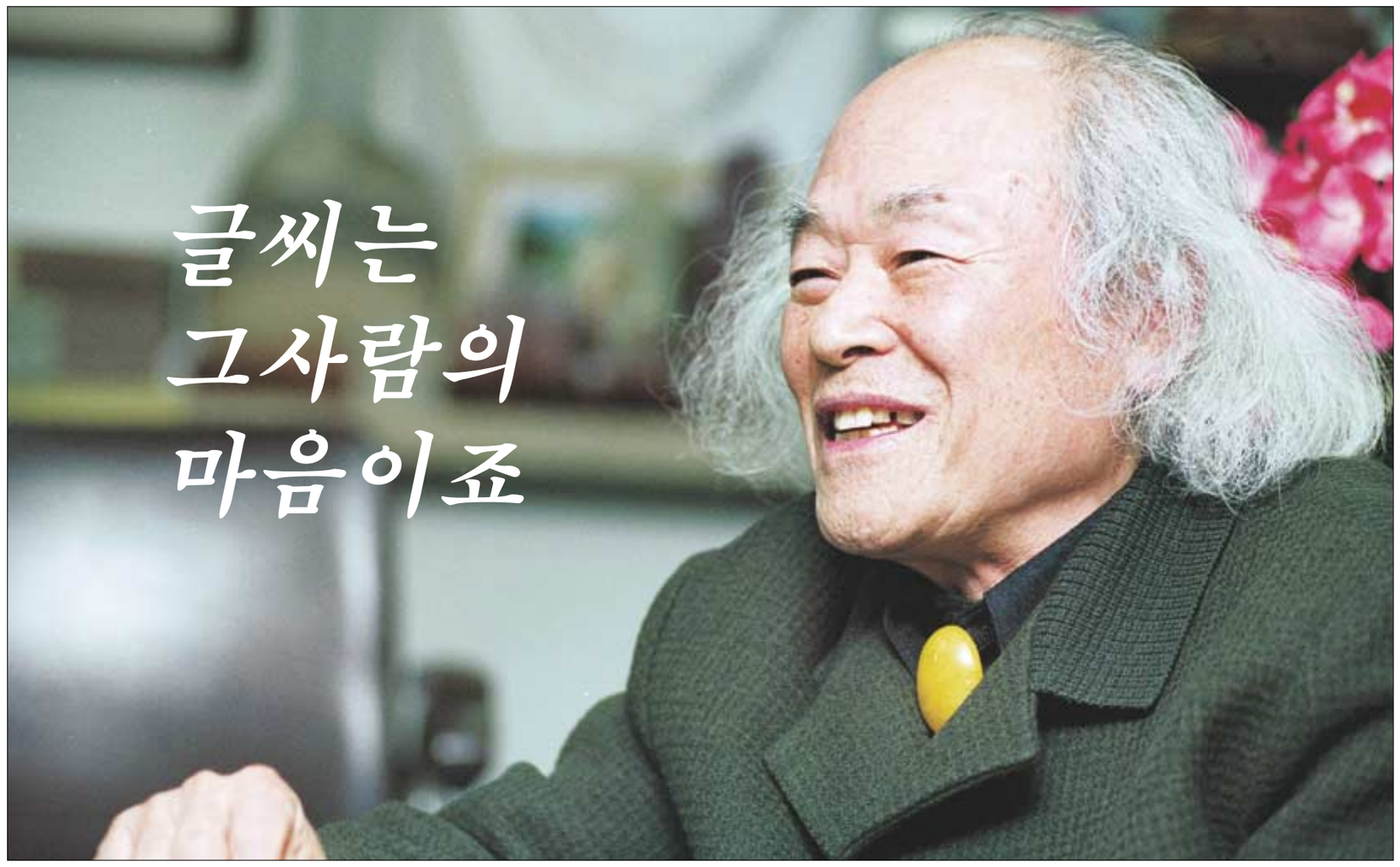
■ 문화원



■ 일주문

**하와이 무량사 회주 이혜성 · 주지 권도현 합장** 서울 녹야원 02)739-1873 / 하와이 무량사 (808)735-7858

산문밖의 선



# 글씨는 그사람의 마음이죠

## 서예 · 전각가 여원구 선생



7가지 서체로 쓴 반야심경. 왼쪽부터 목간 · 초서 · 호태왕비 · 행서 · 해서 · 예서 · 전서체.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 흰 종이에 붓으로 점 하나를 찍고 획 하나를 긋는다. 검은 필선은 흰 여백과 어우러져 글자가 되고, 우주법계가 그 안에 담긴다. 한번 그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붓 획은 우리네 인생과도 닮았다.

그래서일까. 평생을 글씨와 함께 했고 여초(如初) 김응현 선생의 제자로 모든 서체를 두루 섭렵, 서예와 전각의 대가로 꼽히는 구당(丘堂) 여원구 선생(72)이건만 글씨를 쓰려면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쓰면 쓸수록 어려운 게 글씨야. 부족함을 알게 되거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불공을 올리는 그런 심정으로 평생 갈고 닦아야 방명록에 제 이름 석자 큰 부끄러움 없이 적을 수 있지."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는 분명 이 시대 최고의 서예 · 전각가다. 1979년 이미 "노력과 천질(天質)로 글씨의 강(剛)과 유(柔)를 성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다. 1999년 <훈민정음>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글자체와 혼을 담아 나라 도장 국새를 만들었고,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훈민정음> 판본체의 서체에 충실하며 천(天) · 지(地) · 인(人) 3재(3才)를 모두 표현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 단순하고 명쾌하며 정중함과 부드러움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이 낙점 사유.

최근 작품 <반야심경> <금강경>병풍, <반야심경>과 <천수경> 전각 등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서도(書道)에 담고 있다. 10개월이나 걸려 제작한 <금강경> 병풍이나 서체별로 7벌의 <반야심경>을 쓰고, 네 개의 돌에 새겨낸 것도 돈독한 그의 불심 덕에 가능했다.

경기도 양평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한학과 서예에 익숙한 선생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서예가의 길로 접어든 건 마흔이 다 돼서다. 새로운 생활을 찾아 상경한 것이 계기였다. 처음 보금자리를 튼 곳은 서울 보문동 산자락의 판자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쉽지 않았다. 이 곳에서 선생은 어느 탁발승의 권유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법당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더라고. 그 뒤론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직업도 구하고 서예도 시작할 수 있었어. 그게 다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해."

직장에서 그가 맡았던 일은 경리 업무. 서예와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1970년대 초반 동방연서회 여초 선생 문하에 들어갔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글씨를 썼다. 밤을 꼬박 새기 일쑤였고, 몸은 지쳐갔다. 하지만 마음만은 피곤한 줄 몰랐다.



선생의 정교한 칼끝이 닿으면 방형(方形)의 작은 돌은 사람이 되고 얼굴이 된다.

"즐거웠지. 퇴근하면 바로 글씨 배우러 가곤 했는데, 어찌나 그 시간이 기다려졌던지 일이 끝나면 담박질 쳐서 가곤 했어."

그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은 구당 선생을 서예가의 길로 이끌었고, 촌음을 아끼며 몰입해온 수십 년의 세월은 그를 대가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1979년 제1회 동아미술제 미술상을 수상해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 82년에는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83년에는 대상을 수상했다. 91년에는 서예대전 운영위원장을, 93년에는 서예대전 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며, 지금은 그가 키워낸 초대작가만도 30명이 넘는다.

### 하루 일과 시작과 끝은 참선 … "집중의 맛"
### 中 방문시 국보 사경 본 후 세필 장르 열어
### <훈민정음>체 응용한 도장 국새로 지정돼

구당 선생의 빼놓을 수 없는 공로 가운데 하나는 종전에 굵은 붓으로만 작품 하던 관행을 깨고 세필(細筆)의 지평을 새로이 열었다는 것. 89년 중국에서 열린 교류전 참가차 방중(訪中), 서안의 서예박물관에서 세필로 베껴 쓴 국보급 사경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글씨다"며 감탄한 선생은 귀국해서 <명심보감>과 <금강경>을 금가루로 세필 사경해 전시회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서예전에서 세필부가 생겨나는 등 국내의 세필 장르가 본격화됐다.

요즘 구당 선생의 하루 일과는 참선으로 시작해서 참선으로 끝난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이 어찌나 좋은지…. 참선이란 게 대단한 거야. 참선을 통해 마음을 집중할 때의 그 맛이 글씨 쓰며 집중할 때와 통하는 데가 많아." 그 맛을 안 구당 선생은 제자들에게도 참선을 권한다.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해야하는 선생은 등산으로 지친 몸을 푼다. 전국 안 가본 산이 없고, 가보지 않은 사찰이 없다. 사찰을 둘러볼 때 가장 큰 관심사는 현액과 주련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망스런 경우가 많다. 선생 자신이 서산 개심사 일주문과 제주도 약천사 대적광전, 문수사 대웅전의 현액을 직접 썼다. 이 가운데 약천사 대적광전 현액은 길이가 6m나 되는 대형 작품으로, 글자를 확대하지 않고 온전한 크기로 써서 새겼다.

"현액 글씨를 쓸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들여 쓰지. 잘 쓴 주련과 현액을 걸어 놓으면 사찰이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거든. 쓴 사람의 마음과 기운이 그 작품에 남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기계를 사용해서 작은 글씨를 확대하다보니 글씨가 힘이 없어지고 제 멋이 안 나. 그래 참 아쉬워."

글씨를 잘 쓰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구당 선생은 먼저 참는 것을 배우라고 말한다. " '글씨는 곧 그 사람'(書如其人)이라. 겉멋만 추구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며 꾸준히 노력하는 게 제일이야."

구당 선생은 새해가 되면 <금강경>을 전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많은 이들이 독경하는 금강경을 한 자 한 자 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생각이다.

"무릇 모습을 가진 것은 모두 허망하다(凡所有相皆是虛妄) 했지만 돌에 새긴 부처님 말씀을 보며 발심할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허망한 일만은 아닐 듯싶어요."

글=박익순 기자 · 사진=고영배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www.njutcm.co.kr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 학 과 | 학 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40명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br>· 건강진단서 1통(영문)<br>· 대학 졸업자<br>·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br>· 입학신청서 1통<br>· 여권용 사진 10매 |
| 석사과정 | 3년 | 5명 | |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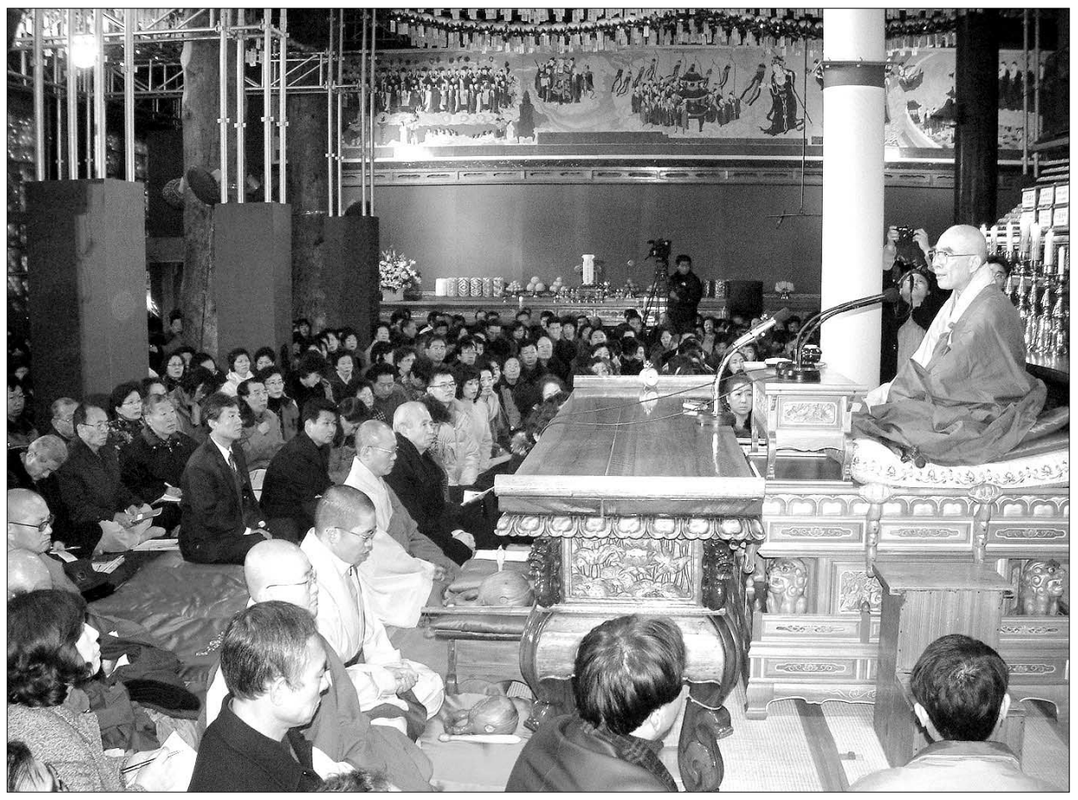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2월 31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부산 · 경남 접수처 : 한국한의원(☎ 051)501-0025)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2004 수행 결산

# 禪 황금시대 활짝



불자와 일반인들의 선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올 한 해는 서울 조계사, 불광사, 대구 동화사 등 많은 사찰과 수행단체가 '선' 관련 법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2월 15일부터 4개월간 매주 열린 서울 조계사 '전국선원장초청 법회'.

'이미 선풍(禪風)은 불었다. 이제는 어떻게 실참으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2004년 한국불교계는 전국을 휘감은 '선바람'의 수행열기를 타고, '전통선(禪)'의 진수를 아낌없이 보여줬다. 올 초 조계사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법회'(2월 15~5월 9일)를 필두로, 봉은사의 '봉은학림 육조단경 논강'(2월 21일~4월 10일), 보문사의 '선사 초청 산림법회'(3월 21~27일), 대구 동화사의 '담선법회'(9월 4일~11월 13일), 서울 불광사의 '불교수행법 특별강좌(10월 17일~12월 23일)' 등 선 관련 법회가 연중 끊이질 않고 열리면서 '수행 붐'을 일으켰다. "한국불교 선의 중흥기가 도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불교계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재가불자들이 직접 일으킨 수행열풍도 만만치 않았다. 조계사 청년회는 올 1월까지 참선, 염불, 사경 등의 '수행법 대강좌'를 열었고,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여름·겨울 안거기간에 맞춰 '수행논강'을 여는 등 재가불자들의 수행욕구를 채워줬다.

제3 수행법에 대한 '간화선 위기론'도 어느 정도 잠재웠다.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국선원장 초청 법회'의 경우, '선의 본질과 의미' '화두 드는 법' '선수행의 요체' '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등을 주제로 무엇이 간화선의 고갱이이고, 어떻게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같은 흐름에 호응하듯 조계종도 올 초 <불자 수행프로그램 현황 조사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내년 2월 간행 예정으로 <간화선 수행지침서>와 <신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을 마련하고 있어 간화선 수행풍토를 진작하는데 나섰다.

하지만 적지 않은 과제들도 남겼다. '선과 수행'이란 키워드로 집약되는 수행 붐을 어떻게 실참 단계로 이끌지, 또 '문답-점검 시스템'의 복원과 간화선의 대중화를 어떻게 구현할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굵직한 화두로 남았다.

올 한 해 동안 불교계에서 선과 수행 관련 법회는 무엇이 있었고, 수행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풀어야 과제는 무엇인지 결산한다.

## '조계사 선원장 법회' 필두로 禪법석 줄이어
## 선 담론 본격화…간화선 위기론은 '기우'

### ●본격적으로 선(禪)을 말하다

조계종 전국선원장회의 의장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은 "올해의 수행 열기는 모든 불자들이 발심을 통해 스스로 증득해가는 수행풍토를 조성했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했다"며 "출가자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선'이 대중적으로 논의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의 간화선이 희망적인가'를 점검한 대구 동화사 담선법회의 경우, 지금의 간화선 수행풍토를 짚어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간화선 수행법, 화두 참구법, 간화선병과 선수행의 제문제, 선지식의 부족, 간화선의 사회적 역할,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담선법회는 간화선 현실을 진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은 "담선법회는 한국 간화선의 현실이 절망적인지 희망적인지 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확인시켜줬다"며 "확실한 것은 불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경전·어록을 공부한 상태에서 간화선 공부에 들어간다면 틀림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무엇을 남겼나

이러한 선 법회는 무엇보다 재가불자들의 수행관을 바꿔놓았다. '기복불교' 수준이나 단순히 또는 절에 다니며 불공 올리는 일로 만족하거나 책으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식불교'를 넘어 자기수행을 위한 '실참'에 눈을 뜨게 했다.

선원장 초청 법회의 경우, 선사들이 법문 후, '즉문즉답'의 형식으로 참가자들의 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다. 또 선방에서 수좌들과 직접 실참실수(실지로 선을 닦는 것) 해온 선사들이 오랫동안의 수행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간화선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풀어줬다. 때문에 부족한 시민선원에서 마땅한 지도자 없이 참선 공부를 하고 있는 재가불자들에게 선수행의 나침반이 됐다는 평이다.

이러한 실참에 대한 관심과 의욕은 108배 참회, 간경, 염불, 사경, 사불 등을 직접 해보고 하자는 불자들이 늘어나는 기폭제가 됐다. 조계사청년회의 수행법 대강좌에는 매회 3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또 수원포교당이 마련한 '108 대참회 기도 및 6바라밀 강의'에는 매일 100여명 이상이 동참하는 등 수행을 체험하려는 재가불자들이 꾸준히 늘었고, 대구 법왕사의 '1만 배 정진대법회', 봉은사의 '참살림 수행결사' 등에도 불자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 '간화선 지침서' 발간 등 수행체계 확립 노력
## 문답식 점검 정립·지도법사 양성 등 과제로

### ●문제점은 없었나

우선 지적돼야 할 것은 참선 법회들이 과연 재가불자의 수행 '눈높이'에 맞추었는가다. 대구 동화사가 '참선(간화선)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담선법회의 경우, 진행방식이 무차법회와 논강으로 혼재되면서, 담선법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수좌들과 선학자의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해 간화선에 대한 서로의 의견만을 팽팽하게 대립시켜 혼란도 초래했다.

지환 스님은 이와 관련 "앞으로 재가불자 수행법 지도와 간화선 수행법 쟁점사항은 분리·구분해 담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가불자들이 참선공부에 앞서 기본적인 공부와 단계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간화선 수행을 어떻게 실참으로 연결시킬지, 그 구체적인 '길' 제시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조계사 선원장법회에 초청됐던 서울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은 "올해 열린 참선 법회은 재가불자들에게 바른 믿음과 눈 밝은 지도자를 만나 '왜 간화선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계기는 됐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작 재가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간화선을 어떻게 실참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스님들은 재가불자가 시민선방 등에서 실질적으로 간화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도 "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행 붐은 한국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올해 열린 법회들이 간화선을 알리는데 왜곡한 것은 없는지 불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과제는

이러한 수행열기를 채워 줄 올바른 간화선의 수행법과 문답법, 점검체계 등을 바르게 파악, 시대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이는 선지식의 부족, 수행체계 미확립, 제3 수행법의 홍수 등으로 간화선의 정체성 확립과 직결된 지적들이다.

때문에 불교계는 △간화선 수행풍토 확립 △선문답·지도점검 등의 조사선 공부법 복원 △'생활선'을 통한 선의 대중화 △상설 시민선원 개설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 초 간화선 정체성 확립과 선풍진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선원장 초청 특별좌담'에서는 간화선 수행 공간 마련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인경 스님(명상상담연구원장)은 특별 좌담에서 "선어록 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등 간화선 대중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태완 무심선원장은 "체계적인 수행지침서도 필요하지만, 시민선방에서 재가불자들을 이끌 지도법사 양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스승과 제자간 문답-점검 시스템 복원은 조사선의 전통에 따른 간화선 정체성 확립은 물론 간화선 중흥의 열쇠가 된다. 예를 들어 선도회의 '입실(入室) 지도', 서울 안국선원, 육조사 등의 문답식 지도법이 바로 그 구체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 조계종이 <간화선 수행지침서>와 <신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 발간으로 이러한 수행붐은 더욱 확산될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행열기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 줄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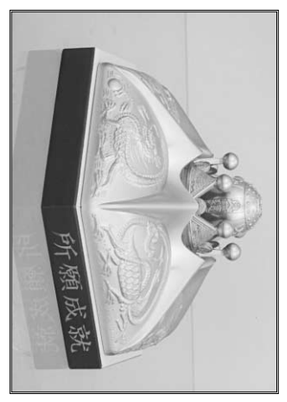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4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등 |
| · 작 법 반 (6개월)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 · 신행과정 ( 1 년 )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 · 특수작법 ( 1 년 )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4년 12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4년 12월 30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간(肝)이 염 간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 수선재 급성장 비결

# 대중화·탈종교·공격 마케팅

올 한해 언론에만 300회 이상 보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 곳. 명상편의점, 명상카페 '명상 아루이 선(仙)', 명상서 〈무심〉 등을 내놓으며 웰빙(well-being • 참살이) 열풍에서 순항을 거듭한 2곳. 바로 선도 수련단체 '수선재'다.

수선재는 2003년 11월 광화문에 명상편의점을 개설하면서 명상 열풍에 돛을 달았다. 국내지부를 50여개 마련한 데에 이어 호주 • 남아공 등 해외지부도 15개 정도 문을 열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명상법을 널리 보급한다는 취지 하에' 기공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 명상의 본고장 인도 등으로 진출하면서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이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나 국제 대회 등에 연이어 참가하면서 명상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98년 설립된 수선재가 2004년 '지금-여기'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년 사이에 급성장한 수선재의 성장 기반 및 전략을 분석하고, 수련법의 대중화를 둘러싼 논란 등도 함께 짚어본다.



수선재가 기획한 걷기명상 이벤트를 즐기는 사람들.

### ▲ 어떻게 성장했나?

수선재 성장의 가장 큰 힘은 '웰빙 열풍'이었다. 정신과 신체의 안녕을 강조하는 웰빙이 유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신의 안녕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은 명상에 대한 열기로 이어졌다.

수선재는 '언제든지 쉽게 들러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명상편의점을 개설한데 이어, 차담과 함께 명상을 즐길 수 있는 명상카페를 열어 수선재의 명상컨텐츠를 널리 보급했다. 특히 명상에 생소한 일반인들에게 어렵지 않은 '그림명상', '걷기명상' 등의 명상법을 지도하면서 명상의 대중화를 꾀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 같은 대중화 사업에도 몇 가지 전략이 있다. 그 첫째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저변 확대'다. 수선재는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와 백화점, 모델하우스까지 진출해 상설 명상편의점을 꾸렸다. 직접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종의 '명상문화 선점'을 통해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한의원과 차문화원 등에 명상컨텐츠를 판매하며 명상편의점 프렌차이즈 사업을 확대해 정신문화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수선재는 특히 단체 홍보에 있어 핵심 엘리트 회원들을 적극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수선재측은 변호사, 한의사 등의 고위층 회원들을 홍보에 끌어들이면서 이미지 메이킹에 나섰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강당을 빌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수련지도를 펼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편의점-카페-명상센터의 연대 역시 단체 확장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수선재 박중양 홍보팀장은 "편의점과 카페를 통해 일차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깊은 수련을 원하는 이들에 한해 명상센터에서 심화 과정을 지도하며 회원확장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종교와 무관한 단체의 성격도 수선재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E-마케팅팀 이서진 씨는 "종교적 도그마로부터 자유로운 수선재 수련법은 '명상'을 하나의 문화로 향유하고자 하는 무종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 ▲ 극복해야 할 과제

수선재는 '한국 전통 명상법'을 모토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뉴욕 요가 엑스포 등의 국제 행사를 통해 '수선재 명상법은 한국 고유의 선요가'임을 밝혔으며, 인사동 외국인 관광의 주요 코스가 된 '명상 아루이 선(仙)' 명상카페에서는 '수선재 명상=한국적 명상법'이라 소개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수선재 한 관계자는 최근 "수선재 명상이 정통 선도 명상"이라고 밝히는 등 '정통 인증'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수선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선도인 단체인 세계금선학회의 강대옥 원장은 "수선재가 선도 명상의 대중적 보급에 있어서는 기여한 바가 크지만, 선도 수련계에서 정통성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라시대 화랑, 고구려 조의선인 등으로 이어지는 선도 명맥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그저 내 단체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홍익인간의 개념으로 수련을 전파하고 있는 선도 명상계 뜻과도 대치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적 명상'이라는 타이틀 역시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선재는 인사동 명상카페를 한옥으로 꾸미면서 명상공간에 '한국 전통의 이미지'를 끌어들였다. '한국적'이라는 수식어는 그 같은 전통 이미지에 한정되는 것일 뿐, '한국을 대표하는 명상'으로 의미를 확대시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는 웰빙문화를 포장하려는 특정 언론에 의해 확대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서대학교 건강증진대학원 선도전공 김현문 교수는 "세계적으로 한국 명상에 대한 인지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각각의 선도단체들이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토대로 선도 수련 체계를 가꿔나간다면 인도의 요가에 비등할만한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정신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 · 카페 개설
## 백화점 · 고속도로 휴게소 등서 대대적 홍보
## "정통 선도명상" 주장… 선도계 이견 많아



백화점에 마련된 명상편의점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

**수선재는** 1998년 문화영 씨를 중심으로 창립된 선도명상 단체. 단전호흡 수련, 선체조 등을 비롯해 생활 속 깨달음을 지향하는 고급 명상수련 과정까지 지도한다. 대중적 눈높이를 고려해 만든 300여개의 명상법을 대중에 보급하고 있으며, 매월 1~2개 이상의 명상법을 고안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50여개, 일본 · 호주 ·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해외에 20여개 지부를 마련했으며, 명상편의점, 명상카페 등을 열어 올 한해 대중적인 관심을 모았다. 내년에는 명상학교 및 명상박물관 개원, 200개 이상의 국내외 지부 설립 등의 활동과 함께 명상편의점 프렌차이즈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선의 세계 ⑦⓪

## 돈수(頓修)와 점수(漸修)-5

지눌스님이 그토록 많은 저술, 더욱이 매우 이론적인 내용의 저술을 통해서 고구정녕(苦口丁寧)으로 말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수행하라는 가르침이다. 깨달아 부처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공덕이나 쌓고 아미타불에 의지해서 내생을 기약하겠다는 이들에게는, 성불이라는 것이 어디 저 밖에 멀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미 부처이며 오직 제 마음의 문제일 뿐이니 지금 당장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고 어른다. 한편,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듯이 '우리가 본래 부처님인데 무엇 하러 수고롭게 억지로 수행하냐?'고 하면서 무애자재행(無碍自在行)을 빙자하며 지내는 이들에 대해서도, 얼음이 본래 물인 줄 알더라도 햇볕을 받아 녹아야만 비로소 물이 된다는 비유를 들며 치열한 수행을 권한다. 이치로서는 우리가 본래 부처님인 게 맞다. 하지만 물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는 물노릇을 하지 못하듯이 그 본래 부처님이 부처님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본래의 정체인 부처님노릇을 할 수 있으려면 중생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온 습관을 치열한 수행으로써 닦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비유이다.

성철스님도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많은 글과 말을 남겼고 그 가운데에는 학술적으로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대목이 많지만, 수행자들에 대한 가르침으로서는 결국 그침 없이 열심히 수행하라는 얘기로 귀결된다.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표적으로 삼아 직격탄으로 가하는 이들은 그동안 불교에, 특히 선종에 구축되어온 제도의 틀 덕분에 선지식 대접을 받고 선지식 노릇을 하는 이들이다. 성철스님이 말하는 돈오돈수론의 요점은 자칭이건 타칭이건 선지식노릇을 하려면 깨달음을 이루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깨달음은 구경묘각(究竟妙覺), 성불의 깨달음이다. 본각의 이치를 지금 이 자리의 살림살이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어야 선지식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러니 함부로 젠 체하지 말고 하염없이 겸손하고 치열하게 수행하라는 얘기이다. 성철스님이 생전에 누차 '가짜 선지식은 간판을 내리라'고 했다거나, 한 소식 한 체험을 가지고 점검 받으러 온 이들을 그거 다 아니라며 계속 더 열심히 수행하라고 물리쳤다는 일화들도 그런 취지를 말해준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돈오돈수론을 지침으로 해서 이루는 깨달음과 돈오점수론을 지침으로 해서 이루는 깨달음이 과연 다른지 같은지 필자는 모르겠다. 그런 것은 세속학자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행자들이 직접 체험으로 알아볼 일이다. 어느 쪽을 지침으로 삼느냐에 따라 실제 수행하는 방법이나 양상이 필연적으로 다르게 되는지 어떤지도 모르겠다. 하기는 그것도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어떤 수행방편이건 제게 알맞은 것을 제 분수대로 치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터이다. 다만 성불 미만의 목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두 가지 가르침의 공통점이다.

성불 미만의 그 어떤 경지에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들고 수행한다면, 잠깐잠깐 예불하거나 참선하거나 선행을 하고는 뭔가 해냈다는 뿌듯한 기분을 도무지 가질 수 없을 터이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도대체 왜 나는 지금 부처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자성(自省)이 늘 고개를 우뚝 들고 있는 한 도저히 수행을 쉴 수가 없을 터이다. 돈오점수론이건 돈오돈수론이건 수행에 임하는 이들에게 바로 그런 치열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 분수대로 알맞은 수행하는게 중요
## 성철 스님, 겸손 · 치열한 수행강조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가락동 · 로데오거리 · 200M · 문정역 · 문정1동 동사무소 · 대한미륵창운회 유불선천기도장 · 성남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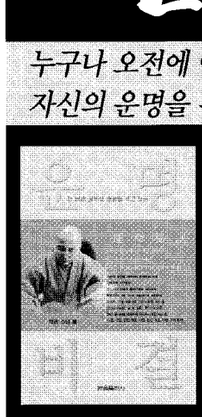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수와 숙명
● 자동차의 사주팔자
● 집 ·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주팔자
● 부동산(집 · 땅 · 가게 · 사업장)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 교제 · 결혼 ·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416페이지 / 정가 12,9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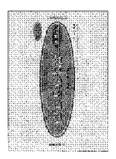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쩍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청산 김성진 지음 · 신국판·양장본 · 값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 을 치르고 주택 을 사고 주식 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評 譯杜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도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살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흉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일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28 新 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9,000원
29 풍수학논법 신국판/양장본/성재권 지음/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강의(25) 오온, 사대, 정념, 사무량심의 협연

# 누가 탁발해 붓다에게 공양할까

지난 강의에서, 초기 불교에 있어 '지혜'란 오온(五蘊)의 분석적 명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지혜를 개발하고 성취해 나가는데 있어, 팔정도(八正道)와 삼학(三學)의 동시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오온의 분석적 명상이 무아(無我)를 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면, 팔정도와 삼학은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해나가는 실천적 체험이라 하겠습니다. 지식과 실천은 서로 도울 때라야 더 깊고 분명해지는 법입니다. 불교 또한 이 둘이 합해져야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즉 니르바나(涅槃)에 다가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제 사설을 지루해 하시거나, 반신반의하실 분들을 위해, 또 위의 취지를 정리해 보는 의미에서, 초기 아함(阿含)의 설법에서 한 대목을 인용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마지마 니카야> 즉 <중아함>의 일절인데, 출전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나온 <인도 전통의 원전자료(Sources of Indian Tradition)>에서 골랐습니다.

### <마지마 니카야>의 일절

붓다께서 제타 숲 아나타핀디카의 승원에 머물고 계셨다. 어느 날 아침 그분은 가사를 걸치시고, 발우를 들고, 사바티 성으로 탁발을 하러 나가셨다. 존자 라훌라가 그의 곁을 가까이 모셨다. 가는 도중, 세존께서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지나간 것이든 지금 있는 것이든 앞으로 올 것이든, 또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간에, 거대한 것이나 미세한 것이나, 투박하거나 세련되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온전히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것은 즉,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atman)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을 듣고 라훌라는 물었다. "물질적인 것들(色)만 그렇게 보아야합니까." "아니다. 라훌라야, 물질적인 것들만 아니라, 감각(受), 지각(想), 정신적 구성물(行), 그리고 의식(識)까지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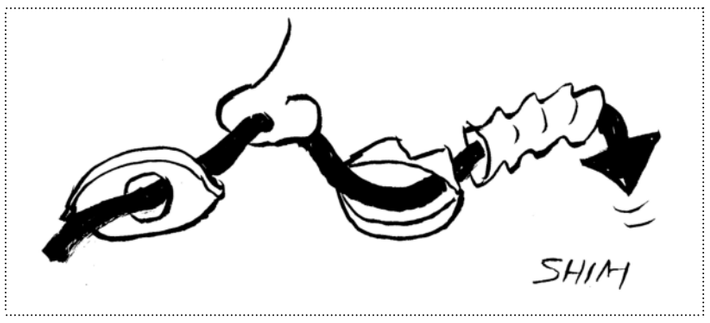
라훌라가 말했다. "(만일 나의 것도 없고, 나도 아니고, 자아도 없다면 그럼), 누가 오늘 탁발을 하러 마을에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비록 세존께서 그리 권하신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라훌라는 돌아서서, 가부좌를 하고, 등을 곧추 세우고, 정신을 통일시켰다. 그때 존자 사리푸트라(사리불)가 이 광경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호흡이 들고 나는 것에 더 깊이 집중하시게. 그 집중적 관찰의 공부는 매우 유용하고 생산적일 걸세."

밤이 다가오자 라훌라는 일어나 세존에게로 가서 물었다.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법을 어떻게 개발해야 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라훌라야, 사람 몸의 딱딱하고 단단한 것들, 가령 머리칼이나, 이빨, 가죽, 살점,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대지(地)적 요소들이다. 인간 속에 있는 물(水)의 요소들은 담즙, 점액, 고름, 피와 땀 등등이고, 불(火)의 요소들은 몸의 데우고 소화하고 태우는 기능, 즉 음식의 소화와 대사를 맡고 있다. 인간 속에 있는 공기(風)의 요소는 몸속에서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하는 바람, 배와 위장 사이를 흐르는 바람, 신체의 이 부분에서 저 부분으로,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바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의 요소들이 있다. 그것은 귀, 코, 입의 구멍,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가고 머무는, 또 지나고 빠져나가는 통로이다."

"인간의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은 외부세계의 다섯 요소들과 더불어 '우주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들'이다. 라훌라야, 이들을 올바른 견해(正見)로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이 안팎의 모든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atman)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보아야 한다. 이 올바른 이해와 자세를 갖춘 사람은 다섯 가지 요소들로부터 눈길을 돌리고,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것들에게서 기쁨을 찾지 않는다."

"마음의 상태를 대지(地)처럼 개발해라, 라훌라야. 사람들이 그 위에 깨끗하고 더러운 것들, 똥이나 오줌, 침이나 고름과 피를



마구 뿌리지만, 대지는 저항하거나 혐오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네가 대지처럼 자란다면 어떤 유쾌하고 불쾌한 일도 너의 마음을 붙잡거나 들러붙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네 마음을 물(水)처럼 개발해라, 라훌라야. 사람들은 거기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마구 던져 넣지만, 물은 거기 저항하거나 혐오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또한 불(火)은 모든 더럽고 깨끗한 것을 태우며, 공기(風)은 모든 것을 날려보내며, 또 공간 속에는 거기 아무것도 세워 둔 것이 없다."

"친밀한 마음(慈)을 개발해라, 라훌라야, 그렇게 하면, 악의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동정심(悲)을 개발해라, 그리하면 번뇌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喜)을 개발해라, 그리하면 혐오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평정(捨)을 개발해라, 그리하면 모순들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몸이 부패하고 있는 것을 더욱 뚜렷이 의식하는 마음을 개발해라, 그리하면, 정념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떠서 흘러가는 성질을 뚜렷이 의식하는 마음을 개발해라, 그리하면 자아의 오만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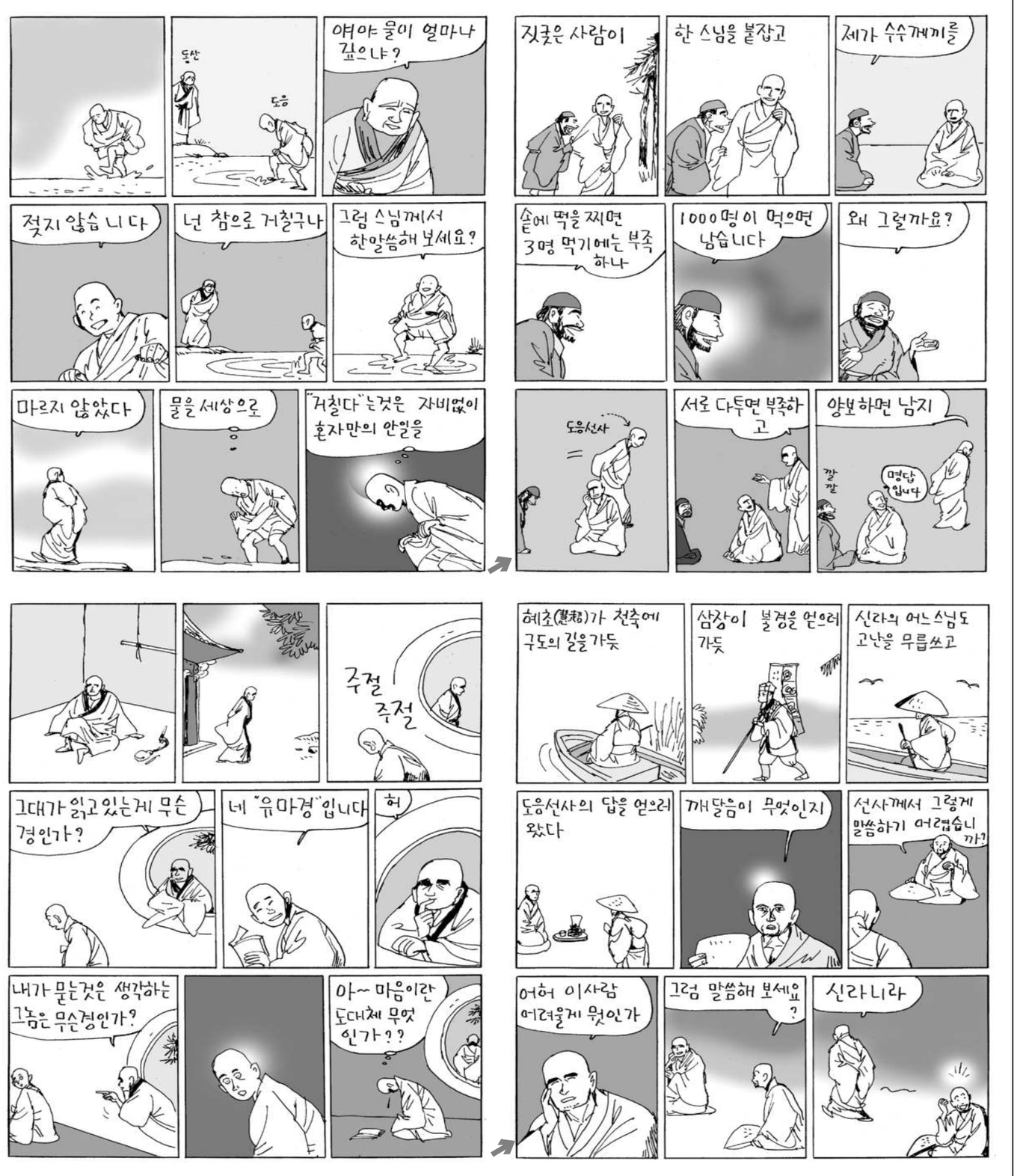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는 '마음의 상태'를 개발해라. 사문은 숲으로 가서, 나무 둥치 아래, 혹은 빈 집에 들어가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게 펴고, 정신을 통일시킨다. 그는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완전히 자각한다. 그가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내쉴 때, 그는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가 호흡을 짧게 들이쉬고 내쉴 때, 그는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는 몸의 전 과정과 마음의 전 작용을 의식하도록 자신을 훈련한다. 아울러 모든 사물의 무상함을 깨닫도록, 그리고 무정념과 무집착 속에서 쉴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한다. 정돈된 호흡의 상태를 개발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생산적이다. 그렇게 호흡을 다스려 나간 사람은 그의 마지막 숨을 내쉴 때도 무의식의 혼침 속에 가라앉지 않고 완전한 의식의 각성을 유지한다."

### 주변적 참고와 부연

문체는 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차분히 읽어보면 근본 취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책의 편집자는 이 대목 위에 거기 '정념(right mindfulness)'이란 소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초기 붓다의 설법, 그 실천적 핵심이 여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변적 얘기를 한 둘 해볼까요. 설법의 무대는 <금강경>과 마찬가지로 사위국(舍衛國)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입니다. 사위국(Srasvatti, Savatthi)은 지금의 네팔에 가까운 북부 인도의 사헤트 마헤트라고 합니다. 붓다께서는 한때 90만 호를 자랑하며 번성했던 이 도시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의 전법 40년 가운데 25년을 지냈습니다. <금강경>이 초기 아함부의 경전들과 무대가 같고, 서두도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도 <금강경>이 대승 초기에 성립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주장자따라… ㊽ 도응선사의 '신라'

조태호




**도응**(846~902)스님: 중국 조동종의 일맥을 전한 스님. 동산 양개의 제자로 운거에 주석할 때 1천5백명이 넘는 선승들이 운집했다고 전한다.

네티즌 교리문답

## 염불과 참선수행을 함께 해도 되나요?

**문** 초보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하나 선택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선, 염불, 주력, 간경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첫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는 참선을 택하셨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간경, 염불, 주력 등은 그 이후 부처님 설법하시는 기간 중 나오는 공부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일정 시간동안 염불을 하고 난 이후, 참선을 병행해도 괜찮겠습니까? (IP 김명제)

**답 1** : 병행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아주 좋습니다. 마음은 8마리의 원숭이가 저마다 제멋대로 노는 것에 비유될 만큼 각양각색의 면모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참선과 염불에 공명하는 부분은 서로 다릅니다. 처음에는 온갖 수행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아서 자신에게 가장 울림이 크고 깊은 수행법을 자꾸 발견해나감이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면 차츰 가닥이 저절로 잡혀서 선택의 고뇌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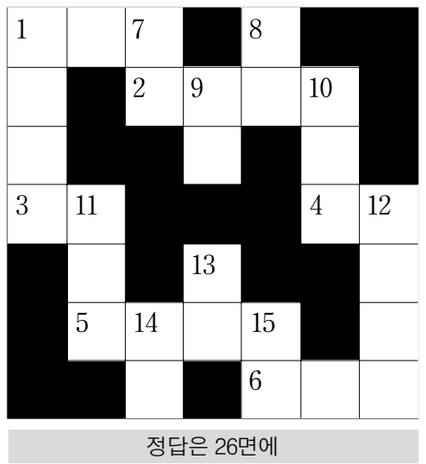
요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함이 중요하며, 수행법이 아무리 수승해도 자신의 마음발견에 더디게 작용하면 나쁘고, 아무리 열후한 수행법이라고 해도 자신의 마음발견에 빨리 작용하면 좋습니다. 즉 수행법의 우열은 무의미하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로(旅路)에 도움이 됨이 중요한데, 이것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토출용궁)

**답2** : 질문이 무엇이라도 모두 결국은 법(法)에 대한 물음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화두 하나 바로 해갑시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방편으로야 염불이든 경전공부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다른 종교든 다 상관없습니다.

저도 요즘은 매일 백팔배를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이 화두를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간화선이, 제가 발견하기로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가령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결국 '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으로 전달되겠습니까?

그보다는 스스로 그 문제를 푸셔야 겠지요. 그래서 역시 "화두 하나 바로 해갑시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가장 바른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스로 푸십시오. 그 지름길은 간화선입니다(오솔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정답은 26면에

## 상식퍼즐

**가로** 1. 꽃돗자리, 강화도가 이것의 산지로 유명 2. 파고다공원, 탑동공원의 다른 이름 3. 옥으로 만든 국새 4.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사는 일을 일컫는 외래어 5. 1895년 일본의 자객들이 경복궁을 습격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6. 청계천 다리 중 하나로, 기둥에 새긴 경(庚)·진(辰)·지(地)·평(平)의 수위표(水位標)로 물의 깊이를 재기도 했음.

**세로** 1. 끓는 물에 들어가 삶아지는 고통을 받는 지옥 7. 돌로 만든 탑 8. 털구멍 9. 큰길 안쪽으로 난, 집 사이 좁은 길 10. 혼자 진행하는 쇼 11. 1970년대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한 지역 사회 개발 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12. 탁구를 이용한 외교, 미국 탁구 팀과 기자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가 개선된 데서 온 말 13.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 서산○○, 사명○○란 호칭으로 익숙 14. 아름답게 꾸밈 15. 변화요인을 뜻하는 말로 상수(常數)에 대해 상대적인 말.


신문수


양영순


황미나


김수정


방학기


김성환


고행석

# 유쾌한 만화가 뒤엔 깡다구가 꿈틀 꿈틀



**18-한국대표 만화가 18명의 감동적인 이야기 1·2**
장상용 지음 | 크림슨 펴냄
각권 9천8백 원


신일숙


하승남


김성모


박기정


홍승우

'입지전적'이란 말이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밑바닥에서 정상을 치닫고 올라온 인물을 일컬을 때 쓴 단어다. 어려운 환경에서 비참함을 뼈 속까지 맛보고, 지독한 가난이 끈질기게 삶을 옭아매도 끝끝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말이다.

책 <18-한국대표 만화가 18명의 감동적인 이야기1·2>은 이처럼 '입지전적'이란 훈장을 달아줘도 조금도 손색없는 우리시대 내로라하는 '그림쟁이' 18명의 삶을 '글'로 그렸다.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만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불같았던 고우영 방학기 이현세 허영만 김수정 고행석 황미나 등 18명의 만화가들이 성공을 쟁취하기까지 험난했던 인생역정을 고스란히 책에 담았다.

**#어려운 시절 오기로 버티면 극복**

책은 그래서 이들 만화가들을 '18'이라 부른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가 되기까지, 숱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이들을 지탱해온 원동력이 바로 '18'의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책제목 '18'은 더 이상 욕처럼 들리지 않는다. 세상과 당당히 싸워온 '깡다구'로 다가온다.

잠시 만화를 접고 전자제품 외판원으로 나섰던 '아기공룡 둘리'의 작가 김수정은 책에서 그간의 인생을 이렇게 술회한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이 영혼을 갉아먹었지만, 결코 펜과 종이를 놓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 꿈은 더욱 간절해졌다. '어지간하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짓지 그러냐'는 스승의 말도 들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오히려 머릿속은 구상한 캐릭터를 습관처럼 종이에 옮겼다."

'천원'에 얽힌 김성모의 에피소드는 가슴을 절절하게 만든다. 1992년 겨울, 봉제공장에 취직한 동생 집에 얹혀살면서 사무치게 겪었던 빈곤은 김성모에게 뭐든 끝장을 보려는 '승부욕'을 아낌없이 불어넣었다.

동생이 깜빡 잊고 천원을 놓고 가지 않았다. 오후가 되니 담배를 피우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은행 옆 건물을 떠올렸다. 그곳에 가서 버려진 장초를 비닐봉지에 담아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필터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담배를 입에 무는 순간, 왈칵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 북받쳐 오르는 설움에 2시간을 내내 울어야 했다.

지겨운 가난은 속절없이 눈물만 흘리게 했다. 오랫동안 무명작가로 실컷 고생했던 '요절복통 불청객'의 고행석은 통닭 한 마리만 사다 달라는 딸아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다. 돈을 꾸기 위해 공중전화통을 붙잡아야 했지만, 정작 허름한 바지춤에는 전화를 걸 동전조차 없었다.


고우영

또 '3년 내 승부가 안 나면 만화가를 그만둔다'고 했던 '식객'의 허영만도, 만주의 대부호에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임꺽정'의 고우영도, 원고를 팔지 못한 채 흙탕이 된 버스 바닥에 원고를 쏟고 눈물을 흘렸던 '레드문'의 황미나도 극한상황에서 오기로 버티며 꿈을 현실로 바꾸었다.


심승현

**#남 탓 안 하고 꿈을 현실로**

만화가로서의 길은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만화밖에 없었다"는 '공포의 외인구단' 작가인 이현세의 경우가 그렇다. 만주 강제이주와 할아버지의 죽음, 6.25전쟁과 '빨갱이' 누명 등으로 점철된 비극의 가족사는 이현세를 당대 최고의 만화가로 키워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잠시 은행에 취직했다가 장부에 그림을 그려 넣어 금방 쫓겨난 일화는 이현세를 천부적인 '그림쟁이'로 만들었다.

또 두 살 무렵 방바닥을 기어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 왼손이 오리 손처럼 변한 '파페포프 메모리즈'의 심승현은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림에 녹였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고는 나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루 생활비 2천원으로 대학시절을 보낸 '누들누드'의 양영순은 "네가 자리에 없는 날이 실기실이 문 닫는 날"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그림에 매진, 그간 다루길 꺼려했던 성(性)분야에 신선한 만화의 장을 열었다. '비빔툰'의 홍승우는 "시행착오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라며 "정체되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새로운 것을 그리게 된다"고 자기자극을 불어넣었다.

지은이는 "'그러니까'가 아닌 '그럼에도'의 명제로 살라는 만화가 방학기의 말처럼, 이 책의 18명 만화가들은 상황 탓이나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명제를 스스로 증명했다"며 "이 책이 실업과 불황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만화가들의 삶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이현세


박봉성


허영만


김용환

## 전문기자 서평



**대한민국 광고에는 신제품이 없다**
이강우 지음 | 살림 | 1만원

한 분야에서 30년 정도를 몸담았던 사람들은 그게 어느 분야든 삶에 대한 통찰과 철학을 갖게 된다. 그런 연유로, 젊은이들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는 한 번 듣고 흘리게 되지만 연륜과 관록이 있는 베테랑의 이야기라면 소소한 일상에 대한 것이라도 무심히 보아 넘길 수가 없다.

30년 동안 CM 플래너로 일하면서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오리온 초코파이 정',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등의 광고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이강우. 그가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 주변의 일들, 광고 실무에서의 노하우 등을 묶어 <대한민국 광고에는 신제품이 없다>를 출간했다.

한 주제 당 10페이지 정도로 소개되는 에피소드와 저자의 단상, 그리고 거기서 이끌어내는 교훈은 그의 광고처럼 '사람 냄새'가 난다. 흔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처세서에서 보여 지는 '성공하려면 이런 습관을 가져라, 난 이런 계획을 짜서 움직였다'하는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신 저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 광고의 최고 미덕, 정직과 정성

일을 계속 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주위 사람에게서 어떤 태도를 배웠는지를 겸손하게 풀어내고 있다.

업계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사람과 동업 관계를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프로덕션을 경영하려면 필요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한다. 또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신뢰를 가져야 한다. 내가 가진 아흔 아홉과 상대가 가진 하나가 똑같다는 이상한 수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강우에게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비정한 사업의 세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광고 실무 중 얻은 교훈을 정리한 제3장의 '믿어야 넘어 간다', '내가 들어야 남도 듣는다', '마음이 열려야 백배로 힘이 난다' 편은, 다들 알고 있지만 눈앞의 이익을 놓칠까봐 실천하지 못하는 미덕의 힘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바로 정직함, 양보, 그리고 탈권위적인 대화가 그것이다. 남들보다 앞서야만 하는 비정한 광고의 세계에서, 그가 전하는 처세술과 석세스 스토리는 자못 가슴이 훈훈해지는 종류의 것이다.

물론, '그의 시대'는 어느 정도 낭만적인 애티튜드가 통용되는 때였을 수도 있다. 그가 젊었던 70~80년대 사회는 지금처럼 꽉 짜인, 출구 없는 미로는 아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얄팍한 효율성'과 '겁나는 합리성'만을 10년째 강조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런 미덕들의 가치를 다시 복원할 때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도 화려함과 명성, 높은 연봉 등을 고려하여 광고 크리에이터를 지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광고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도 모두 품고 있으리라. 그런 사람이라면 광고업 그 이면의 부분을 알기 위해서, 거기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한 광고실무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얄팍한 효율성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통한한다는 값진 교훈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김용란(마케팅 컨설턴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

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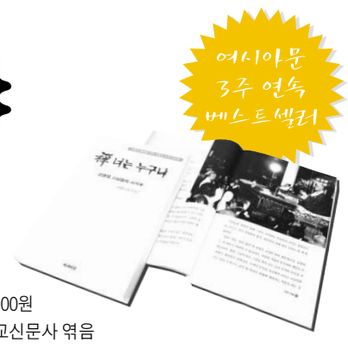
올 초 조계사에서 3개월간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서 11명의 선사들이 펼친 법문을 모았다. 선의 본질과 의미, 화두 두는 법, 선 수행의 요체 등을 주제로 선의 정수와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 중앙일보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난봄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 조선일보

지난봄 매주 3천여 명 이상이 동참하는 뜨거운 열기로 이어진 선원장 법회의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 매일신문

禪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너는 누구나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여시아문 3주 연속 베스트셀러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 고우 스님-선의 본질과 의미 ■ 무여 스님-화두 드는 법 ■ 대원 스님-선과 깨달음 ■ 함주 스님-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 영진 스님-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현응 스님-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현 스님-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정 스님-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문·법장 스님-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

주제가 있는 '禪'이야기
선어삼백칙
(禪語三百則)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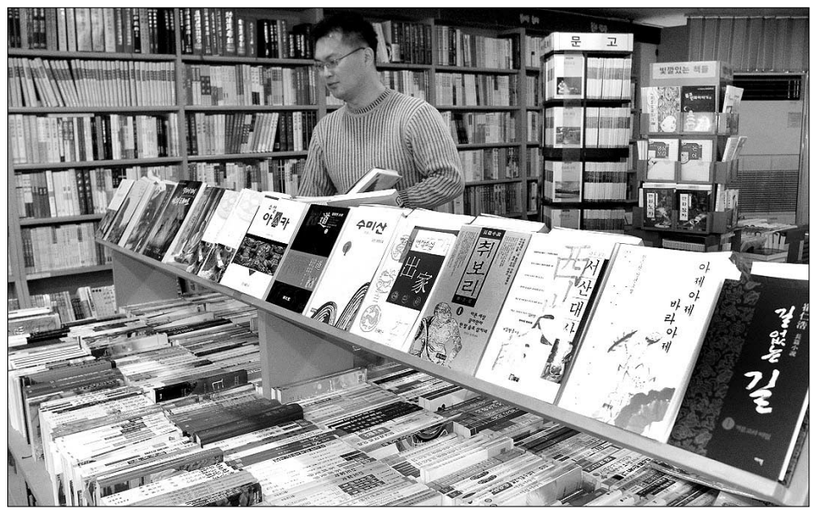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선어삼백칙 – 주제가 있는 선 이야기 삼백 가지'는 역대 선지식들의 수행담과 득도를 향한 열정이 담긴 핵심적인 어록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스스로 불성을 지니고 있다', '문득 깨달아 부처가 된다', '한 올도 걸리지 않는다' 등 주제별로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 무조건 '어렵다' 고만 느껴온 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신국판 / 420쪽 / 차차석 譯解 값 10,000원 /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

# 불교소설 침체의 늪 언제 벗어날까


불교소설은 큰 파급력을 갖고 있지만 독자의 외면으로 점점 출판권수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 영상매체에 밀리고 교계 무관심에 '위축일로'
## 평론 활성화·공모전 확대 등 지원대책 마련해야

걸출한 불교 소설은 어떤 포교활동보다도 더 큰 파급력을 갖는다. 80년대엔 김성동의 <만다라>(1978)나 한승원의 <아제아제 바라아제>(1985)를 읽고 출가하기 위해 산사를 찾아간 젊은이가 한 둘이 아니었다. 고은의 <화엄경>(1991), 남지심의 <우담바라>(1987), 최인호의 <길 없는 길>(1989) 등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대표적인 불교 소설들이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몇몇 책들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불교 소설을 찾기가 쉽지 않다. 90년대 후반부터는 불교 소설 출간 권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성낙주의 <차크라 바르틴>(1995)이나 김성동의 <꿈>(1999), 최근 나온 한승원의 <초의>(2003) 등이 있긴 하지만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불교 소설 왜 안나오나

오늘날 문학은 인터넷과 영상매체에 밀려 설 자리를 점차 잃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교 소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불교 소설은 이 같은 어려움에 더해 불교계 내부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작가들의 몇몇 작품을 제외하곤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뿐더러, 설령 책이 출간된다 해도 불교계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족사 윤창화 대표는 "현재 불교 소설에 대한 평가는 고사하고 '불교 소설'이란 정의도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다"며 "작가들이 불교 소설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스스로가 불교 소설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설가 한승원씨는 "꼭 불교 신자가 쓰거나 불교를 소재로 삼아야만 불교 소설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가 불교의 가르침과 부합하는가를 살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불교 문인과 학자, 독자들 사이에 불교 소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작가들도 자연히 창작 의욕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만해마을 손흥기 문학과장은 "불교 창작소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평론가나 학회가 없다"는 점을, <불교문예> 문창길 편집장은 "그간 일반 소설에 대한 평론은 많았지만 불교 소설을 주제로 발표되는 평론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각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미 발표된 불교 소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계 출판사들의 불교 소설 외면도 빼놓을 수 없다. 고질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교계 출판사들은 얼마나 수익을 낼 지 알 수 없는 불교 소설 출간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간 <불광> 남동화 편집장은 "불교 소설의 필요성과 파급력은 인정하지만 재정문제 등 여러 여건상 출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부적인 문제 뿐 아니라 작가들 스스로 끊임없이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출간된 불교 소설 중에는 단순히 고승의 전기나 불교 설화를 소설적 형식으로 재구성한 논픽션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설가 성낙주씨는 "<차크라 바르틴>을 쓰기 위해 경전을 읽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15년 이상의 습작기간을 가졌다. 그러나 요새 출판되는 불교 소설 중에는 집필 시간이 짧고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설가 남지심씨 역시 "단순히 불교에서 소재를 끌어다 쓰는 차원을 넘어서 정말 부처님 사상을 널리 홍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작가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활성화 방안

출판 전문가들은 불교 소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가들이 궁극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교에 대한 관심은 결국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불교 소설이 아니라 진정한 불교 사상을 담은 소설을 잉태하는 토양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인 불교 작가를 발굴해낼 수 있는 불교 소설 공모전과 배출된 문인들이 꾸준히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불교 소설을 공모하는 곳은 불교신문 신춘문예와 현대불교문인협회의 불교문예 공모전 단 두 곳. 문창길 편집장은 "불교 언론사와 잡지사가 한 번씩 만이라도 공모전을 주최하면 작가들과 불자들이 불교문학작품에 쏟는 관심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성작가들을 위해 신문과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김성동씨는 지난 2002년 인터넷에 신간 장편소설 <마하 신돈>의 집필동기와 줄거리를 올리고 투자자를 모으기도 했다.

기존에 발표된 작품 중 불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작품성 높은 소설을 발굴하거나, 해외의 불교 소설을 번역·출간함으로써 불교 소설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남동화 편집장은 "해외 불교 소설들이 인기를 끌게 되면 국내 불교 소설 출간 붐으로까지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밖에 좋은 작품은 영화와 연극, 뮤지컬로 재창조 되어 끊임없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단이나 불교문화단체 등이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나 <우담바라>가 각각 영화화 되어 성공을 거뒀지만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한 예는 없었기 때문이다. 불교 소설에 대한 관심을 모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 문인들은 "비록 불교 소설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불교는 삶의 본질을 파헤친다는 점에서 언제나 소설에 매력적인 주제를 제공해 왔다"며 "적절한 지원과 관심만 기울이면 불교 소설의 중흥기는 다시 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눈높이 경전 시리즈

부산 금화사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경들을 알기 쉽게 강의해온 대안 스님의 불교경전 시리즈가 출간됐다.

<알기 쉬운 불교강좌 상, 하> <초심자들을 위한 금강경 상, 하> <재미있는 반야심경> <다시보는 화엄경> <함께 하는 천수경> <아름다운 법화경 상, 하> <마음을 여는 예불문> 등 제목부터 마음을 끄는 대안 스님의 불경 시리즈는 쉽게 다가설 수 없었던 불교 경전들을 쉽게 풀이하고 있으며 일목요연한 용어 설명까지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각 권 경전 이해를 돕는 기초용어, 경전의 개요, 구성을 먼저 살피고, 원문해석과 주석 등으로 집중탐구까지 이어지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총 10권의 불교경전 해설서에는 영상 시디 7개를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부록 영상 시디는 한국과 중국의 아름다운 산사 풍경을 배경으로 경전의 원문과 한글을 함께 수록했으며 도문 스님의 청아한 독경과 어우러져 일반인들이 쉽게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문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불경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전도 수록됐다.

현재 서운암과 금화사를 오가며 정진 중인 대안 스님은 "불교를 바로 알고, 깨달음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펴냈다"며 "불경에 담긴 참 뜻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교 경전 시리즈**
혜성출판사
전 10권
각권 1만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오체투지 | 한경혜 | 반디미디어 |
| 2 | 물 속을 걸어가는 달 | 김진태 | 학고재 |
| 3 | 禪 너는 누구냐 | 현대불교신문 | 여시아문 |
| 4 |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 소운 스님 | 도솔 |
| 5 | 용서 | 달라이 라마 | 오래된미래 |
| 6 | 이판사판 화엄경 | 성법 스님 | 정신세계원 |
| 7 | 돈황본 육조단경 | 성본 스님 | 한국선문화연구원 |
| 8 | 천수경 천수신앙 | 혜국 스님 | 효림 |
| 9 |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 청화 스님 | 이른아침 |
| 10 | 왜 사는가 | 무량 스님 | 열림원 |

도서 안내 :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제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 군포교 25년 발자취



**멍텅구리 부처님** 자광 스님 지음 | 도피안사 | 9천5백원

"나는 암만 생각해도 멍텅구리다. 풍요로운 세상에 태어나 세속의 좋은 것은 다 버리고 촌스럽고 맵시도 없는 먹물 옷 밖에는 입지 못하고, 부귀영화 다 버리고 풀 뜯어먹고 곡식 까먹으며 평생을 살아간다."

스스로를 '멍텅구리'라 부르는 자광 스님이 회고록 <멍텅구리 부처님>을 펴냈다.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한 후 불모지나 다름없던 군포교를 25년간 일궈 온 스님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1993년 군종실장이 된 후 군승의 정원을 늘인 일이나 지원이 끊겨 중단된 교회 신축 공사를 대신 맡아 마무리한 일 등 군 포교 일선에서 겪었던 다양한 일화들을 볼 수 있다.

달마대사와 혜능 스님, 지엄 스님, 서산 대사 등 수행에 '멍텅구리'처럼 매진한 선사들의 수행담을 엮은 '멍텅구리 스님들 다 모였네'와 자광 스님이 <금강경>을 풀이한 '멍텅구리 금강경'도 소개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명쾌한 '법화경' 해설서



**법화경의 세계** 히라가와 아키라 지음 | 혜능 스님 옮김 | 부다가야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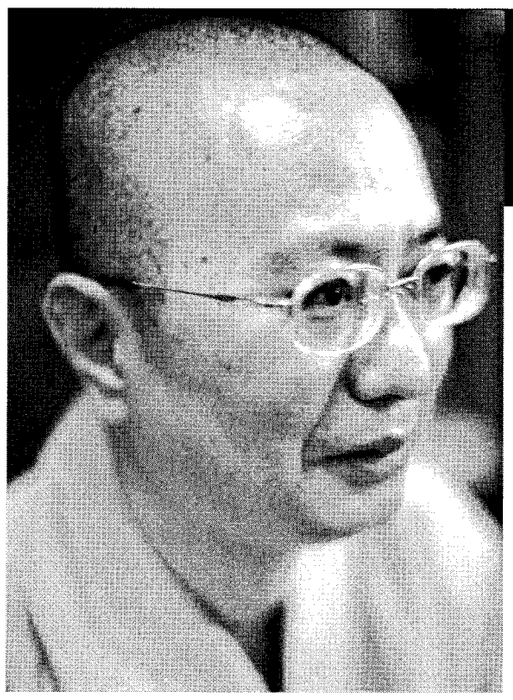
일본 불교학의 태두인 히라카와 아키라 박사의 법화경 강의를 책으로 엮은 <법화경의 세계>가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의 번역으로 출판됐다.

1988년 4월부터 2년에 걸쳐 강의된 내용을 채록해 엮은 이 책은 '법화경에 대한 더 이상의 명쾌한 해설은 없다'라는 평을 들을 만큼 법화경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해설서. 히라카와 아키라 박사는 동경대학과 와세다대학 교수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대승불교사상사, 교단사, 계율학에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남기고 2년 전 작고한 일본의 대표적 불교학자다.

책을 번역한 혜능 스님은 "<법화경>은 부처님이 누구며 불자는 누구인가를 극명히 밝히고 있다"며 "시비와 희노애락의 불길에 휩싸인 삶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게 영원의 삶을 살라고 일깨워주는가르침을 더욱 널리 전하고 싶어 번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난장판 세상에 떨어진 불벼락 같은 책"



이판사판 화엄경

출간2주만에 교보 베스트10위권 진입(종교 부문)!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총체적으로 난장판인 세상의 판을 바꿔 장엄한 세계로 이끄는 인류 최고의 행복 지침서!
본질에서 벗어난 정신없는 세상인 사판을 통째로 바로 잡고 이판의 지혜를 일깨우는 화엄의 죽비 소리!
어그러진 삶을 사는 동시대 모든 이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성법 스님의 사자후!
배꼽 잡으며 읽다가, 촌철살인 같은 지혜의 불벼락을 맞고 이판사판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엄청난 책!

언론이 주목한 2004년 최고의 지혜서!

삶과 수행의 백과사전인 화엄경을 쑥쑥 들어오게 풀이했다 - 중앙일보/ 부끄러운 한국 불교의 자화상을 난타하는 책 - 조선일보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듯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 경향신문/ "보시는 투자가 아니다, 어리석음은 독" 등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혜서 - 헤럴드 경제
첨단 과학 이론까지 접목시켜 흥미롭게 설명한 책 - 한국경제/ TV에 방영돼 쟁점이 된 〈영원한 대자유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 - 한겨레
바로 읽는 불교 경전. 상투적 해석을 개탄하며 초기 불교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 문화일보/ 화엄사상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 세계일보
'인간은 욕심으로 꽉 찬 욕계(欲界)에 머문, 형편 없는 꼴찌'라고 갈파하며 화엄경의 지혜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성법 스님 : 1957년 태어나 중동 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부처골 용화사 주지, 국내 최대 인터넷 불사佛事 「불교경전총론www.sejon.or.kr」 운영자. 20년 동안 경전 읽기와 수행에 전념했으며, '소원성취 보험회사'로 전락하는 현실 불교 개혁론을 펼치고 있다.



이판사판 화엄경 - 재미있고 혁명적인 화엄경 게송 풀이
성법스님 지음/신국판/값 11,000원/정신세계원 출판국

이판사판理判事判 : 본래 화엄경에서 나온 말로 세계의 두 가지 차원을 일컫는다. 이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판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이다. 삶의 진실과 행복은 이판과 사판의 조화 속에 있다.

www.mindvision.org 정신세계원
tel.02.747.7033/fax.02-747-7034

2004 문화 결산

# '특화'된 옷 입고 대중과 호흡




스님, 신부, 수녀 등 성직자들이 가수로 초청돼 공연한 2004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

6~7년전부터 지역민들에게 사찰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하나둘씩 시작된 '산사음악회'가 올해 들어 비로소 불교 문화포교의 대명사로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 2~3년간 산사음악회는 경제 한파로 주춤한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0여곳에서 산사음악회가 개최됐고, 올해는 전주 정혜사, 단양 광덕선원 등 처음으로 열리는 곳을 포함해 확인된 곳만 40개 사찰이 넘는다. 이중 산사음악회의 원조격인 봉화 청량사 음악회, 단양 광덕선원 음악회, 영주 부석사 부석문화 축제 등 10여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영주 부석사 총무 도륜 스님은 "산사음악회가 포함된 지역축제는 일반인들에게 사찰을 알리는데 효과적"이라며 "콘텐츠만 좋다면 사찰에 큰 예산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음악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노하우를 알려준다.



박범훈 중앙대 부총장이 아시아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다.

## 40여 산사음악회 지역축제로 확산
## 창작 및 종교화합 공연 · 전시 풍성

불교음악가들의 개인적인 활동중에 가장 두드러진 이는 박범훈 중앙대 부총장이었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불교음악인들로 구성된 아시아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잡고 '불향(佛香)'을 주제로 연주회를 가졌다. 또한 박 교수에게 있어 올해는 음악인생 40주년을 맞은 특별한 한 해였다. 그래서 11월 11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소리연(緣) 40주년 기념의 밤'을 주제로 그의 제자들이 음악회를 열어줘 가슴뭉클한 감동의 시간을 만들었다. 이자리에서는 국악 교성곡 '용성'을 비롯해 무용 관현악 독주곡 중주 오페라 마당놀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수백 곡을 작곡한 그의 창작열에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국내작품중 해외영화제 최대 초청작이라는 신기록을 수립하며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동승'이 오페라로 만들어져 공연 이틀 동안 많은 관객들을 불러 들였다.

미술전시 또한 봇물처럼 열렸다. 특히 여느때와 달리 성보박물관들의 특별전이 활발하게 기획됐다. 송광사는 불교문헌 희귀본전을, 통도사와 미황사 그리고 직지사는 괘불탱화전을, 수덕사는 한국의 불복장 특별전을 열어 산사를 찾은 참배객들의 발길을 박물관으로 돌리게 했다.



12년간 8만 4천 창작 단청문양을 개발한 김윤호씨.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 '가톨릭과 불교미술인의 만남전' 개막식.

개인전도 많았다. 특히 12년간 8만 4천문양을 개발한 김윤오씨의 단청전과 7년간 중국의 돈황 벽화에서 돈황을 현대적 기법으로 재구성한 서용씨의 작품전은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강렬한 오방색으로 한국적인 미를 조화롭게 표현해 사후 근대 채색화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박생광 화백의 탄생 1백주년 회고전은 현대 불교미술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남겼다. 특히 이 전시회에서는 박 화백의 진주농고 동창이었던 청담 스님 영정 등 미공개 작품 10점도 공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미술을 통해 종교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도 서울과 대구에서 잇달아 마련돼 귀감이 됐다.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 12월 8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한 '가톨릭과 불교미술인의 만남展'과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개 종교 대구경북지역의 작가들을 초청해 12월 19일까지 연 '사랑 · 나눔 · 자비 · 평화의 합창 展' 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제 5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강익중, 홍호섭, 이한수씨 등 10여명이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을 출품해 이목을 집중 시켰고, 만해기념관에서는 만해 스님과 관련된 역사 인물의 작품을 한 데 모은 '만해 한용운과 그 사람들'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 만해 스님 열반 60주년을 뜻있게 기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조계종 불미전 현대분야 제외 공방
## 무용 · 연극분야 '제자리 걸음' 아쉬워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한 조계종 불교미술미전의 공모작품 장르 규정에 대해 불교미술 관계자들끼리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됐다.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현대분야를 제외시킨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고, 조계종 문화부는 전통을 중시하는 것 뿐이지 현대 적인 일반 작가들의 공모를 막은 것은 아니라고 일축해 뜨거운 공방이 되기도 했다.

음악과 미술의 결산 기상도가 '맑음' 이었다면 무용과 연극, 방송은 '흐림'으로 평가된다. 우선 무용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불교 무용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손재현 동국대 교수가 원효 스님의 일생과 정신세계를 창작발레로 재구성한 불교무용 '원효'를 초연했다. 또 법현 동국대 교수 스님의 해외 영산재 공연, 동희 스님의 '육법공양', 능화 스님의 '정기공연' 정도가 열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연극은 홍사용 씨의 유작인 '출가' 이후 뚜렷한 불교소재 연극을 찾아 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방송 분야를 살펴보면 공중파 등 일반 방송에서 불교 관련 프로그램을 유독 접하기 어려웠던 한 해였다. 예년에 비해 공중파TV의 부처님오신날 특집 프로그램 수도 줄어 들었으며, 그 동안 종종 선보였던 불교 소재 다큐멘터리 등도 MBC 스페셜 '출가' 등 한 두편을 제외하고는 새롭게 제작된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불교계 내의 방송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불교방송은 광고주연합회가 조사한 청취율 조사에서 종교방송 5사중 하위권에 머물렀고, 불교 TV도 신선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부재로 시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미도' 와 '태극기 휘날리며' 가 1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국내 영화계가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불교 영화는 고작 '달마야 서울가자' 뿐이었다. 그래도 지난해엔 '오세암'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이 흥행엔 성공하지 않았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등 체면은 유지한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달마야 서울 가자' 마저 흥행에 실패하며 불교 영화계도 함께 침체의 늪에 빠졌다. 새해에는 국내 영화계의 호황에 편승해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제작되길 기대해 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문화단신

### 계간 '유심' 격외시단 신설
**매호마다 시·시조 6편 선정**

시단에 새로운 시상제도가 생겨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계간 <유심>이 '격외시단(格外詩壇)'을 설치한다고 최근 발간된 겨울호를 통해 밝혔다. <유심>은 내년 봄호부터 매호마다 4명의 시인과 2명의 시조시인의 작품 1편씩을 선정 시상한다. 선정된 작품에 대한 원고료는 편당 1백만 원.

'격외시단'은 1980년 이후 등단하여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시인과 시조시인을 대상으로 7인의 선정위원회가 선정 한다. <유심>은 봄 가을호의 선정 위원에는 고봉준 김경수 김수이 박수연 박찬일 유성호 이지엽씨가 여름 겨울호에는 강동우 김용희 방민호 이성천 이홍섭 홍성란 홍용희씨가 위촉됐다고 밝혔다. 격외시단에 선정된 작품은 <유심>에 발표되며 선정 작가는 원고료 외에 만해축전에서 기념 메달도 받게된다.

'격외시단'의 신설로 <유심>은 매년 등단 후 10년 전후의 시 시조 평론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유심작품상'(각 부문 상금 5백만 원)과 '유심신인상'(상금 3백만 원) 등 3종류의 시상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한편, <유심>은 '유심신인상'의 경우 내년부터는 봄호에서만 선정하기로 했다.

임연태 기자

### 양창제 생활불교미술展
**구미문화예술회관(24일 까지)**

선화가 양창제씨의 생활불교를 주제로 한 미술 전시회가 12월 24일까지 구미문화예술회관 제2 전시실에서 열린다.

'42년생이 42년간 그린 42점의 전시회' 란 이색 제목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연꽃문양' '단청' '풍경소리' '부처님' '달마도' 등 42점이 선보인다.

양씨의 그림은 대체로 연한 파스텔톤이다. 그래서 얼핏보면 빛바랜 벽화같이 보인다. 소재도 주로 연꽃이나 단청, 풍경 등 사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어서 친근감이 든다. 여기에 그가 20여년 이상을 그려온 달마도도 함께 벽에 걸었다. 특히 양씨의 달마도는 대부분 인자하게 웃는 달마대사를 표현해 보는이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054)452-1323



양창제씨의 '연꽃 문'.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지는 강원도 정선 물람사 산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특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효능이 좋다고 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변비가 나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천식이 멀어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공절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법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룰(만삼 생것 10kg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60포=20만원) ● 2Box(120포=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토르말린, 수정석, 맥반석 등의 천연광물이 뿜어내는 그 시원하고 후끈후끈한 열기,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원적외선
불가마
형식승인번호(안전인증번호) : HU07305-2001A
5분 충전! ▶▶ 3시간 연속찜질!
딱 한번만 무료체험해 보십시오!
후끈후끈한 원적외선 열찜질!
몸 속 깊이 침투하는 그 시원함!
정말 놀랍습니다.
추석효도선물 목초수액시트 30매 증정
특별가 13만원
● 불과 5분 충전으로 3시간동안 연속찜질 OK!
● 전원차단으로 무선찜질, 유해전자파 걱정 NO!
●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편리성 YES!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도 그만!
◎ 제품의 특성
• 최신 특수공법에 의한 견고한 제품
• 수많은 실험으로 안전성, 기능성 확보
• 인체공학적 설계로 몸의 어느부위에도 밀착성 우수
• 내부 발열온도 135℃, 표면온도 60~70℃
• 원적외선과 음이온 다량발생 (원적외선 방사율 약 90% 음이온 182/cc)
◎ 주요 용도
• 노약자 보온용 및 무릎, 어깨, 관절 찜질
• 여성의 아랫배, 손발을 따뜻하게
• 학생이나 직장인의 목, 어깨 찜질 또는 베개대용
• 아픈곳이나 다친 곳의 찜질
• 낚시, 등산, 야영, 야외 작업시 보온용
• 출고 습기찬 곳에서의 보온용
■ 자매품 : 청즙(3g 30포) 45,000원, 크로렐라 (200ml 1600정) 75,000원
www.bb21.com 상담실 : 02)969-8080

두뇌과학의 혁신. 기억력 창의력 증강
전통불교 공법으로 대중적이아닌 1:1의 교육으로 확실하게 전수해드립니다
♠ 도(道)를 닦거나 기공수련의 기초 관문인 경락소주천(經絡小周天) 운행을 기공사가 직접 1개월 이내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 11~13세 미만 아이들에게 대뇌를 개발하고 인체투시(천안통, 천이통)기능을 1주일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기억력, 창의력 증가)
♠ 6세 미만 벙어리 아이들을 말을 하게 하고 16세 미만의 간질병 아이들을 경기 뚝, 확실합니다.
♠ 얼굴형 교정(광대뼈 두드러지고, 넓은턱), 거칠은 피부, 검은피부를 부드럽고 예쁜 하얀 피부, 얼굴로 바꿔 드립니다.
♠ 불임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아기를 낳고 싶으신분) 해결해 드립니다.
♠ 척추디스크, 심혈관 계통(혈액순환기 계통), 소화기계통, 난치병(폐장암, 위장암, 대장암, 당뇨, 뇌졸증, 관절염)등 중병 질환에 특수한 인체조절, 예방효과가 있는 氣功 수련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 말로, 책으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성명쌍수(性命雙修) 수련법 진수를 전수해 드립니다. 경락소주천과 대주천을 완벽하게 운행할 수 있는(인연이 닿는 분은 3개월 이내) 기공사(기공치료 의사)를 양성합니다.
무료 상담 환영
대불통령내단공(大佛通靈內丹功)修練院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오피스텔 1212호 (교대정문사거리)
TEL : 02)3471-7277
H · P : 016-299-4864 / 016-214-4864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2>



## 네 부류에도 못 드는 '우리'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의 죽림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말이 있다.

첫 번째 말은 안장을 올려놓고 채찍의 그림자만 보여주어도 달리는 말이다. 말을 모는 사람의 기미를 잘 관찰하여 적당하게 속도를 맞추고 방향을 잡기 때문에 마부의 의도대로 따라 행한다.

두 번째 말은 채찍 그림자를 보고 정황을 알아채는 능력은 없지만, 채찍이 그 털끝을 스치기만 하면 곧 놀라서 말 모는 이의 마음을 어느 새 살피고는 적당한 속도와 방향을 잡아서 달려가는 말이다.

세 번째 말은 채찍 그림자를 보거나 채찍이 털끝에 스쳐도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지만, 채찍으로 살갗을 조금 때리면 곧 놀라서 말을 모는 이의 마음을 살피고는 적당한 속도와 방향을 잡아서 달려가니, 등에 채찍이 떨어져야 달리는 말다.

네 번째로 좋은 말은 채찍으로 등을 얻어맞고 고삐를 잡아채야 달리는 말이다. 이 말은 그 어떤 기미도 알아채지 못하다가 제 몸에 채찍이 모질게 와서 박혀 상처가 나야만 비로소 깜짝 놀라 수레를 끌고 달리는 말이다.

바른 법을 공부하는 사람에도 네 부류가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웃 마을의 누군가가 병들어 고통 받거나 심지어는 죽기도 한다는 말만 듣고도 생사를 두려워하여 바른 생각을 일으켜 열심히 공부한다. 이는 마치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곧 정황을 파악해 달려 나가는 첫 번째 말과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은 이웃 마을에서 누군가가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는 곧 생사를 두려워하여 바른 마음을 일으켜 열심히 공부한다. 이는 채찍이 털끝을 스치기만 해도 어느 새 말을 모는 이의 마음을 따라 달려 나가는 두 번째 말과도 같은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은 앞의 두 사람 같지는 않지만 친척이나 친구, 자기 동네 사람이 병들어 신음하다 죽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아야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 열심히 공부한다. 이는 살갗을 조금 맞고 나서야 비로소 말을 모는 이의 마음을 따르는 세 번째 말과 같은 사람이다.

네 번째 사람은 제 자신이 늙고 병들어 고통받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생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서 공부하기 시작한다. 이런 사람은 채찍으로 살이 패이고 뼈까지 다치고 나서야 비로소 달려 나가는 네 번째 말과 같은 사람이다."

<잡아함경>에 들어있는 '채찍 그림자의 경(鞭影經)'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한 해가 서서히 그 긴 그림자를 접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역시나 수많은 사건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모(歲暮)의 신문은 또 한번의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밀양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이 그것입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가해자가 다수의 고등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한데 더 실망스러운 것은 그 사건을 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어른들의 마음자세와 행동거지입니다.

도대체 뭐가 사건의 진실인지도 모르게 번져버린 데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게다가 사건만 띄워놓았을 뿐 전문가의 조언이나 해결책을 들려주려는 진지한 자세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이 저 혼자 정신없이 뛰쳐 놓고 가버리니 다급해진 사람은 사건을 해결해야 할 일선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랴, 가해자와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분류하랴, 사회에서 마구잡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질책을 감당하랴, 그리고 '자기 고장의 명예'를 지키랴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당국과 그 학생들의 선생님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끔찍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무책임한 언론**
**대한민국 성인들에게 그저 '남의 일'인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채찍이 자기 살을 때려서 피가 나고 뼈가 허옇게 드러난 지경인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 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보기만 해도 우리의 청소년들을 염려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이미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너무나 태평스럽습니다. 자기 자식이 당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님 자식은 그만두고라도 자기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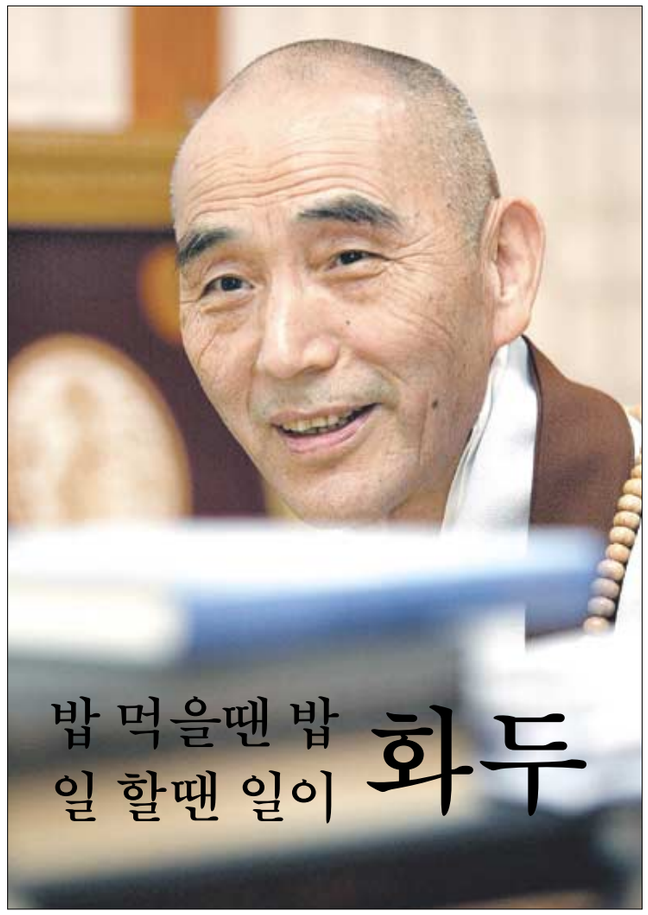
만약 부처님이 계시다면 위의 네 가지에 틀림없이 하나를 더하셨을 것입니다. 고통이 이미 침범하여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제 몸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는 중증 마약 중독자와 같은 부류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류에 분명히 이 사건과 연관된 무수한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울러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지상 백고좌

# 법인 스님

(천안 각원사 주지)




출가후 50여년 동안 교학과 수행, 포교, 불사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던 법인 스님. 스님은 "원을 바르게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갈 때나 올 때나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뜻의 '수좌(首座)걸음'이라는 말이 있다.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떠나야 할 때 미련 없이 떠나는 스님들의 행보를 비유한 말이다. 천안 각원사 주지 법인 스님의 행보도 '수좌걸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여년간 각원사를 명실상부한 거찰로 일구어 놓은 후 미련 없이 재일(在日) 포교당인 도쿄 명월사으로 떠나 해외포교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12일, 초하루 법회에서 만나 뵌 법인 스님은 전날 새벽에 일본에서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으로 대중을 맞아 가르침을 주셨다.

## 모든 수행법의 바탕은 敎

▲최근 승산 스님의 입적으로 해외포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도 30여년 전 일본에 명월사를 열고 재일동포 포교에 앞장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포교에 있어서는 불교계가 이만저만 각성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전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신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업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어떻게 시장개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불교계는 다른 종교의 포교에 대해 너무 무관심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각원사는 현재 해외포교원으로 일본 도쿄의 명월사와 시모노세키의 광명사, 미국 필라델피아의 관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천년 고찰에 앉아만 있는다고 포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하루 빨리 해외포교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올 한해는 재가자들 사이에 수행, 그중에서도 간화선 열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재가자들의 수행열기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행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학(敎學)은 관심 밖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학 안나오고 기자를 할 수 있나요? 박사학위를 받지 않고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나요? 교통법규를 안배우고 운전을 할 수 있나요? 교(敎)란 그런 것입니다. 저는 불교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참선 운운하면 우선 기본이 되는 교리 공부부터 하라는 말로써 질책합니다. 모든 사상과 첨학적 비전은 학문과 교육을 통해서 정립될 수 있듯이, 교를 바탕으로 선정(禪定)과 기도, 주력 등을 수행하여 불법 전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에게 선과 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와 선, 선과 교라는 비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둘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참선을 하건 염불을 하건 기도를 하건 주력을 하건 모든 것은 교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기존의 인식과 학문적인 체계를 일체 벗어 던지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불성(佛性)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참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선을 불교 수행자들이

## 敎 아닌 알음알이 경계해야

취해야 할 열매나 꽃으로 여기면서도 교는 소홀히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행자들 가운데서도 선과 교를 다르게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단순히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교리 공부도 없이 무조건 가부좌를 틀고 면벽한다고 해서, 목탁이나 요령 들고 염불한다고 해서 8만4천의 부처님 말씀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서산 스님이 <선가귀감>에서 경계하신 것은 교(敎)가 아니라 알음알이라는 사실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교를 바탕으로 한 후 수행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화두를 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화두라는 말은 일반인들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뜬구름 잡듯 생각만 하는 것이 화두나 수행이 아닙니다. 요즘 일부 수행자들은 '화두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무조건 화두만 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무(無)'자 화두를 들어야 하나요? 밥 먹을 때도 '이뭣고' 해야 합니까? 운전을 할 때는 운전에 집중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일념을 하고, 일 할 때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밥 먹는 것으로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때는 밥이 화두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참선이나 염불을 하다보면 깨달음의 길이 요원하게 느껴져 답답하기도 한데요.

-어릴 적 아버님께서는 집 근처 손수 가꾸셨던 수수밭으로 저를 데리고 가실 때 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수숫대를 뛰어넘는다면 수숫대가 제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보관상태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무리 높이 자라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성격보다는 근면과 끈기,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었지요. 그 가르침 덕분에 저는 출가한 이후 매일 아침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와 예불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공부도 수행도 단시간에 그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을 바르게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가르침을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물질문명 시대를

## 율원, 시대에 맞는 계율 제시해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버리고 비우라'는 가르침은 자칫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기가 쉽습니다.

-땀은 100원어치 밖에 안 흘렸는데도 1000원을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돈을 세는 단위인 원이나 일본의 엔(圓)을 보십시오. 둘 다 둥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돈은 돌고 도는 것인데, 주고받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주고받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주고받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경제 여건이 안된다면 그건 곤란하죠. 일례로 도교 명월사 근처에는 파 한쪽에도 가격표를 붙여 놨습니다. 그만큼 거래를 공정하고 떳떳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1974년 김영조 거사가 보시한 땅에 지은 명월사를 곧바로 조계종 총무원에 등록했다. "귀국 후 명월사를 팔아 국내에 사찰을 지으시라"는 김 거사에게 스님은 "명월사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재일동포들의 안식처로 남기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감명을 받은 김 거사는 높이 15m, 무게 60톤에 달하는 청동대불을 다시 보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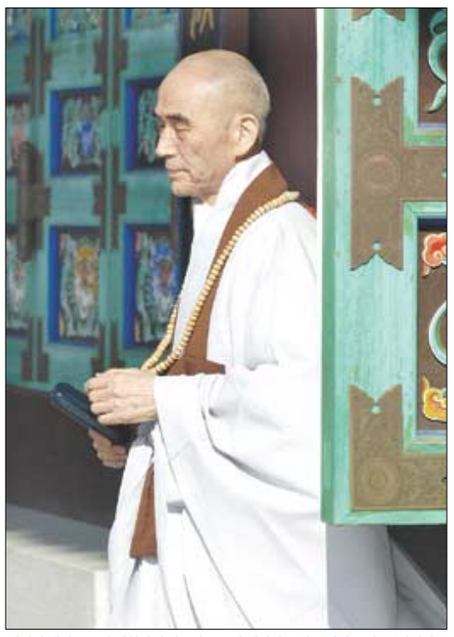
▲계율은 오늘날 불자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 오계를 받고도 실천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 계를 받지 않는다는 재가자들도 있습니다.

-계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교칙만 잘 지킨다고 우등생이 되는 건 아니지요. 교칙을 잘 지키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율원은 전통계율에 대해 연구하고 시대에 맞는 계율을 제정해 불자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 육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계율을 '자비하라'는 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생명을 죽이지 않고 육식을 하지 않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비라는 큰 가르침을 간직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행동한다면 계에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계율은 부처님 당시의 계율정신에 맞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실제 각원사의 '사훈(寺訓)' 중의 하나가 '자비'일 정도로 스님은 대중들에게 '자비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신다.

▲스님은 40여년 동안 배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학문을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선을 하지 않고 경학이나 학교니 하여 글공부를 한다는 것은 도리어 번뇌 망상에 빠지게 된다고 힐난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젊은 스님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고사하고 강원에서 신문이나 잡지, 소설 등을 읽거나 영어, 일본어 같은 외국어공부를



각원사 재일 포교원 명월사에 머물며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법인 스님은 "자비라는 큰 가르침에 따라 행동한다면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 교육·복지 도량 만들면 포교는 절로

하다가 어른 스님의 눈에 띄면 호되게 야단을 맞았지요. 그러나 저는 공부에 원을 세웠습니다.

언제나 "좋은 스승을 만나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세속 공부를 많이 하면 환속한다'는 인식 때문에 제 별명이 '환속 후보 1호'일 정도였어요.(웃음) 절에서는 승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어야 해 등하교길에 신도 집에서 교복과 승복을 갈아입고 다녀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시선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더해만 갔습니다. 모름지기 공부도 수행도 간절한 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명월사와 각원사 창건이라는 대작불사를 이끌어 온 법인 스님. "지금까지의 불사는 포교의 틀을 닦기 위한 것"이라는 스님은 "이제부터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불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원사는 불교대학과 어린이집 개원에 이어 앞으로 천안 지역불자들의 교육장이 될 불교회관과 연수원을 건립하고 양로원 같은 복지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 복지를 위한 도량을 만들면 포교는 저절로 된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기자를 배웅하러 나온 스님은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봉안한 청동대불을 가리키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이제는 남북이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화통일이나 흡수통일 같은 일방적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자연히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법인 스님은

## 편한 길 마다하고 日서 손수 아침 지어먹으며 한국불교 알리기 일념

"법인(法印) 스님은 고희를 넘긴 세수에도 손수 아침밥을 지어 드십니다. 국내에 계시면 시자들의 시봉을 받으며 편히 지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과 해외포교를 위해 한시도 몸을 편히 두지 않으시는 참된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각원사 사무장을 맡고 있는 박기환 씨에게 법인 스님에 대해 묻자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상좌인 각원사 총무 대원 스님은 "은사 스님은 시대 불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한다.

16살에 출가해 50여년 동안 교학과 포교에 매진해 온 법인 스님은 아침 예불과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하다. 각원사를 창건할 때는 현장에 임시 막사를 지어 생활하며 허름한 적삼과 밀짚모자 차림으로 인부들과 함께 공사를 하기도 했다.

각원사 처소인 경해원(鏡海院)에 '자안애어(慈顔愛語)'라는 문구를 걸어두고 제자들이나 신도들을 대할 때 마다 빙그레 미소를 머금으며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법인 스님. 스님은 1931년 통영에서 태어나 46년 해인사로 출가했다. 58년 해인대학 문학부 종교학과를 거쳐 동국대 사학과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67년 동국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87년 일본 대동문화대학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75년 대한불교 조계종 각원사의 재일(在日) 포교원인 명월사를 창건했고 77년 태조산 각원사를 창건했다.

85년 평화통일문화협의회 평화통일문화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불교입문>(89)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연구>(89) <개미집과 하루살이>(96) <신고는 원광이 되어>(2003) 등이 있다.



### 지현 스님의

## 스님이야기

적음 스님 (中)

'대성리 展'이 끝난 지 한참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그를 만나면, 그는 대성리를 추억하며 그리움에 젖는다. 젊은 피의 용솟음이 젊은 혼령들의 속살거림이 그를 먼 추억의 강물 속으로 떠내려 보내는 것일까? 세찬 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그 겨울 강가에서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의 내면의 정신세계, 그의 절대의 시적(詩的)탐구를 위함이었을까? 고통을 수반하는 젊은 날의 하나의 행로였을까? 모른다,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의 털털거리는 재봉틀 같은 웃음 속에서도, 비밀스런 저녁나절의 침묵 속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다.

적음 스님을 처음 만난 건 논산의 은진미륵 관



그림 · 문병성

촉사에서였다. 그 때가 언제였던가. 대충 꼽아보건대 이십 수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인다. 나쁘게 해석하면 아무 발전 없이 평범했고, 좋게 해석하자면 시종여일하게 평상심을 간직한 채 살아왔다고나 할까.

관촉사 시절 적음 스님은 아무런 소임도 맡지 않고, 그야말로 한주(閑住)로 지냈다. 방사가 마땅치 않아 큰 방에서 지내며, 닥치는대로 무소불이로 절일을 도왔다. 법당에 행사 있을 때면 목탁을 잡았고, 도량 쓸고 청소하는데도 따지지 않았다. 있는 듯 없는 듯이 살며 그는 아랫마을 어느 집의 자전거를 빌려 타고 논산 강경읍의 비린내 나는 폭우를 하루종일 서성거리다 오곤 했다.

아침 도량석은 스님의 몫이었고, 사십구재나 혼례식 등도 또한 그의 몫이었다. 얼굴 찌푸리고 화를 내는 그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있는 듯 없는 듯한 그의 행적이 새삼 그리워지는 오늘, 나는 이런 지면을 통해 그를 추억함이 참으로 따사롭게 느낀다. 한국 최초로 기획되고 실시된 야외 설치 미술과 펴포먼스, 그 어렵다면 어려운 시기를 거쳐 온 적음 스님, 그를 오늘 이 밝아오는 흰 새벽에 떠올리고 떠올린다. 스님은 멀리 떠나지 않고 우리네 곁에서 잠자코 머물고 있다.

'삶은 견디기 어려운 것, 그리고 삶은 머나 먼 험길을 따라 떠나가는 것. 뜨거운 여름 날 천 년 묵은 미루나무 아래서 똥누기 내기 하는 어린 날의 기억.' 적음 스님은 그의 산문집 <저문 날의 목판화> 서두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이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아무런 해답도, 또한 부질없는 그러한 물음도 우리네를 그저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

적음 스님, 오늘 이 겨울에도 일소암의 산자락을 쏘다니며 가을에 떨어진 도토리 줍고 있으신지? 조그만 뜨락 옆 텃밭에 심어놓은 캐지 못한 고구마를 한 뿌리 한 뿌리 캐고 있으신지?

스님이 내게 이런 얘길 들려 준 적이 있다. 열일곱 살 때쯤 처음으로 만행을 떠났을 때 얘기였다. 조그만 목탁을 걸망에 넣어 을러 메고 그가 머물고 있던 경상북도 성주 땅 선석사(禪石寺)를 출발해 보이는 마을마다 들러 목탁을 두들겼다. 잡은 비어 있는 집의 마루청 등에서 해결했다.

## 절에 머물땐 있는 듯 없는 듯 궂은 일 닥치는대로 '척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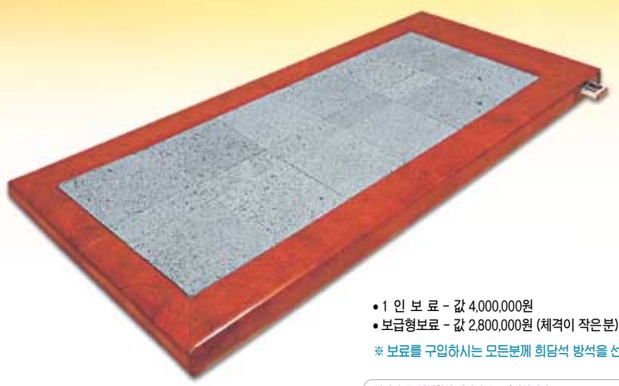
한 여름이었다. 두루마기를 머리끝까지 둘러쓰고 웅크린 채 잠을 청했지만 그저 선잠일 뿐 달려드는 모기떼 때문에 일어났다 누웠다 할 따름이었다. 초롱초롱한 여름밤의 별들이 논가의 빈 집 마루청에 누워 있는 그를 향해 쏟아져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멀리서 이따금 컹컹컹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여름밤 새벽 빈 집 마루청엔 으스스 한기가 스며들었다. 모기떼에 뜯기다 못해 그만 일어나 이리저리 잡초 우거진 마당을 왔다갔다 하다 그는 무작정 걷기로 했다. 이따금 들리는, 컹컹컹 개 짖는 소리를 뒤로 하고 마을을 빠져나와 신작로를 따라 걷고 걸었다.

뿌우옇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목탁을 두드려 한 웅큼씩 받아놓은, 몇 됫박 안되는 걸망 속 쌀이, 축 늘어진 걸망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시물(施物)은 무서운 것, 무엇보다 소중한 것, 그리고 시물에는 아무런 상(相)이 없어야 한다는 것,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야말로 참다운 보시라 할 수 있는 것, 그래야만 주는 자와 받는 자, 시물이 함께 청정해 진다는 것. 그는 그렇게 배웠다. 하루 이틀, 터벅터벅 걸어 김천 부근에 이르렀다. 김천은 직지사란 큰 절이 있는 고장. 거기에 들러 구경도 하고 하루 쯤 쉬어갈 요량이었다. 뜨거운 한 여름 햇살이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개울을 만나면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느티나무 큰 그늘을 만나면 땀을 식히며 쉬기도 하고 마을에 들러 목탁을 두드리기도 하고, 운 좋으면 농부들 틈에 섞여 새참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김천 부근에 이르렀다.

■ 봉화 청량사 주지


천년을 이어 가는 생명의 잠자리!!!

부모님께 활력을!!! 후손에게 가보를... 대를 이어 전하세요.



• 1 인 보 료 - 값 4,000,000원
• 보급형보료 - 값 2,800,000원 (체격이 작은분)

※ 보료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희담석 방석을 선물로 드립니다.

희담석 보료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희담원석 중에서 원적외선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였기에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아도 생명에너지가 그대로 투과되므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고 지병 등이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희담석 찜질팩

그냥 사용하셔도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출됩니다



[이럴 때 사용해 보세요]
- 근육통, 어깨 결림, 오십견, 척추디스크 및 교통사고 후유증등으로 찜질을 원하시는 분
- 야간근무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등

희담석 찜질팩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통상 렌지에 데우거나 끓는 물에 끓인 후 수건이나 헝겊에 싸서 사용하지만 희담석의 모든 찜질팩은 찜질 부위에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 주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 희담석 허리 찜질팩 값 44,000원
▮ 희담석 어깨 찜질팩 값 66,000원
▮ 희담석 찜질팩 값 38,000원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22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 민속박물관에서 손재주 길러요

## 전통놀이 · 공예 등 겨울방학 프로그램 14개 마련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겨울 방학.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마냥 게을러지기 쉬운 기간이기도 하다. 이럴 때를 평소에 하기 어려운 민속체험을 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더없이 보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다. 게다가 엄마 아빠와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하다보면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어린이과 부모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린이 민속교실' '민속마을여행' 등 다양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는 시각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없던 사람들을 위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할머니 손녀 공예교실'과 '엄마와 함께 민속박물관 여행' 등은 함께 만들고 배우면서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할머니 손녀 공예교실'에서 평소 쉽게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들은 윷과 윷판, 연을 만들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다. '엄마랑 나랑 민속박물관 여행'은 어린이와 부모가 전통 의식주 생활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손으로 느끼는 민속교실 △풍물놀이 체험 △병아리 민속교실 △우리문화 한아름 △전통지화 교실 등도 관심을 끈다.(02)3704-3114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솟대 만들기 삼매'에 빠진 아이들. 국립민속박물관은 2005년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민속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택견 실력을 겨루는 청소년들의 모습(위)과 엄마와 함께 색종이 상자를 만드는 청소년.

**민속박물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일시 |
|---|---|---|
| 손으로 느끼는 민속교실 | 전시물 감상, 탈춤 풍물 배우기 | 1. 11~2. 1 |
| 풍물체험교실 | 장고, 민요 배우기, 공연 관람 | 1. 6~7 |
| 병아리민속교실 | 전래동요 및 구연동화 관람, 실뽑기 | 1. 17~2. 25 |
| 엄마랑 나랑 민속박물관여행 | 의식주 관련 이론+체험학습 | 1. 17~19, 24~26 |
| 우리문화한아름 | 도자기 탈 솟대 지승공예, 전지공예 학습 | 1. 12~14 |
| 어린이민속교실 | 전통놀이감 만들기(대나무 소리통, 제기) | 2월 일요일마다 |
| 가족과 함께 박물관 나들이 | 민화, 전래놀이, 지공예, 옛 책 관람 | 1, 2월 일요일마다 |
| 할머니 손녀 공예교실 | 윷, 윷판 만들기, 연날리기. 세화 그리기 | 2. 8~10 |
|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민속교실 | 설 대보름 음식나누기, 민속문화체험 | 1월 30일 등 |
| 전통지화 교실 | 지화 만들기 | 1. 6~2. 17 목요일마다 |
| 박물관과 함께 하는 민속마을여행 | 서산 박첨지놀이 현장체험 등 | 2. 22~24 |
| 저소득층 청소년과 함께 하는 민속교실 | 박물관 영상물 시청, 민속문화 체험 | 1. 10~2. 17 |
| 아빠, 엄마도 함께 해요 | 박물관 영상물 시청, 특별전 관람 | 1. 6, 7일, 2. 14~19 |

## 전시

### 열쇠와 자물쇠의 문명사

#### 쇳대 박물관 '세계의 열쇠' 展



세계의 열쇠전에서 선보이는 동물모양의 열쇠와 자물쇠들.

19세 철물점 점원에서 시작해 서울 강남에서 최가철물점을 운영하며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해 지은 쇳대박물관(관장 최홍규). 서울 동숭동 쇳대박물관은 12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국 전통 자물쇠는 물론 동물 형상을 가진 중동, 프랑스, 이탈리아의 열쇠등 세계각국의 자물쇠를 엄선한 '세계의 열쇠전' 특별전을 개막했다. 실용공예품이자 주술적 물품 혹은 권위의 상징으로 쓰였던 자물쇠들의 문명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02)766-6494

### 옛날옛적 선조들에게 바다는…

####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 '한반도와 바다' 展



서울 한복판에서 바다를 만난다.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꿈과 환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12월 5일부터 2005년 2월 14일까지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한반도와 바다' 전시회.

이번 전시회는 바다를 무대로 한 우리 민족의 해상교류와 바다 사람들의 생활상을 담은 그림, 장보고의 근거지인 청해진 유적 출토 유물들, 바다 풍경 사진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02)6000-4325

바다위에 신선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담은 백은배 作 '해상군선도'.

### 과거로 떠나는 신나는 만화세상

#### 부천만화정보센터 '추억의 만화' 展

"엄마 아빠와 함께 추억 속의 만화 주인공을 만나요."

부천만화정보센터는 12월 16일부터 2005년 1월 30일까지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호피와 차돌바위(67년)' '77단의 비밀(78년)' '전자인간337(77년)'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77년)' '똘이장군(79년)' 등 60~70년대에 제작된 한국 애니메이션 작품을 상영하는 '추억의 만화전'을 열고 있다.

'홍길동'의 후속편으로 제작된 '호피와 차돌바위'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며, 태권소년 마루치 아라치와 파란해골 13호의 대결을 그린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는 당시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최고의 히트작이다. 이들 6개의 작품은 20분 내외로 편집돼 전시기간 동안 오전 11시~오후 4시 반복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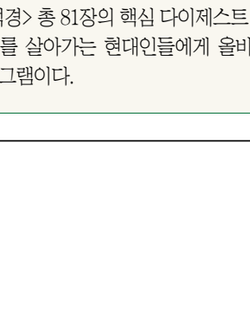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입장료는 어린이 1500원, 어른 3000원.(032)320-3745




1970년대 최고 히트작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의 포스터.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불교 다이어리북

향을 싼 종이에서 향기가 나듯, 불교 다이어리북에서는 부처님의 지혜가 솔솔 묻어나온다. 매일 음력, 간지, 불교명언 등이 소개되고 절에 가는 날이 표시돼 있는 불자 신행생활의 필수품. 100부 이상 주문하면 단체명 인쇄도 가능하다. 가격은 7천원.(02)732-1520



###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0일 12:20 뮤직펀치
21일 09:05 차한잔의 선율
22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23일 10:05 BBS신행상담실
24일 09:05 거룩한 만남
25일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26일 10:00 송년특집 '라디오법회'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0일 07:05 명상음악산책
21일 17:30 특선다큐멘터리
22일 12:00 아미타경 특강
23일 12:00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24일 20:30 영어법문 디스커버링 부디즘
25일 16:40 부처님경전이야기
26일 19:40 역사드라마 '제왕의 길'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김병조의 다시 듣고 싶은 노래(12월 25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명심보감'이란 코너도 마련돼 있다.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12월 23일 오후 1:10~2:00) 정신문화연구원 김형효 교수의 <도덕경> 총 81장의 핵심 다이제스트 강의. <도덕경>을 통해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다.

## 극장가



**서바이빙 크리스마스** / 코미디 / 90분
**개봉예정일**: 12월 24일
**감독**: 마이크 미첼
**출연**: 제니퍼 모리슨, 우도 키어 등
**등급**: 12세 이상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기 싫어 옛집을 찾아 나선 드루(벤 애플릭 분). 어렵게 도착한 옛집에서 회목한 발코 가족을 만나고 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동안 25만 달러에 가족을 사겠다는 솔깃한 제의를 한다. 발코 가족은 드루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때부터 좌충우돌 크리스마스 해프닝은 시작되는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 / 애니메이션 / 119분
**개봉예정일**: 12월 23일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등급**: 연소자 관람가
마법과 과학이 공존하는 세계 '앵거리.' 하울을 짝사랑하는 황무지 마녀는 하울과 소피의 사이를 오해, 주문을 걸어 소피를 90세 노파로 만들어 버린다. 낙심한 소피는 가출을 하고 황무지를 헤매다 결국 하울이 사는 성에 하녀로 낯선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하울이 사는 이 거대한 성에는 과연 어떤 모험과 사랑이 펼쳐질 것인가?



**여고생 시집가기** / 코미디 / 90분
**개봉예정일**: 12월 23일
**감독**: 오덕환
**출연**: 임은경, 은지원 등
**등급**: 15세 이상
용하다는 부채도사의 점괘에 따르면 만 16세 전에 결혼하지 못하면 하루 아침에 죽을 운명을 타고난 평강(임은경 분). 그 날부터 평강의 식구들은 딸의 처녀귀신 팔자를 면할 '온달사냥'에 열을 올린다. 평강이 16살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온달(은지원 분)은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행 여행 가방을 꾸리는데….

## 게시판

### 공부합시다

**겨울방학 청소년 특강** 구로청소년수련관은 2005년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청소년 겨울방학 특강을 마련했다. △놀이친구! 노리야(1월 5~26일) △해리포터 미술교실(1월 4~25일) △우리 생활 속의 과학 이야기(1월 5~26일) △고무동력기 만들기(1월 5~28일) △카프라 교실(1월 7~28일) △방학숙제해결 독서감상문(1월 7~28일) △우리집 귀여운 테디베어(1월 4~25일) △생활 속의 아름다움 토피어리(1월 6~27일) △어린이 난타(1월 5~26일) △신체발달과 리듬 오카리나(1월 7일~2월 11일) 등.(02)838-1318

**연말강좌** 민예총 문예아카데미는 12월 27~30일 박노자, 강정구 교수 등을 강사로 한 연말강좌 '2005 세계는 어디로'를 연다.(02)739-6854

**성장장애 무료강좌** 대전 을지대병원은 12월 22일 오후 3시 병원 3층 범석홀에서 2004 어린이 성장장애 무료강좌를 실시한다. 소아과 최미연 교수가 '정상성장과 성장장애의 의학적 이해'와 '건강한 어린이를 키우기 위한 영향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042)259-1000

**겨울방학 문화프로그램 개설** 김포 문화의 집이 테라코타 체험, 미술공작 체험, 신비한 과학이야기, 문화유산답사 등 8개 강좌를 내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수강료는 과목에 따라 1만~2만5000원.(031)980-5183

**컴퓨터 무료교육** 서산지역 대산중학교, 대진중학교, 인지중학교, 가사초등학교 등 11개 초 · 중 · 고등학교에서는 2005년 1월 10~21일 관내 농어민 정보화를 위한 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인원은 320명. 신청은 시청홈페이지(seosan.chungnam.kr)로.

### 함께 해요




**희망나눔음악회**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부는 12월 22일 화순 전남대학병원에서 암투병 환자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캐롤 등을 들려주는 음악회를 개최한다(사진).(062)234-6602

**무료 썰매장 개장** 강화 선원사는 12월 25일 오전 10시 성탄절 기념 겨울방학 무료 썰매 및 스케이트장을 개설한다. 썰매장은 매해 연꽃축제가 열리는 연꽃지를 이용해 조성된다.(032)933-8234

**리더십 캠프** 진각종 포교부는 2005년 1월 5~7일 경주 산내연수원에서 제1회 자성동이 리더십 캠프를 연다.(02)913-0136

**장애 · 비장애아동 통합학교** 영주시 장애인복지관은 2005년 1월 10~21일 겨울 방학맞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통합학교를 개설한다. 초등학교 4, 5학년생 10명 대상.(054)633-6415

**한방 무료진료** 서울 금천노인복지관은 12월 24일 오전 10시 복지관 1층 건강상담실에서 한방침구과 무료진료를 실시한다.(02)804-4058

**어린이 수련회** 대구 삼보사 2005년 1월 5, 6일 순천 송광사에서 '선체조와 참선'을 주제로 한 어린이 중고등부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053)768-5220

**갯벌생태학교** 부산 열린수련교실은 12월 31일~1월 4일 경남 남해에서 초등학생 대상 갯벌생태학교를 연다.(055)862-8799

### 즐겁게 떠나요

**강화 답사** 국학연구소는 12월 22일 강화 석모도 보문사, 고인돌, 고려궁터, 역사박물관을 둘러보는 답사를 떠난다.(02)434-3030

### 20면 상식 퍼즐 정답

| | | | | | | |
|---|---|---|---|---|---|---|
| 화 | 문 | 석 | | 모 | | |
| 탕 | | 탑 | 골 | 공 | 원 | |
| 지 | | | 목 | | 맨 | |
| 옥 | 새 | | | | 쇼 | 핑 |
| | 마 | | 대 | | | 퐁 |
| | 을 | 미 | 사 | 변 | | 외 |
| | | 화 | | 수 | 표 | 교 |

신행수기

# 줄탁의 인연에 대한 기억 〈상〉

한인숙 (원주시 가현동)

**한 세계를 깨는 건 언제나 위험하다. 그리고 그 세계가 왜 깨졌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세계를 깨치고 나가야 함을 모른다는 것은 더 위험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절은 오대산 북대에 있다. 북대사. 선방인 이곳을 알게 된 것도 고3때 만난 스님의 덕이다. 인적이 없는 적막함도 마음에 들지만, 그 길로 가는 곳곳에 있는 자작나무를 나는 사랑한다. 백석시인은 맑고 정갈한 나무, 갈매나무를 생각하곤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있어 하얗게 빛나는 나무는 자작나무이다. 북대 오르는 길의 자작나무는 여느 길의 자작나무와는 다르다. 몇 백 년 묵은 것이 많고 여느 것보다 좀 붉다. 황금빛이 돌기도 한다.

세상에 내려오면 마음이 맘 같지 않을 때가 많다.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싸우기도 한다. 이렇게 내 마음이 깨어질 때, 난 조용히 빛나던 그 자작나무를 떠올리곤 한다.

몇 백 년 동안 자신을 벗겨내며 키워 가는 자작나무 앞에 서서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의 세상을 깨야 하는지를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아직 그 자작나무를 모를 때쯤에 깨어진 세상 앞에서 아파했던 나의 기억들을 이제는 풀어야겠다.



그림 · 문병성

## 몰아치는 눈 맞으며 정암사에 도착
## 눈물 뚝뚝 흘리며 "스님이 되고 싶어요"

### 첫 번째 기억

아직도 내 기억 속엔 회색 체크무늬 교복치마 위에 단정한 넥타이를 맨 까까머리 여자아이가 거울 앞에 서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는 거울인데, 거울 속에는 아직 18살의 내가 언뜻언뜻 보인다.

벌써 4년이 지났음에도 내 머릿속의 일부분은 그곳에서 떠나오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불교와의 첫 만남이 아니었을까.

쾌청한 날이었다. 분명 5월의 평일 중 하루였다. 여느 때였다면 학교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할 시간인데 내가 왜 그날 조퇴를 했는지, 집에 돌아와 장농을 열고 겨울옷을 정리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는다. 겨울옷을 정리하다, 마루로 나왔고 내리쬐는 따스한 봄 햇살 속에서 나는 그저 무심하게 내 머리카락을 저경저경 잘라냈을 뿐. 거울 앞에 앉아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은 가위 놀리는 소리와 한번에 잘리지 않던 한 무더기의 머리카락 밀리는 뭉툭한 감각이 다다. 자른 머리카락을 어쨌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머리를 자르고 미용실에 가서 밀수 있는 데까지 밀었다는 기억 뿐이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나는 까까머리였다.

이때의 기억은 분명치 않다. 머리 자른 상황에 대한 기억은 아무리 꺼내 보아도 이것이 다다. 다만 조금 더 생생히 남아있는 것들은 까까머리가 된 다음의 기억들이다. 당시 그나마 학교에서 우등생이던 내가 저지른 어이없는 일에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었고, 정학이란 말이 오르내렸다는 것과 말 한마디 없던 어머니께서 누워있던 나의 민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감촉, 친구들의 시선들, 그런 것들뿐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건, 이제 나도 그 때의 나 자신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탓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분명 떠나겠단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듯하다. 수녀원을 생각한 듯한데, 겨울옷을 정리하면서 떠나려는 마음을 내리누르려고 머릴 잘랐던 것 같다. 5월의 신록 속에서 그렇게 떠나버릴 듯한 마음을 머리카락을 밧줄 삼아 내리눌렀던 것 같다. 그때의 날아오를 것만, 금세 떠나버려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은 마치 '대지의 봄이 오는 듯한 알 수 없는 기운들의 충만 상태' 였다. 팽팽한.

지나고 나서 생각하건대, 이 때의 까까머리는 의도했던 것이건 아니건 간에 내가 불교라는 진리에 다가서기 위한 첫발이었으리라.

### 두 번째 기억

휘몰아치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휘날리던 눈. 한없이 몰아치던 그 바람. 나는 적멸보궁으로 가는 돌다리 중간에 서서 다리 밑에 서 있는 나무 사이로 떨어지던 눈의 군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전 스치듯 나온 이 때의 만남에 대해 스님이 젖은 신발만을 기억한다고 했다. 아마도 나는 그때 정암사까지의 진눈깨비 길을 한 시간 남짓 걸었었나 보다.

그리고 수마노 탑에 올랐다. 초등학교 때 딱 한번 와봤던 이곳에 온 건 의지가 아니라 발길이었고 탑에 먼저 오른 것도 발길이었다. 탑 앞에 서서, 함백산 골짜기 골짜기에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죽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왜 내가 행동에 옮기지 못했는지는 모른다.

나는 내려왔고, 적멸보궁 가는 다리 위에서 눈을 보고- 나는 그때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섰다가 스님 한분을 만났다. 지나칠 수도 있었건만 나는 스님을 따라 차를 한잔 마시며 불쑥 던진 말이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목 메인 말과 떨어지던 눈물 방울방울.

이 때가 열 아홉 살의 겨울이었다. 성적표를 받아들고 며칠 밤을 울며 지새우고 찾아갔던 곳이 정암사였고, 어떤 의도도 없이 갔던 그곳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났다. 스님이 되고 싶다는 내 말에 선뜻 내 앞에서 비구니 스님께 전화해서 학생 하나 맡겨도 되겠냐고 묻던 스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

그리곤 전화를 놓고 차 한잔이 식어갈 즈음, "어머니 허락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하시던 스님의 말에 "하루만"하고 내려오던 기억, '어머니께 말은 하고 와야지, 딱 하루만 더 머물자' 하며 산사에서 내려오던 기억이 자리한 시간, 고3의 겨울. 그러나 난 다시 가지 못했다.

열 아홉, 내가 부딪친 절망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굳건했던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붕괴였고, 다른 하나는 가난이란 현실이었다.

나는 내가 시험에서 실수하리란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수능 시험에서 요행수를 바라지도 않았고, 애들처럼 떨지도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리만치 담담했다. 난 언제나 내 실력만큼의 줏대를 가지고 확신을 세웠으며 나 자신을 믿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고 가채점에 들어가서 성적을 미리 짐작했음에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닥쳐올 날들에 대해 무방비 상태였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순간, 현실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당연하듯 웃음이 흘렀고 시간은 갔으며 나 대신 다른 아이 이름의 원서는 떠나갔다.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일주일 밤낮을 내리우는 나는 정지된 내 시간 속에 갇혀 버렸고 기면 상태에 빠져있는 듯한 날들은 계속됐다. (계속)

릴레이 수행일기 (下)



김상규
경원전문대 E-비즈니스학과 교수

## 기초교리 · 의식 익혀 법사과정 공부
## 염불삼매 체험으로 정화된 삶 얻어

심사숙고 끝에 부처님의 진자(眞子)로 삶을 이루고자 법사(法師) 행로에 대발심을 일으켰다. 법사학인 교육현관(敎育玄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처음 불문에 입문하기도 힘들었지만, 불법의 의식과정으로부터 기초교리를 차례로 익히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

그간 배우고 익힌 것을 실제 체험을 통하여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직접 체험과 삼매의 수행으로 연결시키고자 한 철야염불결사 기도는 기대 그 이상이었다. 아니 수행의 참맛을 알게 한 중요한 체험이었다.

심념, 정념, 염불, 목탁, 철야정진 등. 그중에서도 무더운 여름밤 철야정진은 내 생에 잊지 못할 일이었다.

한시 일분도 쉴 사이 없이 정진을 계속됐다. 전날 오후 4시 입제법회를 시작으로 해 2교대로 2시간씩 전원이 목탁 치며, 염불(나무아미타불) 수행을 했다. 참으로 잠시도 염불소리가 중단됨이 없이 다음날 오전10시까지 철야법회를 가졌다. 회향법회까지 잠은 자지 못했지만, 몸은 가뿐하고 정신은 맑았다.

나는 고성염불과 평음염불을 번갈아가며 마음자리를 정화했다. 4물의 음향소리에 맞춰 목탁작법과 염불소리는 참석자는 물론이고 듣는 이로 하여금 혼침과 번뇌, 업장과 미혹을 씻어내는 법음이 됐다.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미묘한 '쾌락법음' 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염불과 목탁의 동작은 한 박자 한 음향이 일체가 되어 동음으로 마음을 정화시켰다. 염불과 목탁의 동작은 그대로 무아경지에 들어 법의 음성과 혼연일치가 됐고, 몸과 소리와 동작이 한덩어리가 되어 작용하는 것을 느꼈다.

염불소리는 아미타부처님의 불력염불에 의해 무량광명을 비추었고 행하는 행법의 신심수행은 시심작불(是心作佛)을 행하는 심심법(甚心法)으로 발현됐다. 염불삼매 속에서 자신의 기도 원력의 경계가 그대로 부처님과 합일되어지는 현전삼매 체험을 느끼기도 했다. 나의 모습은 그대로 염불삼매에 들었고, 무아경지(無我境地)에 들면서 철야정진을 통하여 내 가슴속에 들어왔다. 그야말로 눈물과 참회, 내 삶의 허점들이, 그리고 이때까지 모든 삼악도(三惡道)에 허덕이는 나를 보는 순간 한없이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은 바로 참회의 감로였다.

내 몸속에 있는 악한 업보가 자꾸 엷어지고, 착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면서, 또 가정에도 더욱 착한 사람이 될 것을 다짐도 했다.

그 가운데서도 시간이 나면 법당에서 108배, 1000배 정진 기도로 나를 하심하며 다스렸고, 3시간여 동안 1000배의 절을 하면서 내 몸 속에 있는 '땀' 과 함께 '업' 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무언가 모를 힘을 느꼈다. 자신이 불법에 뿌리내리는 것과 느낌, 그리고 불교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인간 '정화(淨化)' 작업. 나는 정말로 불법만이 이 난세(亂世)를 바로 잡아 갈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을 절감했다.

이제 불교는 세계인의 미래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21세기 인류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에 걸맞는 교리, 사상이 바로 불교에 있다는 것이다. 아니 미래지식인들은 불교에서 그 가르침과 해법을 찾았고, 또 찾아야 한다고 이미 단언하고 있다. '불교에 내일의 행복이 있다' 고 말이다.

지금부터 시간을 더욱 많이 활용하여 성불하는 그날까지 초발심을 다시 가다듬어 꾸준히 불교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련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끝)


제42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뤄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12월 31일(금)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하얀마음선원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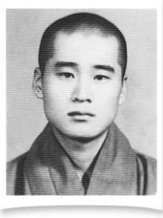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교 육 도 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 문의전화: 02)456-4994, 0035(팩스겸용),
http://cafe.daum.net/sorisan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빕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재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효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한번 래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TEL. 031)376-2748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관상학. 기문둔갑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쪼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 차 한잔으로 연말을 따뜻하게…



잦은 술자리로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는 연말이다. 이럴 때 친구나 가족, 이웃과 차 한 잔 나누며 한 해를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동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차 마시기를 주저해 왔다면, 다예랑다도원 김미려 원장(57 · 사진)의 '다예랑 생활차 간편다법'을 배워보자. 집이나 직장에서 쉽게 차를 즐길 수 있음은 물론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이웃들에게 부담 없이 차 한 잔 공양할 수 있을 것이다. 김원장은 경기도 박물관 대학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차를 강의하고 있다.

## 생활용품 이용 간편하게…1분 호흡 횟수로 우리는 시간 가늠

**▷ 차 마시기 전에 준비할 것**

간편다법은 번거롭지 않게 차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차를 맛있게 우리는데 꼭 필요한 과정만을 정리한 것이다. 때문에 다기를 준비할 때 다호(차를 담는 통)가 없을 때는 차통을, 다포(다기 밑에 까는 천)나 다건(다기의 물기를 닦는 천) 대신 테이블 냅킨이나 휴지를, 차칙(찻숟가락) 대신 티스푼을 써도 된다.

차는 1인분이 2g, 물은 50cc 정도가 적당하다. 찻물의 온도는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가늠할 수 있다. 끓는 물을 부은 후 한 김 빠져나간 후의 온도가 80℃ 정도다. 1인 다기를 사용해서 차를 마실 때는 첫 번째 물은 70℃, 두 번째는 80℃, 세 번째는 90℃ 정도로 물의 온도를 맞추어 우리면 마실 수 있다. 김 원장은 "자신의 호흡이 1분에 몇 번 정도인지를 알아두면 시계 없이도 차 우리는 시간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보통 성인 남성의 경우 1분에 16회, 여성의 경우 18회 정도 호흡을 한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잔이 있는 1인 다기**



1. 잔은 다기의 오른 쪽에, 뚜껑은 왼쪽에 둔다.
2. 다기 속에 적당량의 물을 부어 다기를 예열하고 물을 식힌다.
3. 김이 한 번 나가면(80℃ 정도) 다기의 물을 찻잔에 붓는다.
4. 2g정도 분량의 차를 떠서 다기에 넣는다.
5. 찻잔의 물(70℃ 정도)을 다기에 붓는다.
6. 다기의 뚜껑을 닫고 40초 정도 지나면 우려난 차를 잔에 따른다.
7. 물의 온도를 맞춰 3~5번 정도 우려 마실 수 있다.

**▷ 3인용 다기**



1. 숙우(물식힘 그릇)에 물을 따라 다관에 부어 다관을 예열한다.
2. 차를 우려낼 물을 숙우에 따른다.
3. 다관의 물을 잔에 골고루 따라 잔을 예열한다.
4. 다관에 6g정도의 분량의 차를 넣는다.
5. 숙우의 물을 다관에 부어 차를 우린다. 찻잔에 담긴 물은 퇴수기에 버린다.
6.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우린다. 차는 농도가 고르게 하기 위해 세 번에 나누어 번갈아 가며 따른다.
7. 찻잔을 차탁(찻잔받침)에 얹어 손님에게 건넨다.

# 녹차 영양소 직접 마시자

이제 차를 '마시는' 단계를 넘어 녹차에 함유된 영양소를 직접 '먹는' 시대가 왔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녹차의 주성분을 쉽게 섭취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미국 등에서 상품화가 이루어진 테아닌(L-Theanine)은 뛰어난 신경안정 작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테아닌, 신경안정작용 효과
## 아미노산류 중 함량 으뜸
## 과학적 입증…상품화 '꿈틀'



**▷테아닌이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녹차에 50여 종이 넘는 유기화합물과 각종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그 중 녹차의 맛에 깊게 관여하는 성분은 떫고 쓴 맛을 내는 카테킨류와 감칠맛과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류이다. 아미노산류 중 가장 함량이 높은 테아닌은 차의 독특한 풍미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테아닌은 녹차의 뿌리에서 글루타민과 에틸아민을 이용해 효소매체로 생합성 되어 잎에 저장되는데, 이것이 햇빛을 받으면 카테킨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테아닌의 화학적 구조는 1949년 밝혀졌고 발효공학에 의한 대량생산 기술도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식품첨가물로 지정됐다.

**▷효능은?**

최근 밝혀진 테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신경안정 효과다.

테아닌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쳐온 가톨릭의대 김경수 교수팀은 지난 10월 열린 '한국차학회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논문 'L-테아닌의 건강증진 효과'를 발표했다. 이 실험에서는 한 달 이상 피로를 느낀 30~55세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테아닌이 200㎎ 함유된 음료를 복용하게 했을 때, 알파파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교수는 "L-테아닌은 암기력 향상 및 집중력 강화, 긴장이완 등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녹차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속설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다.

이 밖에도 테아닌은 녹차의 카페인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집중력 강화와 긴장이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화 현황**

최근 들어 원료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다이요(太陽)화학사는 1988년 '선테아닌'이라는 이름의 테아닌 제품을 선보여 불면과 초조, 긴장 등을 풀어주는 이완음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테아닌을 사용함 음료나 과자류 등도 잇따라 발매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면보조제나 다이어트, 미용 제품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주식회사 CJ는 테아닌을 함유한 음료 '스팟'을 출시해 골퍼와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벤처 회사인 '프로토 랩'이 최초로 테아닌 성분을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 허창욱 박사는 "테아닌은 녹차를 녹차답게 만드는 정수(精髓)"라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테아닌의 효능 덕분에 수행자들이 차를 즐겨 마셨고, 이 것이 차가 '정신적' 음료로 기능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고 강조한다.

테아닌 대량생산 체계를 갖춘 프로토 랩은 현재 테아닌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반 제품으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남북국시대 ③

## 해인사 등 창건… '차도' 사찰 중요 위치 차지

왕공귀족과 스님들이 당나라와 일본에 왕래하게 되었고 이들로 인해 차 생활이 한층 다양화되고 대중들에게까지 깊이 퍼졌다. 대렴이 차를 가져다 심었다는 것은 중국종의 차를 가져왔다는 것이지 차는 그 이전부터 생활 속에 있었다. 혜철 도의 혜소 체증 무염 스님 등이 돌아와 선종(禪宗) 체계가 크게 번창하고 차도 사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육우가 <다경>을 남기고 선다승 회해(懷海)가 '백장청규'를 만들어 후세 사찰의 규범이 되었다. 다세문제로 인해 감로의 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유, 장우신, 이덕유, 노동, 백거이 등의 차인들이 출현했다. 일본도 최징, 공해, 자각 스님 등이 당에서 돌아와 사찰을 건립하고 차를 보급했다고 한다. 한중일 삼국이 서로 교류하여 차문화도 한층 발전한 시기다.

① 중국 사신으로 다녀 온 대렴이 차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었다. <삼국사기>

② 속성은 김씨. 837년에 정육, 허회 등과 당나라에서 수학 후 귀국해 가지산 보림사에 주석했다.

③ 무염국사의 대낭혜선사비문에 차에 관한 말이 나온다.

④ 백장회회 선사가 만든 사원의 청규로, 후세의 거의 모든 사찰의 규범이 되었다. 그리고 사원에 차를 심게하는 등 '다공삼보(茶供三寶)'를 주장했다.

⑤ 당대 문인으로 대종 때 재상이 되었다. 차를 좋아해서 해산천의 물을 길어 차를 달인 이야기는 유명하다.

⑥ 왕애(王涯)는 여섯 임금을 모신 재상으로 각다법(榷茶法, 차에 부과하는 세법)을 시행하다가 감로의 변(과세에 항거한 민중 봉기)로 죽었다.

⑦ 대종의 정풍운동으로 사찰 4만여 곳이 문을 닫았고 26만의 스님이 환속했으나 선종에서는 백장청규의 시행으로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

⑧백거이는 당대의 시인이고 차인이다. 선교(禪敎)에 가깝게 되어 선승들과 교유해 깊은 경지에 이르렀고, 차에 관한 수십 편의 시를 남겼다. 유명한 비파행에도 차 얘기가 나온다.

⑨ 최징은 천태종을 일본에 펼쳤고 차를 심었다고는 하나 확실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차아 천황과의 차 이야기)

⑩ 공해는 최징과 입당하여 공부하고 귀국할 때 중국의 차씨와 다기, 다서 등을 가지고 왔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 | 한 국 | 중 국 | 일 본 |
|---|---|---|---|
| 남북국시대 | 802 해인사 창건<br>810 김헌장(王子)이 당에 금은불상과 불경을 바침<br>814 혜철(慧徹)의 입당<br>816 승려 26명과 재가자 300여 명이 도일(渡日)<br>821 도의(道義) 귀국(남종선)<br>826 실상사(홍척의 귀국)<br>828 대렴(大廉)의 차심기 ①<br>장보고의 청해진<br>830 혜소의 귀국<br>840 체징(體澄)의 귀국 ②<br>844 보림사 석비에 '다약(茶藥)'이라 써 있다<br>845 무염(無染)의 귀국 ③ | | |
| 당대 | | @백장청규 ④<br>@맹교, 원진<br>804 육우 사망<br>@한유의 <천명록(?茗錄)><br>821 차세 60만과<br>825<br>다선수기(장원)<br>국사보(이조)<br>이덕유의 활동 ⑤<br>835 각다법(왕애)<br>감로의 변 ⑥<br>841 차세 증가(최기)<br>845 배불정풍운동 ⑦<br>846 백거이 사망 ⑧ | |
| 헤이안시대 | | | 805 최증의 천태종 ⑨<br>@공해(空海) ⑩<br>811 농민들에게 식어가무(食魚歌舞)를 금함<br>815 영충(永忠)의 차 헌상, 차나무 심기 권장<br>@신라 역어(譯語) 설치<br>830 자각(慈覺)이 차나무를 심음(植茶) |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두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초종파적 인재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교계최초로 출가득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출가자(행자)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교의 제반의식과 경전강의및 특강반을 개설하여 유명 강사진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출가자(행자)과정 - 출가득도를 희망하는 남 · 여(1년)
▶ 경전연구자 과정 - 스님및 교임, 관심있는 불자(1년)
▶ 의 식 과 정 - 초심자, 불자, 법사, 교임, 스님(1년)
◎ 기본반 : 4개월(월,화) ◎ 전문반 : 4개월(수,목) ◎ 연구반 : 4개월
▶ 의 식 과 정 -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지도함
◎ 바라반 - 바라춤에 관한 일체를 집중 지도함
◎ 착복반 - 다게 도량게 사방요신등 일명 나비춤 을 집중 지도함
◎ 사물반 - 목탁 요령 태징 법고등 사물다루는법 지도
※ 그 외 호적, 서예, 생활역학 등을 희망하시는분 직접 지도해 드림

2 장 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 02)763-5213
( 기숙사및 숙식 가능함.주차장 완비)

3 개강일자 2005년 1월 3일 오후 4시(예정)

4 모집방법 서류전형및 면접(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보우승가대학 학장 월봉 합장

# 둘로 보지 않는다면 모든 고가 그냥 무너져



그림 · 최주현

우리가 마음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참 요상한 놈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요상한 놈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요상한 게 아니라 마음내는 게 요상하겠죠.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뜻대로 몸은 육근, 육경, 육식이라고 합니다만 그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색에 들고 색은 의식에 포함돼서 항상 밝게 어떠한 생각, 어떠한 거든지 다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식이 빠진다면 송장이 되겠죠. 그래서 오관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원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을 아는 거, 몸뚱이의 부딪침을 아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불었으니깐 있으려니 생각합니다만 그 다섯 가지의 문제는 객관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 상 행 식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색의 뒷받침.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성행(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은 눈대로 소임을 가지고 있고, 귀는 귀대로 소임을 가지고 있고, 코는 냄새 맡는 소임을 가지고 있고, 혀는 맛을 아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고 몸에 부딪치는 그놈은 바로 경계를 소임으로 맡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이는 데 색으로만 소임을 맡는 게 아닙니다. 즉 대기권을 지킨다 이겁니다. 레이다망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알게 통신을 하고, 모든 면에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들어온다고 소식을 통하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혹성도 대기(大氣)가 있으니깐요. 그런 소임을 맡았기에 코는 음식 냄새만 맡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지 않은 냄새, 썩은 냄새 또는 구수한 냄새도 잘 맡아 들이는 소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소임을 가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심 속에서 무의 세계를 맛보는 소임 말입니다. 만약에 천차만별의 그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한다면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망할 것입니다. 품목에 따라서 자리를 올바르게 구해야 하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도 냄새를 필요로 합니다. 그 소임이 다 포함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눈의 소임은 색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에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이치와 모든 결단을 내리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심안입니다. 심안으로서 심안의 그 의식의 작용이 바로 육의 눈으로 줘야만이 이 심안과 육안이 동일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색의 소임만 가진 게 아니라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한 양면을 다 안고 판단을 내리는 소임을 가졌단 얘깁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마음의 귀로 들어서 동시에 같이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제각기 판단이 아닙니다. 다섯 놈이 합심해서 하나로 돌아가면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왜 마음이 요상하다고 하느냐 하면, 나쁘게 생각할 수 있고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나쁜 일을 하게도 하고 좋은 일을 하게도 하고, 즉 말하자면 육신의 모든 식들의 집합소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하나의 안을 내세울 때에 비로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좋은 것이지 이것저것이 제각기 흩어져서 제가끔 생각을 낸다면 도둑질도 하게 하고 나쁜 일도 하게 하고 또는 '나'라고 나서서 마음을 혼동시킬 겁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그렇게 시키는가 하면 항상 얘기하듯이 여러분의 몸속에는 자생중생들이 있습니다. 자생중생들이란 천차만별의 업식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화나게 하고 에고를 닥치게 하기도 하고 병고도 걸리게 하고 영계성에 시달리게 하기도 하고 세균성에 시달리게 하기도 하고 또는 윤회성에 시달리게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업보가 바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여러분의 몸속에 지금 도사리고 있으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 대로 그 업식은 그림자처럼 따라서 짐승을 보고도 사람인 줄 알고 좋다고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업식과 차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다시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도 사람으로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는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립니다. 빌린단 말입니다. 빌려서 자기 영혼의 근본이 자기를 형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를 형성시켜서 자기의 집합소로 만드는데 집합소는 '여래'의 집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생중생들의 집합소!

그러나 여래의 집은 자생중생들의 집합소만 되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모두 천차만별로 돼 있는 만물만생의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여래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래의 집이기도 하면서 관리인이기도 하고 주인의 심부름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생각 잘못으로 그림자처럼 짊어지고, 무겁지 않은 걸 무겁게 짊어지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49년 설하고 가르쳐주신 것은 업식에서 나오는 대로 속지 마라. 한마음으로 너 아닌 게 없다고 믿어라. 네 오장육부, 즉 네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이 너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너 아님이 없다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고가 그냥 무너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물질세계의 50%에서는 컴퓨터를 놓고 입력을 해서 쏩니다만 우리 인간에게는 숙명통이라고 이름하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행하는 거와 말하는 것 할 것 없이 모든 천차만별의 행이 전부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입력이 되는 것은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에 모든 천차만별의 생활은 바로 가설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 쓰고 행하고 말하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우주간 법계에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주간 법계에 입력이 됩니다. 모두가 돌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남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남이 모르게 행을 하고, 나쁜 행을 했든지 좋은 행을 했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가설이 돼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통신이 되고 또는 삼천대천세계에 바로 직결이 돼서 법계에 통신이 되니 어찌 천당 지옥이 저기 먼데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나간다면 천당을 가져올 것이고 잘못 다스리면 지옥을 가져올 거는 뻔한 이치입니다. 모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기만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조놈' 하고 밉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쪽에서도 '요놈' 하고 밉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스스로 내 탓으로 돌리고 '이 세상에 내가 났으니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나지 않았다면 상대가 있겠는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게 내 탓이로다.' 하고 내 탓으로 돌려놓고 참회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서 둘로 보지 않고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야 할 텐데 남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고 우주간 법계에 일체제불의 마음도 미움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슬기롭고 또 한생각 잘 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빠져 나오느냐, 한생각 잘못해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느냐. 웅덩이에 빠져서 세세생생에 허덕거리고 빠져 나오질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는 오늘에 받고 오늘에 하는 것은 미래에 받는다고 했지만 어저께도 과거요, 조금 아까도 과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따귀를 때렸더니 오늘 따귀를 때리러 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시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 까닭에 일체 만법에 천차만별로 돼 있는 문제들을 녹여야 하고 또 양식 먹는 법을, 우리가 먹는 법이다 하면 불상도 자기하고 둘이 아니고 자기 마음과 둘이 아니게 놔야 됩니다. 삼천 년 전에 계셨던 부처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시다 할지라도 그 육신을 믿지 말고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풀포기 하나 나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살림살이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남녀를 막론해 놓고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는 이 자체를 우리는 바로 알고 모든 것을 집어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걸 닥치는 대로 집어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모든 거를 닥치는 대로 집어먹되 걸리지 않게 집어먹어라. 체하면 막히고 막히면 죽는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재식법(齋食法)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 법재식이니 부처님이 가르쳐 준 뜻을 마음 내면에 새겨 놓고 내 몸속에 자생중생들을 한마음으로서 내 주인공에 맡겨 놓는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긴다고 했습니다.

둘째, 선열법이니 물질세계와 내면세계가 둘이 아닌 마음을 갖고 그 근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니 그것을 감사히 주인공에 놓는 것입니다.

셋째, 염식이니 일체 제불의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촬나에 내 마음을 통해서 나투니 이 또한 주인공에 감사히 놓는다.

넷째, 원식이니 행선, 입선, 좌선, 와선 이 모두를 한데 합쳐서 참선으로 돌려서 둘 아닌 행을 하고 체험하고 다스리고 나가는 것이니 주인공에 감사히 놓는 것입니다.

다섯째, 불식이니 일체 만물만생을 보살피며 내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 걸림 없이 여여하게 구족하니 이것을 일러 재식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정 살아나가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여러분의 법이며, 그 생활 자체가 생활이면서 참선이며, 바로 불법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캄캄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또 말하지만 계향 할 때에 마음의 계향이지 그것이 달리 이름의 계향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나에게 닥치지,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부딪침도 없고 닥칠 일도 없죠. 그러니까 모두 닥치는 대로 내 탓이다 하고 돌려놓아야만 미움과 증오를 녹일 수 있고 화목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데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에도 말로써 몸을 잡으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을 잡으려 하신다면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요놈의 자식, 왜 그런 짓만 하느냐?" 하고 자꾸 그러면 빗나가서 나중에는 큰 도둑이 되고 큰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에 환난이 생깁니다. 그러나 "애, 춥지 않으냐. 덥지 않으냐. 배고프지 않으냐. 어떻게 잤니?" 하면서 좀 지혜로써 따뜻한 말을 해주고 따뜻한 행을 해주며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마음과 마음을 전달한다면 자식과 부모라 하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마음이 통합니다. 따뜻하게 대해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면은 금방 바른 행으로 모두가 바뀌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30면으로 계속

**놓아라 하는 것은 바로 업식을 놓는 겁니다**
**놓으면서도 그대로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공했기 때문입니다**

# 모든 걸 닥치는 대로 집어 먹을 수 있어야

☞29면에서 계속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해 보고 또 한 번 생각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해서 나쁘게 돌아가는 것을 좋고 슬기롭게 고뇌와 병고가 없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습니다. 모두가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공기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살지 못하며 물 한 가지만 없어도 살지 못하며 불이 없어도 살지 못하며 흙이 없어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 바탕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네 가지가 바탕이 돼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아주 충만히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들은 분은 또 다시 듣겠지만 안 들은 분들은 잘 생각해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도 여러분은 마음의 관습에 의해서, 살아나오던 그 관습에 의해서 착이 떨어지지 못하고 습이 떨어지지 못하고 욕심이 떨어지지 못해서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얽매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은 그까닭입니다.

그 네 가지의 요소가 바로 에너지의 참 원소로 돼 있다는 사실을 모두 불신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렇겠죠. 있는지도 모르고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서, 닦는다는 이치는 바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놔라 놔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업식을 놓는 겁니다. 놓으면서도 거기다 말기고 그대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고정됨이 있습니까?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냄새 맡는 거나 몸이 움죽거리는 거나 가고 오는 거, 이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공했기 때문입니다. 공한 세계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를 잘 다스리고 나갈 수 있다면, 다스려서 놓고 어떤 애고가 있더라도 '애고가 없어지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놔 버려야 합니다.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는 데서 체가 있는 데로 나오는 거니까 바로 거기다가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유한은 육신이지마는 무한은 무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기복으로 전전하지 마시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물질세계에서는 물질세계에서대로, 무의세계는 무의세계대로 한 마음 한뜻이 돼서 전달을 하고 돌아가니 세세생생에 끊임없이 영원하더라 하는 이치를 아셔야 할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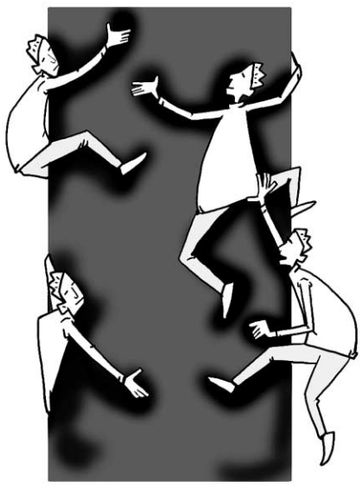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모두 닥치는 대로 내 탓이다 하고 돌려놓아야만 미움과 증오를 녹일 수 있고 화목 가져올 수 있어

▲질문자1: 사리 신앙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간혹 외국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다가 봉안하게 되었다는 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사리가 그렇게 많을 리도 없겠지마는 더욱이 진신사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지요.

▲스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픈 사람이 부처님을 청해서 가셨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픈 사람이 일어나려니까 "일어나지 마라. 네 마음이 내 마음을 알면 이 고깃덩어릴 보고 고깃덩어리가 일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과 마음이 통했으면 그걸로써 족하니라." 이러셨거든요. 꼭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는데 그 물질인 사리를 보고 전전해서 되겠습니까. 물질을 보되 부처님의 마음을 보라. 부처님의 마음을 봤다면 마음을 지녀라. 마음을 지녔다면 마음을 자비로써 여러 사람들과 뜰 아니게 베풀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찌 사리를 보고 찾겠습니까. 그리고 전전하고 끄달리겠습니까. 천리만리 사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리의 근본을 내가 지니면 그것은 껌데기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지혜로운 생각으로써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2: 감사합니다. 좋은 법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데인 것 마냥 물집이 잡혀 가지고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친정어머님이 제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스님: 저 나무들을 보세요. 뿌리가 영양제를 흡수해서 위로 올려 보내니까 저렇게 푸르르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간도 근본의 뿌리가 있어요. 영원의 근본이 뿌리라면 몸뚱이는 바로 저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의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나와 뜰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그 업식은 무너집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뿌리에서 주는 영양제를 먹고 살아야지 하고 거기다가 맡기고 뿌리의 주인공을 믿는다면 '너만이 나를 낫게 해서 끌고 다닐 수 있어!' 하고 맡겨 놓을 때에 진정코 그것은 한 순간에 해결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질문자3: 연일 이 장마철에 하필이면 오늘따라 날씨가 쾌청하고 또 제가 이렇게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삼법인(三法印) 중에 '제법무아(諸法無我)'라는 말이 있는데 제법에는 이름하여 붙일 것이 없다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법에 이름이 없다면 오늘 수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면 업은 어디에 붙은 것입니까? 저의 좁은 공부에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스님: 이 얘길 항상 합니다만 여러분이 찰나 아버지 노릇 하고 엄마 노릇 하고 자식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이러죠? 그런데 그렇게 찰나찰나 생활하고 돌아가되 찰나찰나 그렇게 많은 것이 천차만별로 돌아가니까 어떤 걸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함이 없이 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아버지가 될 때에 나라고 할 건가, 남편이 됐을 때에 나라고 할 건가, 자식이 됐을 때 나라고 할 건가. 나라고 할 것이 없이 틈새가 띄지 않고 찰나찰나 나투며 화해서 돌아가니까 나라는 걸 이름해서 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공했노라, 나는 없노라, 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노라, 나는 한 일이 없노라, 나는 여러분한테 설법한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그저 바퀴 돌아가듯 남편 노릇 했다, 자식 노릇 했다, 아버지 노릇 했다 하면서 돌아가는데 어떤 거 할 때에 남편이 했다고 그러고 어떤 거 할 때에 아들이 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니 나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자식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친구 노릇 하면서 여여하게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이러니 어찌 불을 게 없겠으며, 어찌 붙을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둘 중에 붙을 게 없다는 것은 공해서 없다는 거를 알면 붙을 게 없을 것이고 그저 천차만별로 바깥으로 끄달리고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내가 줬다' 하면서 나, 나, 나 이러고 돌아가면 그냥 매사에 걸려서 돌아가죠.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금새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되면 그대로 여여한 거고 어떠한 거든지 욕심 많이 내고 먹으면 체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걸려서 죽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소화가 잘되면 걸림 없이 돌아가고, 모든 걸 재료로 알고 실천을 해서 체험을 한다면 마음의 발전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고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창조력이 생기지마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내 걸려서 무심의 50% 정신세계는 모르고 물질세계만 알면 걸려서 못 삽니다. 지금은 정신세계가 아니라면 안 되는 법!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어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꼭 육으로 잡아먹어야 잡아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을 뺏어먹고 사니까 정신을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70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東熙스님
梵唄 作法 特講

• 일정: 1月 3日 ~ 22日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 장소: 동희범음회 연구소 및 慈忍寺
• 위치: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아리랑 고개 방향
도보로 5분 거리
(영화의 거리 테마공원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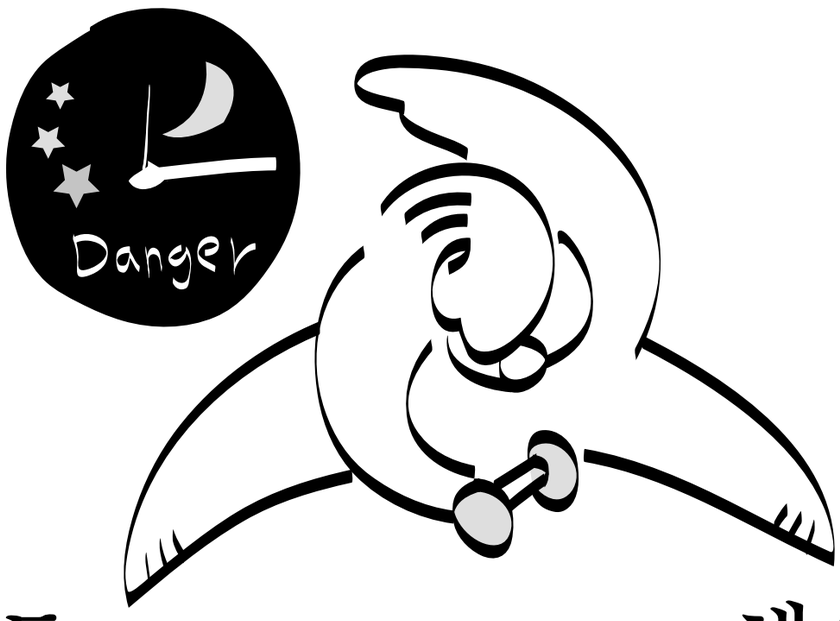
문의전화
02)923-8180 / 017-396-1644

당 하(茶)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절과 연골에 글루코사민 포르테
관절염 치료제 BDX-1(특허 제0429595호)
BDX-1은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총 10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활성평가 연구실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효능 및 독성실험 등 임상 실험을 거쳐 완료된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입니다.
2004년 4월 국내 특허를 획득(특허 제0429595호 :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관절염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하였습니다.
· 골관절염
· 통증을 감소 및 활동성 향상
· 관절손상 보호
· 항염증 작용
· 혈액과 관절에 쉽게 흡수되어 항염증, 진통작용
· 활동성을 향상
·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결석, 사고등으로 인한 관절계통의 상처 치유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포르테정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900mg 60정×2
"글루코사민 포르테"를 1개월만 복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3개월만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제이팜제약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성 명 서
무속인이 사암의 간판을 달고 불상을 모시고 굿당을 하고 있다. 무속인은 신명과 영신이 있다. 사암에서는 스님들께서 수계하고 불상을 모시고 수행정진하는 것이다. 무속인이 사암을 사칭하여 사월초파일에 등을 달고 하는 것은 불법이며 탈법이다 이점 인식하시고 무속인들께서 부처모신 불상을 치우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개신교 측에서는 불교를 미신이라고 타파한다. 불상을 모시고 신명으로 굿을 하니까 개신교 측에서 미신이라고 한다. 무속인은 본연의 행사를 하시고 부처님은 절의 스님들께서 모셔야 한다.
무속인들께서 이에 답변을 요망한다.
불교발전연구협의회 일동은 현재 미래에 문제점을 풀어가야 한다.
3차성명서에서는 이에 화답이 없을 시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다.
대표
상산 혜광 법광 혜만 법상 혜우 법행 우애
02-3442-6390




# 준비운동 충분히 하고 체온 유지 36~38도 중요

몸이 움츠려드는 겨울이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제철 채소 등의 섭취도 제한되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4계절 중 운동이 가장 필요한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실 박원하 교수는 "자기 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없이 운동에 대한 의욕만 앞세우다 보면 뇌졸중, 협심증 등의 질병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겨울철 운동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 겨울철 운동 이렇게 하세요

**▽몸 활성화된 낮 · 저녁시간 운동**

겨울이 되면 추위로부터 몸을 지키려는 생리작용으로 인해 뇌졸중이나 중풍 등의 질병 발생율이 높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추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을 경우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되고 심장 부담이 증가돼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한 위험이 커진다.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병 환자들이나 40살 이후의 사람들은 기온 하강에 따른 신체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겨울철 운동 시간대로는 기온이 조금 오른 낮 시간이나 몸이 충분히 활성화된 저녁 시간이 좋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준비운동은 실내에서 약간 땀 날 정도로**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 몸이 뻣뻣하다. 준비운동은 위축된 신체 상태를 '운동'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근육과 인대 등의 인체 조직이 활성화되면 민첩성, 유연성 등이 증가해 발목이나 무릎, 허리 등의 부상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준비운동에도 수칙이 있다. 영하의 온도에서는 체온이 쉽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준비운동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 몸에서 조금 땀이 날 정도의 약한 강도로 빨리걷기와 제자리 뛰기, 스트레칭 등을 번갈아 진행하면 된다.

**▽장갑 · 목도리로 찬바람 피하고 젖은 운동복 삼가**

겨울철 운동의 핵심은 체온 관리다.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신체기능이 떨어져 작은 충격에도 부상을 입기 쉬우므로, 36~38도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해 겉옷은 추위와 더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옷을 입고 속옷은 땀의 흡수가 빠른 면소재를 택한다. 또한 손, 머리, 목덜미가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갑이나 모자, 목도리 등을 반드시 착용한다.

젖은 운동복이나 장갑은 동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또한 운동 후에는 땀이 식는 과정에서 체온을 쉽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목욕을 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유산소 운동 바람직…절은 마음 건강까지 챙겨**

관절과 근육 등이 추위로 굳어져 있는 겨울에는 평소에 비해 운동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다. 러닝, 조깅 등 유산소 운동의 경우 자기 최대 운동능력의 60~80% 정도만 발휘하도록 한다. 등에 땀이 약간 배면서 주위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일반적인 겨울철 운동으로는 조깅, 빨리 걷기, 수영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바람직하다. 추위를 견디기 힘든 사람은 조깅머신이나 헬스기구를 이용하거나 스피닝(실내자전거에 에어로빅을 결합한 운동) 등으로 체력을 단련하면 된다. 108배, 1080배 등 절 수행 역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겨울철 실내 운동으로 좋다.




일러스트=최정근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도움말: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실 박원하 교수, 하늘스포츠의학클리닉 조성연 원장)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33)

# 자극없고 끈적임 덜한 참기름 적당

## 어떤 오일이 마사지에 좋은가- i

## 올리브유 골 연화 방지 및 위장 활성화에 도움
## 검정 깨 기름은 모발 복원 · 피부 탄력 증진 효과

귀가 쑤셔올 때 따뜻하게 데운 겨자유를 아픈 귓속에 흘려 넣으면 효과적이다. 종기가 부풀어오르거나 근육 강직, 관절 염좌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위와 복부를 겨자로 마사지하면 비장 증대 치료에 효과적이고 머리에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마사지해 주면 머리카락의 노화, 탈모, 백발화를 예방해 준다. 피부 가려움증엔 약간의 장뇌유를 함께 섞어 문질러 준다.

'올리브 오일'은 매끈한 감촉과 함께 약간 쓴맛이 있으며 열을 낸다. 성분으로는 단백질과 무기질, 올레인이 많이 들어 있다. 서구와 지중해 지역, 중동 지역 국가에서는 샐러드의 드레싱 용으로 널리 사용한다.

올리브유는 골의 연화를 방지해 주고 위장관 속에 있는 여러가지 균들의 조화를 돕는다. 담즙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며 지방의 신진 대사를 증진시킨다. 통증, 관절염, 근육통, 염좌, 소아마비 등에 효과적이다. 종기, 부풀어 오르는 외상에 좋고 피부의 색소 형성에 도움을 준다. 단, 머리카락에는 효과가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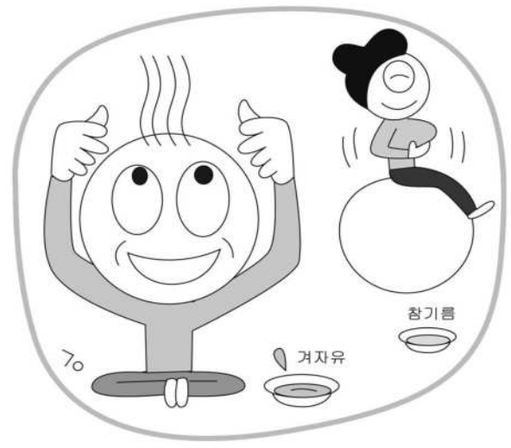
올리브유는 자스민이나 로즈, 라벤더와 같은 방향성 오일을 몇 방울 첨가한 뒤 점성이 덜 한 참기름 등과 섞어서 사용하면 좋다.

다음으로 참기름. 한국인의 식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름이 바로 참기름이다. 고소하면서도 쓰고 떫은 맛을 내며, 매끄럽고 무거우며 열을 낸다. 아유르베다 의사들은 이러한 참기름을 의학용 기름의 주 요소로 즐겨 사용하고 있다. 참기름에는 세사몰과 세사몰린이라는 두 가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부패함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바타에 의해 생긴 병을 치료해 주고 피타를 증가시키며, 카파 체질에는 적당하게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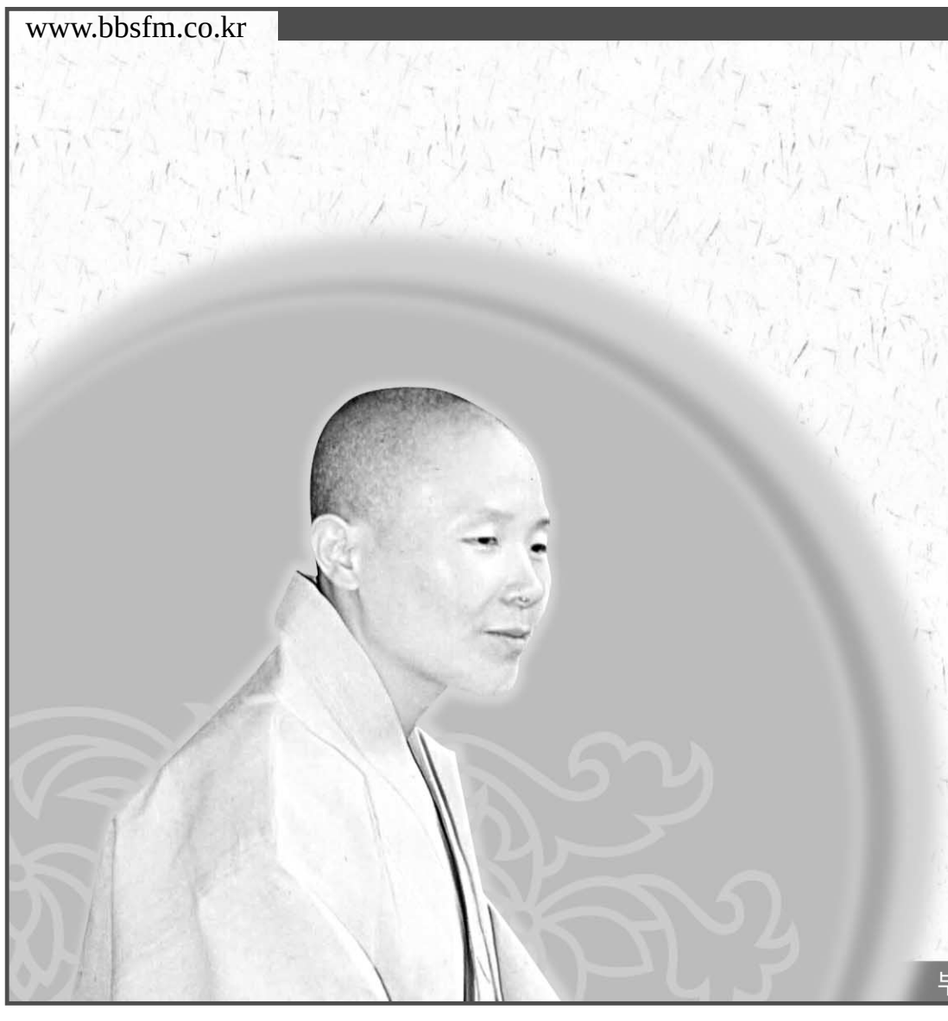
주요 영양소는 철, 인, 마그네슘, 동, 칼슘, 규산 등인데 특히 리놀레인산이 많다. 또한 레시틴 성분은 내분비 기관에 좋은데, 그중에서도 신경과 뇌세포들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 같은 참깨라도 검정 깨에서 빼낸 기름은 종기, 근육 통증과 굳어짐을 제거하고 피부를 강하게 하며 머리카락에 영양을 준다. 피부 건조증을 없애 피부의 탄력성을 증진시킴은 물론 조기 노화 방지에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여성의 경우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유방의 모양을 탄력있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머리카락의 노화를 방지해 줌은 물론 모발을 자연스런 색깔로 복원시켜 주며 정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뛰어나다. 관절염과 통증 치료에도 좋다. 마사지용 기름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참기름이 활용면에서 가장 적당하다. 겨자 오일처럼 피부를 자극하지도 않을 뿐더러 올리브 오일처럼 끈적끈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 포천 중문의대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밤"

프랑스 말 '꼬빵'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빵을 나누어 먹는 사이라는 의미의 이 말은
단지 빵 뿐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 5분 (50분) 여러분을 찾아가는
정목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은
불자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길동무( 道伴 )가 되어 드립니다.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대구 94.5 Mhz / 광주 89.7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

연대불교신문사 창간 10주년 독자 사은 大행사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NESPOT swing

이번 주, 불자님들을 위한

# 특별 법회 이벤트



1. 가고 싶은 사찰은 **네비게이션**을 보며 빠르고 정확히 찾아갈 것!
2. 수백 권의 경전을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바로바로 예습할 것!
3. 큰스님의 중요 법문은 **음성녹음**과 다운받은 **동영상**으로 다시 볼 것!
4. 큰스님과 친견을 원할 때에는 **화상통화**로 간단히 해결할 것!

MP3 · 카메라폰과 PDA을 하나로

##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00 **'아이벗'**

520 MHz CPU / Flash – 128MB, RAM – 64MB(133MHz Mobile SDRAM) / 고화질 240 · 320 , 반투과형 TFT LCD(26만 컬러 지원) / 3G CDMA2000 1x EV–DO technology(1.8GHz PCS, RTT capable), IEEE 802 Part 11b(802.11b), 11Mbps / 표준형 – 연속 대기 7일, 연속 통화 3시간, 대용량 – 연속 대기 14일, 연속 통화 6시간

전용네비게이션 I–NAVI+아이벗 880,00원



###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HP rw6100 최저가 특별보급 2가지

**1** 12월 31일까지 62만 5천원에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HP rw6100 스마트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2**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에게는 초기수납금 55,000원에 24개월 의무사용 조건으로 HP rw6100 스마트폰의 혜택과 다양한 주변기기를 드립니다. (월 평균 할부금 24,291원)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 스 : 02)738–3034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